



속초민속발글과 도문메나리농요 전승



속초시 · 속초문화원

목 차

I . 학술 세미나	1
1. 江原道 메나리 民謠의 정의와 범주 / 박민일(강원대 명예교수)	3
2.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 전신재(한림대 명예교수)	7
3. 강원도 소리의 모습 / 신대철(한국학중앙연구원)	21
4.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층 / 장정룡(강릉대 교수)	31
II .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93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95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115
3. 도문메나리농요 화보	133
III . 속초 민요의 실제	143
1. 문헌자료	145
2. 채록자료	170
3. 속초민요 악보	226
□ 부 록	285
1.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경과보고	287
2.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288
3. 활동 사진 자료	289

I. 학술 세미나

- 주제 1.
강원도 메나리 민요의 정의와 범주
- 주제 2.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 주제 3.
강원도 소리의 모습
- 주제 4.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층

- 행사명: 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메나리농요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 일 시: 2006년 9월18일(월) 16:00~18:00
- 장 소: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 마을회관 및 학무정 운동장
- 주 최: 속초시
- 주 관: 속초문화원
- 후 원: 강원민속학회

I. 학술 세미나

주제 1. <기조강연>

江原道 메나리 민謡의 정의와 범주

- 박민일 (강원대 명예교수)

江原道 메나리 민謡의 정의와 범주

朴 敏 一 (강원대명예교수, 강원도 문화재위원)

I. 민謡의 概念

1. 민의 소리 - 열린소리
2. 口碑音樂
3. 原形과 變異

II. 민謡의 分類

1. 민謡와 官謡 (制度圈)
2.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生活謡 等

III. 메나리의 개념과 範疇

1. 농요 / 아라리의 음악적 別稱
2. 농요 / 아라리의 基調音 - 中心音
- 原初音
3. 메나리 선법 - 솔, 라, 미, 도, 레 (파, 시) 哀調
4. 메나리와 트로트와의 관계

IV. 메나리의 造語的 構造와 語義

1. 造語的 構造
 - 메 - 뫼의 變音 (山 - 땅)
 - 나 - 내의 變音 (川 - 물)
 - 리 - 사람, 사물 지칭 抽象名詞
(예) 그 사람, 그 이

2. 語義 - 山과 川의 소리 (노래)
 - 1) 농사의 노래 (노래)
 - 땅과 물 : 농사의 근본 (인프라)
 - 2) 자연의 소리 (노래)
 - 땅과 물 : 森羅萬象의 전부 (자연)
3. 語音
 - 1) 메나리의 變音 → 아라리
 - 脣音의 流音化
(ㅁ → ㅇ 音化 - 流麗音化)
 - 2) 硬音, 激音의 流音化 (軟音化)
(ㄱ, ㄷ, ㅋ, ㅌ 音 / 까마귀 - 가마귀)
 - 3) 言語의 勞力經濟
 - 難音 - 易音化
의 → 으, ㅋ → ㄱ, (되-메-미)
 - 單語의 省略化 (縮約, 默音化)
마세요 - 마요
땅 - 따
월천리 - 워나리

V. 속초민요의 학술적 정립

1. 속초민요의 조사, 資料集化
2. 속초민요 研究, 아카데미化
3. 속초 漁謠 (漁撈謠)의 無形文化財化
4. 대중적 이벤트와 아카데미 이벤트
 - * 속초민요, 양양민요

주제 2.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 전 신 재 (한림대 명예교수)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전 신 재 (한림대 명예교수)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민요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민요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민요 대신 대중가요를 부른다. 민요는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노래라고 할 때, 삶의 양식이 바뀌었으니 민요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농부들이 마을 단위로 두레를 조직하여 집단으로 모를 심으면서 <모심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한 농부가 이앙기(移秧機)를 이용하여 모를 심는다. 이에 따라 <모심는소리>가 사라졌다. 현재에는 또한 논에 제초제(除草劑)를 뿌려 아예 잡초가 나지 않게 하거나 잡초를 없애버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논매는소리>도 사라졌다. 과거에는 농부들 두어 명이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며 <도리깨질하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농부들이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리깨질하는소리>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부녀자들이 벼틀로 벼를 짜면서 <베짜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벼틀로 벼를 짜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베짜는소리>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운상하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상여를 이용하지 않고 영구차를 이용한다. 따라서 <운상하는소리>가 사라졌다. 간혹 상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 <운상하는소리>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동네 골목에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술래잡기하는소리>, <편불리기하는소리>, <고무줄하는소리>, <줄넘기하는소리> 등을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놀이방, 공부방, 각종 학원 등에 다니느라고 아이들도 바쁘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각종 유희요가 사라졌다.

그런데 민요의 사라짐은 민요의 사라짐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요와 함께 거기에 담겨 있던 진솔한 사람 냄새까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민요와 함께 거기에 담겨 있던 지역의 고유성까지 사라져 가고 있다. 민요와 함께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 온 진실한 삶의 무게와 그 지역에만 존재하던 독특한 아름다움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의 문화가 비인간화와 중앙문화의 횡포로 치닫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대안 없는 몸짓이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오늘의 문화 상황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로 살려내는 길은 무엇인가 등을 탐색해 보는 일은 요즈음에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는 지역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2. 문화 원형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 6월 23일에 ‘100대 민족문화상징’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전자(DNA)를 찾고’,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전통문화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 하고,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 및 홍보’ 하기 위하여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 아리랑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인정한 것이다. 민요로서 선정된 것은 아리랑이 유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전라도 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도 지역의 밀양아리랑, 경기도 지역의 경기도 긴아리랑, 경기도 자진아리랑, 본조아리랑, 강원도 지역의 강원도 자진아리랑, 강원도 긴아리랑, 강원도 엮음아리랑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리랑이 있다. 이번에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한 아리랑이 이들 중 어느 아리랑이라는 언급은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아리랑을 총괄해서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했을 듯싶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민요가 아닌 것들이 있다. 진도(珍島)아리랑은 노동요도 아니고, 의식요도 아니고, 유희요도 아니다. 진도아리랑은 또한 진도 지역에서 오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노래도 아니다. 진도아리랑은 1920년대에 박종기(朴種基, 1879-1939)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작곡한 것이다. 밀양(密陽)아리랑 또한 그 가락이 밀양 지역의 민요 가락이 아니다. 밀양아리랑은 1920년대 음반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제 초기에 어느 개인이 작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조(本調)아리랑은 영화 <아리랑>(1926)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운규(羅雲奎, 1902-1937)가 영

화 〈아리랑〉을 만들 때 바이올린 악사에게 의뢰하여 편곡한 것이다. 그 주제곡이 영화와 함께 열광적 호응을 얻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것이다. 본조아리랑의 모태는 경기도 자진아리랑(신조아리랑)이고, 경기도 자진아리랑의 모태는 경기도 긴아리랑(서울 긴아리랑)이다. 그런데 경기도 긴아리랑은 경기도 기층문화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긴아리랑은 강원도 긴아리랑에서 파생된 것이다.¹⁾ 강원도의 긴아리랑이 경기도의 긴아리랑을 파생시킨 계기는 흥선 대원군(이하응, 1820-1898)의 경복궁 중건(1865. 4. - 1868. 6.)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원도 긴아리랑은 강원도의 거의 전역에서 불리어진다. 주로 모심을 때 부르고, 김맬 때, 나무할 때, 뗏목 탈 때에도 부른다. 그리고 즐기는 소리로도 부른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근원은 강원도의 아리랑이다. 강원도의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모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지역의 아리랑보다 노랫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노랫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언어에는 각 지방마다 고유한 사투리가 있다.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이 그것이다. 민요는 각 지방마다 고유한 선법(旋法)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서는 각 지방마다 어조가 다른 것처럼 민요에서는 각 지방마다 음조가 다르다. 민요에서 그 지방의 고유한 음조를 토리[調]라고 한다. 언어에 사투리가 있듯이 음악에는 토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열십자를 그어서 우리나라를 사등분했을 때, 왼쪽 위를 수심가토리, 왼쪽 아래를 육자배기토리, 오른쪽 위·아래를 메나리토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수심가토리권의 중심지역이 평안도이고 육자배기토리권의 중심지역이 전라도라면 메나리토리권의 중심지역은 강원도이다.

메나리토리는 평안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전라도 지역의 육자배기토리 등에 비해서 보수성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다.²⁾ 수심가토리권이나 육자배기토리권에서는 통속민요가 나타나는 데 반해서 메나리토리권에서는 통속민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³⁾ 강원도의 메나리토리는 대중적 취향에 따라 변질하지 않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산악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산지문화에서 생성된 민요가 풍부하다. 〈풀베는소리〉, 〈풀씨는소리〉, 〈나무하는소리〉, 〈지게소리〉, 〈목도하는소리〉 등이 그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등의 장례의식요가 발달한 것도 강원도는 산세가 좋아서 장례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민

1)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1997, pp.88-114

2) 김혜정, 「강원도 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의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p.46

3) 오용록, 「종합토론」, 위의 책, p.177

요가 강원도에서만 전승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이들 민요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발달한 것이다. 가령 <목도하는소리>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발달해 있다. 그런데 전국 어느 지역이나 <목도하는소리>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⁴⁾ 한국의 <목도하는소리>의 원류는 강원도의 <목도하는소리>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원류가 강원도의 <아라리>이듯이 한국의 모든 <목도하는소리>의 원류는 강원도의 <목도하는소리>인 것이다.

강원도 민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메나리토리는, 통속화한 다른 지방의 토리와는 달리, 원형과 순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강원도의 <아라리>와 <목도하는소리>는 한국의 모든 <아리랑>과 <목도하는소리>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각각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3. 정체성

옛날에는 자기가 신을 신발은 가정에서 만들어 신었다. 신을 삼는 것은 가장의 몫이었다. 가장은 가족들의 발의 크기뿐만 아니라 취향에도 꼭 맞게 가족들의 신을 각각 만들었다. 가장이 삼아준 신을 신고 다니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다. 옛날에는 자기가 입을 옷은 가정에서 만들어 입었다. 옷을 짓는 것은 주부의 몫이었다. 주부는 가족들의 몸의 크기뿐만 아니라 취향에도 꼭 맞게 가족들의 옷을 각각 지었다. 주부가 지어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다. 먹는 음식과 사는 집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주(衣食住)가 다 그러하였다.

요즈음에는 자기가 신을 신을 가게에 가서 사서 신는다. 옷도 사서 입는다. 옷가게에는 다양한 옷감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상표의 옷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골라서 사 입는다. 옷을 사는 사람은 그 많은 옷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자기의 개성을 살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을 따르는 것이다. 그

4) 이보형, 「한국민요의 전국적 판도와 강원도 민요의 국면」,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p.16

는 그 옷의 상표와 디자이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사랑과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옛날의 옷과 요즈음의 옷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듯이 옛날의 민요와 요즈음의 대중가요에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현대의 대중가요는 전문 작사가가 작사하고, 전문 작곡가가 작곡하고, 전문 가수가 부르고, 전문 문화기획가가 보급한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그것을 배워서 부른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강원도 농민과 제주도 어민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강원도의 농민과 제주도의 어민이 같은 이름의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상표의 옷을 입고, 같은 상표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같은 노래를 부른다. 노래문화의 이러한 획일화는 중앙 문화 권력의 횡포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부를 노래를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불렀다. 작사도 그들이 직접 하고, 작곡도 그들이 직접 하고, 가창도 그들이 직접 하였다. 그것이 민요이다. 그러므로 민요는 중앙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정서를 노래하지 않고, 삶의 현장과 자기의 개성적 내면에서 우리나라오는 정서를 노래한다. 오늘날의 대중가요가 일방적 보급과 수동적 모방, 전국적 획일화, 중앙 문화 권력의 횡포로 치닫고 있는 문화라면, 옛날의 민요는 능동적 창조력과 지역별 고유성을 발휘하고 있는, 향토성이 풍부한 지역문화였다.

민요가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해 있는 문화이고, 해당 지역의 고유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라는 사실은 다른 민속문화들과의 대비에서도 드러난다.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눌 때 향토성이 가장 풍부한 것은 전설이다. 신화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전승되고 민담은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전승되는 데에 반해서, 전설은 마을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설에는 광포전설(廣布傳說)이라는 것이 있어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전설이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아기장수전설>, <장자못전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민요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정선아라리>는 정선에서만 불린다. 정선의 <정선아라리>는 바로 인접해 있는 평창의 <평창아라리>와도 다르다.

민속극이나 판소리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공연하였지만 민요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렀다. 밭을 가는 현장, 논을 매는 현장, 삼을 삼는 현장, 베를 짜는 현장, 그물을 끌어올리는 현장, 상여를 메고 가는 현장 등에서 사람들은 민요를 불렀다. 또한 판소리에는 기층민의 문화와 상류 지배계층의 문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문화, 중국의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있다. 양반과 왕족들도 판소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민요에는 특정지역의 기층민의 문화만 함축되어 있다. 양반이나 왕족은, 설화나 판소리는 수용하였지만, 민요는 부르지 않았다.

살펴본 대로, 민요는 기층민이 향유한 노래이고, 삶의 현장에서 우러난 정서이며,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는 점에서 민요는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원이다. 민요가 지역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 자원이라고 할 때, 강원도 민요의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강원도 민요에 나타난 자연관과 강원도 민요의 가창 방법만 살펴보려 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 자연이 주목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강원도 민요에 나타난 자연관을 우선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가창 방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민요가 표출하는 서정성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 우열 관계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강원도의 <아라리>(긴아라리)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파악한다. 즉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의 시조들에서처럼 자연을 인간이 본받아야 할 원리로, 즉 자연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지도 않고, 서양의 일부 문학에서처럼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도 않으며,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즉 자연도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강원도의 <아라리>에서 자연은 인간과 교감(交感)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즉 고전시가의 산수시(山水詩)에서처럼 자연이 심미적(審美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것으로 보는 도교(道敎)의 자연관에서처럼 자연이 몰입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자연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아라리>(긴아라리)의 노랫말에 ‘천지조화(天地造化)’라는 말이 여러 개체요에 나온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천지조화’는 우주 질서의 철학적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같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조화’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연후에 땅이 젖는 것이 아니다. 땅에 누기가 있으면 비가 오게 되어 있고, 하늘이 비를 내릴 마음을 먹으면 비를 내리기 전에 땅에 누기가 찬다. 하늘과 땅은 이렇게 교감한다. 여성의 몸에 누기가 있으면 남성이 여기에 호응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해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성의 몸에 누기가 찬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땅에 누기가 지면 여성의 몸에도 누기가 진다. 여성은 땅이고, 남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은 이렇게 서로 교감한다. 이것이 자연의 오묘한 조화이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성리학의 자연관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교감의 원리는 정서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천에 올라서 님 생각을 하니 / 풀잎에 매듭매듭 찬 이슬이 맺히네.”라는 노랫말에는 인간과 자연이 끌어안고 함께 우는 정경이 나타나 있다. 자연이 기쁘면 인간도 기쁘고, 인간이 슬프면 자연도 슬프다. 자연의 기쁨이 곧 인간의 기쁨이고, 인간의 슬픔이 곧 자연의 슬픔이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의 극치를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각각 자기 세계를 가

지고 있으면서 상호 교감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아라리>의 세계인 것이다.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주체적 존재인 것이다. 자연을 이념화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한다. 이것은 자연을 상실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하고도 적절한 자연관이다.⁵⁾

자연 및 동물과의 친화력이 특히 잘 나타나는 민요는 <소모는소리>이다. 소를 부려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논을 삶을 때 이 민요를 부르는데 특히 비탈밭을 갈면서 부르는 <소모는소리>에서 자연 및 동물과의 친화력이 잘 나타난다. 비탈밭을 가는 노동 과정에서 소는 인간의 작업 지시 내용을 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작업 지시와는 관계가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신세를 털어놓는 감정적 호소까지도 그대로 수용한다. 소를 모는 사람에게 소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다. 석양이 드리운 고즈넉한 저녁때 산기슭에서 마을에까지 들려오는, 맑으면서도 처량한 <소모는소리>는 마을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자연의 품 속에서 인간과 소가 정서를 교류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고, 그 소리는 한 가락의 음악이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예술이다. 그 예술적 경지는 경운기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기능면에서 보아서도 경운기는 비탈밭을 갈지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친화력은 새 소리를 흉내내는 민요에도 잘 나타난다. 강원도 산간지역 사람들은 새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인식한다. 그들은 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를 교류하는 것이다. 산비둘기, 두견새, 부엉이, 피꼬리, 종달새, 꿩, 기러기 등을 노래하는 민요들이 그것이다.

강원도 특유의 가창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민요를 부르는 방식은 우선 독창과 공동창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공동창은 다시 선후창, 교환창, 복창, 제창으로 나누어진다.

선후창(先後唱)은 선창자(앞소리꾼)가 소리를 메기면 후창자(뒷소리꾼)가 그것을 받는 가창 방식이다. 메기는 소리는 내용이 있는 노랫말이고, 받는 소리는 후렴이다. 일반적으로 선창자는 한 명이고, 후창자는 여러 명이다. 이 가창 방식에서는 선창자가 민요를 잘 부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가창력도 좋아야 하고, 노랫말도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구연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내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후창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 가창 방식에서 후창자들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들은 후렴만 부를 줄 알면 된다.

교환창(交換唱)은 창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 번갈아 노래하는 가창 방식이다. 선창자들

5) 아라리에 나타난 자연관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전신재, 「아라리의 자연관」,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pp.121-143

과 후창자들은 모두 내용이 있는 노랫말을 부른다. 후렴은 없고 각기 다른 노랫말을 부른다. 이 가창 방식에서는 선창자들과 후창자들 모두가 민요를 잘 부르는 소리꾼들이어야 한다. 여럿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노랫말을 불러야 한다. 즉흥적인 창작은 선후창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환창에서는 불가능하다. 선후창에서는 선창자 한 명이 후창자 여러 명을 이끌고 가지만, 교환창에서는 선창자들과 후창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노래를 부른다.

복창(復唱)은 선창자의 노래를 후창자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가창 방식이고, 제창(齊唱)은 한 노래를 여러 사람이 단일한 선율로 함께 부르는 가창 방식이다.

공동창의 여러 가창 방식들 중에서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가창 방식은 교환창이다. 선후창에서는 선창자 한 사람만 민요에 숙달한 사람이면 가창이 가능하지만, 교환창에서는 참여자들 모두가 민요에 숙달한 사람들이어야 가창이 가능하다. 교환창은 또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필요로 한다. 가창자들끼리 유대감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교환창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환창을 잘 부르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이다.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는 노동요를 주로 교환창으로 부른다. 그들은 그만큼 단결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의 교환창에서는 동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독백의 원리, 교감의 원리가 작용한다. 여기에서 동화의 원리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대화의 원리는 함께 일한다는 동류 의식이 잘 나타나는 원리이다.⁶⁾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교환창을 잘 부르지 않는다. 특히 영동지역 농요의 가창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창이다.⁷⁾ 또한 강원도의 <아라리>와 <미나리>의 기본적인 가창 방식은 독창이다. 그냥 혼자 부르거나, 여럿이 제창을 하는 것이 강원도 민요의 주된 가창 방식이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가창 방식이다. 강원도에서 특히 세련되게 발달한 <회다지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논농사요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메기고 받는 기교나 두 패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노랫말을 주고받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특정 집단의 내부에서는 동질성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집단의 외부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가지는 특성을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라고 일단 범박하게 정의할 때,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기교를 초월한 진실,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 자연과의 인간적 교감, 자립정신, 개인적 서정 등을 강원도 민요의 정체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pp.153-161

7) 강등학,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p.86

4. 전망

전통사회에서 민요가 작업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기능, 작업을 지시하는 기능,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능 등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민요의 전부인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내면에 쌓인 오예(汚穢)를 쓸어내고 마음을 정화(淨化)시키는 일, 신명을 불러일으켜 생명력을 갱신(更新)하는 일 등도 민요가 담당했던 기능이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마음의 정화와 생명력의 갱신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러니 삶의 양식이 바뀌었으니 민요가 소멸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과거에 두레 노동으로 눈에 모를 심을 때에는 <모심는소리>를 불렀고, 논을 김을 땄 때에는 <논매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벼를 벨 때에는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한 근거는 무엇인가? 두레 노동을 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구어 가며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면 벼가 잘 자라고 결실이 잘 된다. 그러나 한두 사람 품을 사서 가족끼리 모내기를 한 경우에는 벼가 잘 자라지 못한다. 즉 노래를 들려주면 잘 자라고, 노래를 들려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벼도 인간처럼 음악에 감응하는 것이다. 벼를 벨 때에는 민요를 부르지 않는다. 벼가 다 자라서 결실을 한 후이기 때문에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심는소리>의 노랫말에서는 성(性)이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논매는소리>의 노랫말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판에서 자란 모를 논으로 옮겨 심을 때에는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즉 각별한 생명력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이다.⁸⁾

벼들은 민요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풍물도 좋아한다. 농악을 치면 벼들이 좋아한다. 농악을 치면 벼들은 좋아하지만, 해충들은 싫어한다. 농악을 치면 벼멸구, 이화명충 등 벼의 해충들이 죽는다. 농악 소리의 큰 파장을 해충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악을 쳐서 농사를 지은 논은 병충해 강하고 소출이 많다. 풍물굿은 벼의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민요의 경우처럼 벼의 이식기와 성장기에는 풍물굿을 하지만 수확기에는 풍물굿을 별로 하지 않는다.⁹⁾

위의 두 사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에서 두레 노동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기능을 이용하는 전통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

일본의 야마가다현의 한 농장 ‘사운드 재배하우스’에서는 채소와 과일들에게 매일 세

8) 임재해, 「노래의 생명성과 민요 연구의 현장 확장」,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pp.78-86

9) 김익두, 「풍물굿의 공연원리와 연행적 성격」, 『한국민속학』27, 민속학회, 1995, pp.126-129

차례에 걸쳐 15분씩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음악을 들려준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수확 기간도 단축된다. 여기에서 생산한 ‘모차르트 배추’ ‘브람스 토마토’ 등은 맛이 좋아 슈퍼마켓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¹⁰⁾

전통은 옛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에 기대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통을 추종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전통을 부정하고, 전통에 저항하고, 전통을 재평가함으로써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새로운 창조는 결과적으로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의 힘이다. 우리는 고구려 시대의 가옥에서부터 현대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재창조되어 온 온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 방법이다. 그런데 민요에 관한 한 우리가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소홀히 하여 왔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 사회에서 민요는 교육콘텐츠, 전자책콘텐츠, 방송 및 영화콘텐츠, 인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축제콘텐츠 등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¹¹⁾ 민요를 좀 더 고급스러운 음악으로 재창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 로보스(Villa Lobos, 1887-1959)를 주목하게 된다. 브라질 음악의 아버지. 브라질의 세계적 음악가 빌라 로보스. 그의 음악에서 배어나는 원초적인 생명력, 아마존(Amazon)적인 정서, 열대 지방의 우울과 무시무시한 무기력과 그 속에 숨어 있는 투쟁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소종래는 민요이다. 빌라 로보스의 음악을 키워낸 밑거름은 바로 민요인 것이다. 젊은 시절에 그는 브라질의 자연과 그 자연 속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매혹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연과 그 자연 속 사람들의 삶에 이끌리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오지를 헤매면서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한다. 원시 인디언의 노래, 바히아 흑인들이 부르는 민요의 가락, 크고작은 마을의 독특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민요의 가락 등에서 그는 브라질의 혼을 발견한다. 그는 그 혼을 그의 소리로 새롭게 형상화하여 그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빌라 로보스는 말한다. “민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이 곧 민요 그것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음악에 브라질의 민요를 인용한 경우가 없다. 그는 민요를 녹이어 그의 개성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빌라 로보스의 음악이다. 브라질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브라질적인 것으로 이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을 그가 직접 지휘하는 연주 여행에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그의 음악에 찬사를 보낸 것은 그가 가장 브

10) 임재해, 앞의 논문, p.76

11)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 pp.115-132

라질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질 민요를 애호하고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바흐의 음악을 애호하고 연구하였다. 우리는 빌라 로보스에게서 문화 창조의 전범을 본다.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2000년 8월 23일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 공연은 광복 55주년을 축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는 음악회였다. 김병화가 지휘하였다. 이 음악회의 첫 번째 레퍼토리는 관현악 〈아리랑〉이었다. 북한의 공훈예술가 최성환이 1976년에 작곡한 작품이다. 이 관현악 〈아리랑〉은 본조아리랑을 주선율로 이용하고 있어 북한 사람의 가슴과 남한 사람의 가슴을 동시에 촉촉하게 적신다. 민족의 동질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그것은 민요의 힘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아라리〉,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원류인 〈아라리〉의 주선율을 이용한 관현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라리〉의 주선율을 이용한 대작을 만들어볼 만하다.

속초에서는 〈미나리〉에 관심을 가지고 〈미나리〉를 다양하게 재창조해볼 만하다. 〈아라리〉와 〈미나리〉를 강원도 민요의 쌍벽으로 삼을 만한데 〈미나리〉는 속초를 포함하는 영동지역에서 주로 불린다. 영동 지역의 〈논매는소리〉는 〈미나리〉와 〈오독떼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오독떼기〉는 〈미나리〉로부터 파생된 노래이다.¹²⁾ 〈미나리〉를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로 삼을 만하다. 장정룡은 ‘미나리’를 ‘민아라리’의 축약으로 보았다. 즉 ‘아라리’ 앞에 접두사 ‘민’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미나리〉는 〈아라리〉의 한 분파라는 것이다.¹³⁾ 또한 이보형은 ‘아라리’와 ‘미나리’를 각각 ‘알아리’와 ‘민아리’로 보았다. 여기에서 ‘아리’는 ‘노래 혹은 소리’의 뜻이다. 그리고 ‘알’은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이고, ‘민’은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아라리’는 후렴이 있는 노래이니 ‘알아리’이고, ‘미나리’는 후렴이 없는 노래이니 ‘민아리’라는 것이다.¹⁴⁾ 어쨌든 〈아라리〉와 〈미나리〉를 강원도 민요의 쌍벽으로 삼을 만하다. 훌륭한 음악문화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12) 강동학·이영식,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 민속원, 2002, p.715

13) 장정룡, 「삼척메나리 민요의 이해」,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p.212

14)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1997, pp.117-119

주제 3.

강원도 소리의 모습

- 신 대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원도 소리의 모습

신 대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하나. 머리말

이 땅의 우리의 말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이 땅임에도 우리의 말은 강을 하나 넘고, 산을 하나 넘으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의 말이 지닌 각각의 모양새는 참으로 재미있어 그 모두가 독특한 맛과 멋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말을 들을 때와 강원도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멀리서 함경도의 말을 들을 때 등등의 그 흥취는 각별하게 다가온다.¹⁵⁾

이 땅의 풍습 또한 이 땅의 말이 지닌 모습처럼 다양하다. 이 땅 이 곳, 저곳의 말이 구별되듯이 풍습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곳, 저 곳의 말의 다름에 따라 풍습이 다르다. 그래서 이 땅을 말과 풍습의 같고 다름에 따라 지도로 그려 나누면 대개 말과 풍습의 지도는 거의 같은 크기와 넓이로 겹쳐져 구분되어 진다.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소리의 모습도 대개 위의 말과 풍습의 권역과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 땅의 이 셋이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 셋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이 땅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리의 다양성을 자랑하게 하였으며, 제마다의 독특한 맛과 멋을 뽑내는 소리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로 강원도의 소리는 강원도만의 품세로 강원도만의 맛과 멋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여 오늘로 이어오게 하였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산세, 그리고 좋은 자연환경을 부인할 이 땅의 우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천혜라고 할 수 있겠다. 드러나는 강원도의 여러 모습은 꾸밈이 없고,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매력으로 짝 차 있다. 즉 거죽으로 드러난 강원도

15) 이 글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새로운 음악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니다. 단지 강원도 소리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향토문화와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의 여러 맛과 멋의 모습은 자연이 주는 미학의 세계 그대로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미학의 세계는 강원도의 소리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다른 지역의 소리에서 확인되는 치장이 드물다. 즉 강원도의 소리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강원도의 소리는 맨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면 강원도의 소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땅의 다른 지역의 소리와는 어떻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 이러한 점을 살펴 강원도 소리의 제 모습을 확인해 보려 함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다.

둘. 강원도 소리의 구성음 메나리토리와 그에 의한 소리의 가치와 의미

모든 음악은 소리로 구성된다. 소리가 없는 음악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음악에는 높이가 같은 단 하나의 소리로 된 곡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소리로 구성된다. 그래서 한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의 수와 높이에 따른 그 소리의 구성 체계, 구성음의 파악은 해당 음악의 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까닭은 이를 통해서 해당 음악의 정체성 일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면 강원도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 땅의 음악학자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이 땅의 민요를 대개 다음과 같이 네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경기민요(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 남도민요(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 동부민요(경상도·강원도·함경도 지역의 민요), 서도민요(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¹⁷⁾

위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 이 땅의 소리들은 각 권역에 따라 구성음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편의상 서양음악에서 쓰이고 있는 계명으로 이들 권역 소리의 구성음

16) 여기서의 소리는 위에서 언급한 소리와 구별된다. 위의 소리는 음악, 특히 노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곳에서의 소리는 노래의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음악을 구성하는 개별 소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소리의 용어가 쓰였을 시는 노래로서의 소리를 의미한다.

17) 학자에 따라서 경기소리, 남도소리, 동부소리, 그리고 서도소리의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대개 방언권의 구분과 맞아 떨어진다. 다만 동부민요의 권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보다 넓어 방언권과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부민요의 권역은 광복 후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넓은 함경도 지역의 향토민요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다.

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기민요-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 남도민요-미·라·도시(단, 도는 아주 짧게 낸다), 동부민요-미·솔·라·도·레(단, 미·라·도가 가장 자주 출현한다), 서도민요-레·미·솔·라·도.

위에 소개된 각 권역별의 민요에 사용되는 음들이 서양음악의 해당 계명 높이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의 조직이나 그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계명으로 소개한 우리 민요에 사용되고 있는 구성음들은 대강 서양음악의 해당 계명 높이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음들의 구성 체계는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의 체계와도 다르다.

위에 이 땅의 여러 권역별 소리에 사용되는 음들의 구성을 소개하였지만, 해당 권역별의 소리 모두가 반드시 위의 음체계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각 권역별 소리에는 위의 체계를 벗어난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대개 각 권역별의 소리에는 위의 구성음 체계로 되어있는 곡들이 다른 체계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위의 권역별 구성음들은 해당 지역 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소리, 즉 민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부민요권에 속한다. 동부민요권은 경상도로부터 함경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즉 남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동부민요권에 속한다. 지금까지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동부권의 소리는 위와 같이 ‘미·솔·라·도·레’로 되어 있고, ‘레’의 위에 처음의 ‘미’보다 한 옥타브 높은 ‘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미’음은 결국 한 옥타브 아래의 ‘미’와 같은 음 임으로 이 음을 구성음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소리에 쓰이는 이 다섯 음은 물론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에도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음 체계를 음악학자들은 ‘메나리토리’, 혹은 ‘메나리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가 많은 이 지역은 달리는 ‘메나리토리권’으로도 불린다.

메나리토리권의 소리가 편의상 서양음악의 ‘미·솔·라·도·레’ 다섯 음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다섯 음 중 ‘미·라·도’의 세 음이 다른 두 음보다 소리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메나리토리에서 솔과 레는 대개 경과적, 혹은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현 회수도 많지 않다. 음악학자들은 메나리토리는 ‘미·라·도’의 3음 중심으로 된 음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음 중심의 체계는 육자배기토리라고 불리고 있는 남도의 소리 구성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음악 실재는 전혀 다른 맛과 멋의 세계로 되어 있다.

불교의 재에서 연주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범패는 서양음악의 평성가에 비교되는 아주 귀중한 음악으로 중요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범패는 보통의 소리와는 다른 음악이다.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는 지고(至高)한 천상의 소

리이다.

이 땅의 범패는 아직도 고대 불교문화권의 음악문화의 흔적을 보전하고 있다. 이 땅에 현전하는 범패를 통해서 고대 불교문화권의 음악과 그 공통적인 특징 일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범패는 이 땅에서만 귀중히 여기는 음악문화 유산의 범위를 벗어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소리의 구성음 체계인 ‘메나리토리’의 주요 3음은 범패의 구성음 체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달리 말하면 ‘메나리토리’는 범패의 구성음도 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메나리토리’의 소리와 범패는 고대 이후로 음악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소리가 된다. 따라서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는 인간의 영혼에 호소해 온 범패 소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나리토리’에 의한 소리에도 인간의 영혼을 호소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메나리토리’로 된 많은 강원도 소리에도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강원도 소리가 지닌 귀중한 가치와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는 즉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지역의 향토민요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의 광대한 지역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메나리토리가 현재 쓰이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판소리와 무악에서도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발견된다. 즉 일찍이 신재효의 흥보가 사설에 메나리가 등장하였고, 명창 정권진의 춘향가에 심봉사가 황성 맹인 잔치에 가는 대목인 ‘길소리’와 심청 모친 출상하는 대목은 메나리토리의 소리로 불리며, 서울 지역의 무당이 굿을 하면서 메나리토리로도 소리를 하는 예가 이미 오래 전에 보고되었다. 왜, 이렇게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넓게 쓰였고, 또 쓰이고 있는지는 아직 자세히 수 없다. 그러나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가 판소리와 서울 지역의 무악에서 쓰이고, 메나리토리권을 벗어난 아주 광범한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까닭은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지닌 음악적 가치와 의미가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으로 보아도 메나리토리로 된 강원도 소리가 지닌 가치와 의미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셋. 강원도 소리의 가락과 그 맛, 멋,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의 광대한 지역이 음악적으로 메나리토리권으로 불리

면서 이 지역의 많은 소리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구성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음악의 맛과 멋은 서로가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의 멋과 맛은 그 각 소리의 가락과 시김새, 그리고 리듬의 구성이 다름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다. 즉 메나리토리권 소리가 비록 구성음은 같아도 각 음악이 지닌 음악미의 세계는 서로 구별된다.

먼저 경상도의 소리는 경상도의 말처럼 투박한 느낌을 준다. 경상도의 소리는 비교적 빠른 한배와 규칙적인 장단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옹헤야’, ‘밀양아리랑’, 그리고 ‘꽤지나 칭칭 나네’를 예로 들어보자. 이 세 곡은 전체적으로 경상도의 말처럼 소리를 툭툭 던진다. 이 세곡은 처음의 시작도 소리를 툭툭 던진다. 이러한 가락의 구성과 시김새, 그리고 창법은 시종일관한다. 그러면서 특이한 음악적 강인함을 자랑한다. 경상도 사람들의 투박함과 강인함이 음악 속에 잘 살아있는 것이다.

함경도의 소리도 함경도의 말처럼 특이한 억양을 자랑하면서 흥겨움을 자랑한다. 강원도의 소리와 음악적으로 비슷한 경향도 보이기도 하나, 한배나 장단 역시 경상도의 소리와 빠르거나 규칙적인 것을 즐겨 사용하는 점이 강원도의 소리와 구별된다. 노랫말 부침도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변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음악의 맛이 밋밋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함경도 소리로 잘 알려진 ‘신고산타령(일명 어랑타령)’에 잘 드러나 있다.

강원도의 소리 역시 강원도의 말이 지닌 억양과는 운율을 잘 살려주고 있다. 그러나 경산도나 함경도의 소리처럼 빠르거나 규칙적인 한배와 장단으로만 소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규칙적인 장단도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엇모리와 같은 장단의 좌우가 불균등한 길이를 갖지 않는 장단도 사용되고, 일정한 장단이 없이 소리가 엮여지기도 한다. 한배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고, 노랫말의 부침새가 다양하며, 리듬 또한 길고 짧은 리듬이 섞여있어 소리의 다양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음역도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보다 훨씬 넓다.

위와 같은 강원도의 소리는 같은 메나리토리로 된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보다 음악적으로 더 세련되어 있고, 남도소리와는 다른 소박한 시김새를 갖춘 가락의 다양함과 구성점은 음악적 맛과 멋의 세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 소리의 음악적 맛과 멋의 세계를 비애(悲哀)의 한(恨)을 지닌 구슬품이나 애절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강원도의 소리의 음악적 안과 밖, 그리고 노랫말에는 이와 같은 비애와 한이 분명히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 비애와 한은 강원도 소리의 아름다움 중 하나인 비장미(悲壯美)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비애와 한의 비장미 세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및 강조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 소리에 담긴 다른 아름다움의 세계는 본의 아니게 감추어져 왔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위 비장미와 상대되는 역동적(力動的) 힘의 아름다움도 담겨있다. 강원도의 많은 소리에는 역동미가 비장미와 함께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강원도의 소리에 담긴 역동미는 비장미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미는 가락의 굳건한 흐름 속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엇모리의 불균등 장단에도 이 역동미는 담겨있고, 힘찬 선율의 도약진행과 사설붙임에도 담겨 있다. 이러한 역동미는 비애와 한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음악적 힘의 세계이다. 그리고 희망을 창조하려는 힘의 세계이다. 소리가 비장에만 잠기려한다면 역동적인 힘은 발산이 될 수 없다. 희망적 미래는 창조될 수 없다. 이러한 삶의 고달픔과 애달픔을 인정하는 비장미와 이를 극복하려는 역동미가 묘한 역설의미를 이루고 있는 소리가 바로 강원도 소리이다.

한(恨)의 비장함은 감상적(感傷的)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 속성에는 긍정적 심성이 아닌 부정적 심성도 담겨있다. 이러한 비장함은 억압되어 잠재된 욕구불만이요, 오래된 좌절과 절망이 낳은 체념과 비애의 정서를 지닌다. 그래서 극복되어지지 않은 이 한의 비장함은 우리의 심성을 부정적으로 향하게 하고, 또 나약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강원도의 소리는 위에 소개한 역동적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하는 조화의 세계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강원도의 소리는 비장미와 함께 역동미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미를 갖춘 강원도의 여러 소리는 당연히 예술적 미와 흥취(興趣)를 갖게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음악미의 세계는 경기소리를 주로 하는 한양과 경기의 직업적 민요가수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연주곡목으로 강원도의 여러 소리를 주저 없이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강원도 소리의 음악미는 직업적 민요가수들에 의해 불려진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그리고 ‘정선아리랑’에는 물론 강릉의 학산농요와 같은 여러 향토민요 속에도 잘 담겨있다. 특히 강원도의 학산 농요와 같은 향토의 소리는,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노동요적인 기능 외에도 오락적 기능도 잘 갖추어져있다.

위에 소개한 강원도 소리에 담겨있는 이러한 여러 음악적 특징과 그 아름다움은 소중한 강원도의 문화적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강원도의 오랜 정신문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의 하나도 된다. 강원도의 소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귀중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소리이다.

넷. 맺는말

지금까지 문화적 시각으로 강원도의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메나리토리의 음 체계와 조직, 그 아름다운 멋과 맛의 세계, 그리고 강원도의 소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시각으로 음악을 살펴볼 때 필요한 관점은 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이 세 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소리 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강원도의 소리가 지닌 한의 비장함과 함께 역동적 힘의 미적 세계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전자보다는 후자, 즉 강원도 소리가 갖고 있는 역동적 힘과 미의 세계를 보다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강원도의 소리에서 이 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소리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함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소리는 분명히 역동적 힘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소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이 점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위에 소개한 강원도 소리가 지닌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관심의 깊이와 넓이는 더해 가고, 확산 및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 소리가 더욱 값진 음악적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강원도의 소리를 중단 없이 미래로, 미래로 이어 주어야 한다.

주제 4.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층

- 장 정 룡 (강릉대 교수)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층

장 정 룡 (강릉대 국문과 교수)

1. 서론

본고는 속초지역에 전승되는 메나리 농요의 전승을 확인하고 그 기층성을 천착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가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쓰였다. 속초시 도문동은 일찍이 농토가 형성되어 소리의 자생적 기반이 이루어진 곳이며, 학무정을 건립한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의 학풍이 전하는 전통한옥마을이다. 이 마을의 정신적 중심으로 매곡선양 사업과 맞물려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전래농요를 전승함으로써 농경생활문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91년부터 속초민속조사를 통해 도문메나리 가사와 전승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1994년부터 제1차 속초민요조사를 통해 도문메나리를 채록하였으며, 1998년 제2차 조사를 통해 가창자의 음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존과 전승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3년 제20회 강원도민속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도문리 주민들은 도문메나리 보존회를 2005년 4월에 결성하고 오순석(남.67) 회장을 중심으로 60명의 회원들이 매주 두 차례 모여 지속적인 계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악문화제, 강릉단오제 등 도내 각종 행사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속초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속초도문메나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조적 계승과 전통문화의 확고한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나아가 속초 최초의 도무형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수체계를 확립하고, 민속문화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 민요에서 사용되는 메나리의 개념과 그 유래를 검토하고, 나아가 속초메나리의 전승내용을 중심으로 도문마을의 문화재 보존과 이론적 전승기반마련의 측

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민요 메나리의 유래와 연구

1) 민요 메나리의 유래와 어원

민요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개념상 山有花와 연관지는 것이 많다. 崔永年은 山有花가 메나리(메너리) 곡조라는 설을 주장한 바 있다.

숙종 24년(1698) 선산녀인 향량은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탄 데로 시집을 보내려고 못 견디게 굴었다. 향량은 자기의 슬픔을 노래 지어 부르면서 낙동강에 빠져 죽었다. 세상에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메너리’가 바로 그것이다. ‘낙동강 검푸른 물 깎보다도 푸르고, 애끓는 봄노래가 물결 모래 밟는다. 정렬한 아가씨의 붉은 눈물 방울 보는 듯, 산 가득한 바람과 이슬에 핏빛으로 아롱진 꽃’¹⁸⁾

이와 달리 李能和는 ‘山遊歌’를 언급하면서 “경상도에서는 미나리 노래를 잘 부른다. 생각건대 미나리노래는 산유가가 바뀐 것으로 의심된다. 대개 우리말에서 산은 미, 유는 노리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¹⁹⁾라고 하여, 메나리는 산을 뜻하는 고대어 ‘메’ 나리는 ‘놀이’로 보아 산놀이노래 즉 ‘山遊歌’라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메나리와 山有花, 山遊歌는 명칭상 다르게 부르나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李秉岐도 ‘山有花’를 남도잡가의 唱調名인 ‘메나리’의 漢譯으로 보았고, 李鐸은 시가군을 범칭하는 구시대의 뜻인 메나리의 吏讀式 표기로, 梁柱東은 시가군의

18) 崔永年, 『海東竹枝』中編, 獎學社, 1925, p.4 “肅宗二十四年 善山民婦香娘 夫死守節 父母欲奪志 乃作此曲 而哀之 投洛東江而死 世傳其曲 今之메너리 洛東烟水碧於紗 斷腸春歌踏浪沙 如見貞娥紅淚滴 滿山風露血斑花”

19) 李能和, 『朝鮮女俗考』翰南書林, 1927, p.129 “慶尙道는 善美那里歌 ᄃᆞ니 按美那里는 疑是山遊歌之轉이라 蓋我語에 山曰美오 遊曰奴里故也라”

범칭인 詞腦格·思內調로 보았다.

山有花 명칭은 『增補文獻備考』(卷106, 樂考, 俗樂部)에 백제가곡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尹廷琦의 『東 錄』(卷4, 八道州縣 慶尙道 尙州)과 숙종 때 嚴慶遂 『孚齋日記』와 『申靑泉集』과 蒲菴 李師命의 시 등에서 볼 수 있다.²⁰⁾

또한 18세기 洛下 李學逵의 『嶺南樂府』에도 수록되어 전한다. 이 책은 『김해악부』라고도 하는데 이학규가 18년 동안 김해에 귀양 가서 지은 것이다. 내용은 영남에 전해오는 전설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노래한 전부 68편으로 형식은 다양하고 상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강언덕에 메나리꽃
물가에는 충렬비 하나
일손도 시름겹게 나무하던 여인네
가슴속 설음을 하소연 할 길 없어
집이라 돌아와 삼촌에게 말했더니
아픔 속도 모르고 꾸짖기만 하누나

사내들은 여편네를 함부로 버리기두
여자야 다시금 누구에게 몸 맡기랴
눈물 가득 머금고 집을 나와서
강가에 다다른 안타까운 마음
맴도는 물결 앞에 멈춰 섰다가
절구공이 내던지듯 몸을 던졌네

고운 처녀 메나리 한 곡조 부르자
설음이 솟구치는 듯 떠오른 치마폭
떠도는 혼을 달래 제를 지낸 들
착하고 슬픔 맘 갈 곳 없으리

짜을 찾지 못한 원앙새랄가
뿌리를 박아 못 본 강풀이랄가
슬픈 혼아 호젓한 낙동강 기슭
메나리꽃 속에나 머물러 있느냐²¹⁾

20) 李鍾出, 「山有花歌 小攷」 『无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pp.431~434에 이들 典據를 다수 들었다.

21) 리용악·김상훈, 『풍요선집』 조선고전문학선집6,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pp.376~377

『풍요선집』에서는 山有花를 ‘메나리꽃’으로 번역하였는데 산유화에 깃든 사연은 18세기 초 善山郡守 趙龜祥이 기록한 것이다. 조구상은 1702년 일선군(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의 군수로 있었는데 향량이라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의 목격자인 나무꾼 여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과정에 향량이 죽기 전 나무꾼 여자에게 들려주었다는 노래를 전해 듣고, 그것을 한자시로 번역하였다.

그는 『一善義烈圖』(일선 고을 의롭게 절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도서)라는 책을 만들면서 메나리의 노래와 향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기록하고 산유화라는 제목을 달아놓았다. ‘산유화’란 ‘메나리’의 한자식 표현이다.²²⁾ 조구상이 나무꾼 여자를 데려다가 심문하여 기록한 이야기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꾼 여자가 음력 구월 초엿새날 나무를 하다가 울면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나무꾼 여자에게 자기는 박자신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임철봉의 아내가 되었던니, 남편이 박대를 하고 내어 쫓아서 친정에 왔는데 계모가 야단을 하기에 거기에도 있지 못하고 삼촌네 집에 갔던 바, 삼촌이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임철봉의 처는 길재의 비석 있는 곳에 이르자 치마와 짚신을 벗어 나무꾼 여자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부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한참동안 통곡을 하고 나서 노래한 곡조를 부른 다음 다시 부탁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네게 노래 한 곡조를 가르쳐줄 것이니 외워 두었다가 여기로 나무하러 와서 이 노래를 메나리곡조로 부르면 내 영혼이 네가 온 줄로 알겠다. 그리고 너도 물결이 빙빙 도는 것을 보거든 내 영혼이 거기에 노는 줄 알아라.”

이윽고 임철봉의 아내는 적삼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 우고 물속에 몸을 던졌다. 나무꾼 여자는 미처 말릴 사이도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어 죽은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치마와 짚신을 전하고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죽은 여인의 아버지는 물가에 가서 아무리 애썼으나 딸의 주검을 찾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적삼으로 얼굴을 가리운 시체가 나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메나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민요인데 그 가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량이 부른 노래가 메나리 곡조에 새 가사를 붙

22)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1, p.167

인 것이라는 말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최옥희는 메나리에 대하여 낙동강 기슭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던 일종의 노동가요이며 주로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라 하였다. 아울러 여인들의 불행한 처지가 반영되어 노래곡조가 쓸쓸하게 울린 것이라든가 향량이(또는 임칠봉의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가사를 메나리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했다.²³⁾

露雀 홍사용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럭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녀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李在郁은 메나리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는데,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을 『新興』(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려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혼동하여 ‘되노리’ ‘되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메나리의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仍用하고 있다.

韓晶東은 『朝光』(1939.10)「내 故郷의 民謠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1936.8)라는 잡지에 「메나리야 메나리야」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高晶玉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²⁴⁾ 任東權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성장되는 ‘미나리’과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²⁵⁾

그러나 이종출은 山有花歌를 메나리와 별개의 백제가요명칭으로 보았고²⁶⁾ 김선풍도 산유화를 山遊歌와 다르게 파악하였고,²⁷⁾ 근래 음악연구자들은 한국민요를 대표하는 메나

23) 최옥희, 위의 책, p.170

24)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p.183

25) 任東權, 『韓國民謠史』집문당, 1964, p.32

26) 李鍾出, 「山有花歌 小攷」『無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pp.431~446

27) 金善豐, 「山有花歌考」(其1), 『中央民俗學』第3號,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pp.7~24
참조, 이 글에는 산유화에 대하여 일본인 小原新三의 글에 수록된 한글 산유화가와 知縣 尹昶山, 蒲菴 李師命의 山有花歌吟 한시를 소개하였다.

리토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주장과 달리 산유화, 산유가, 메나리는 각기 다른 노래가 아닐까 의심해 본다.

다음 둘째는 메나리가 ‘며느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는 산유화의 유래와 연관된 것으로 향랑고사에서 연유된 것이다. “산유화는 산(山) 나리(花) 즉 산나리꽃이라는 뜻으로 메나리와 며느리의 음이 서로 비슷한 데로부터 며느리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조 이름으로 되었다.”²⁸⁾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자어인 산유화나 산유가와 달리 메나리는 고유한 우리말로서 전래민요 명칭인 ‘아라리’에서 ‘메나리’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민요 메나리의 개념과 연구

민요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은 일찍이 고조되었으며, 지역적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정선아리랑, 삼척메나리, 강릉오독떼기’라 하듯이 강원도 지역의 민요는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다.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²⁹⁾ 姜騰鶴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가창구조·기능양상·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³⁰⁾ 金英云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 연구했으며, 근래 메나리를 별개의 장르로 보고 있다.³¹⁾

李素羅는 한국의 농요를 정리하면서 삼척군 지역 농요 메나리를 채보하여「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요권·용도·가창방법·이재욱의 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발표하면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³²⁾

필자는 삼척지방을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

28) 리용악·김상훈, 위의 책, p.359

29)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아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15, 1987, pp.16~30

30)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泮橋語文研究』 반교어문연구회, 1990.

31)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제4집, 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謠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32) 李素羅, 『韓國의 農謠』제4집, 현암사, 1990.

리」(『들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2), 「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4) 삼척과 속초시 도문동 도천메나리를 발굴하였고 필자의 저서에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³³⁾ 이후 『삼척시 전래민요 메나리 실태조사보고서』(삼척문화원, 1998)를 낸 바 있으며 속초의 민요를 조사하면서 도문메나리의 실체를 추적하였다.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나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되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 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³⁴⁾

되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되노리로, 되노리에서 미나리로 訛傳하지는 아니하였슬가”라고 의심하였다.³⁵⁾ 이 견해를 수용한 高晶玉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릴릴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되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 例다.³⁶⁾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

33)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p.89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권 메나리, 1991, p.790

35)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1931.12. 최철 설성경 역음, 『민요의 연구』정음사, 1984, pp.126~132 재록.

36) 高晶玉, 앞의 책, p.183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 전에 洪露雀이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메나리’라는 용어는 우리 민요가락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메나리’의 어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메나리라 하는 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 민요 그것이란 다”³⁷⁾고 말하여 우리민요를 凡稱했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山有花의 동일민요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소라는 ‘산유화를 백제가곡으로 보는 것을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벨 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謠는 조선시대 구전민요의 하나로 속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讖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³⁸⁾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야하 미나리야하 너 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³⁹⁾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이 저아이들이 참메나리 캐러가자”⁴⁰⁾ 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실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⁴¹⁾

메나리는 피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피’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노래 또는 산간지방의 전래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설로 메나리는 피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한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37) 露雀, 『朝鮮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928.5). 최철·설성경 편저, 『민요의 연구』정음사, 1984, pp.104~109 재록.

38) 『민속예술 사전』한국문예진흥원, 1979, p.123 참조.

39) 李素羅, 『韓國의 農謠』4집, 현암사, 1990, p.742

40)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學藝社, 1929, p.175

41) 김태갑·조성일 편저,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pp.22~25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⁴²⁾ 간취 된다. 韓晶東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鄉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附記하였다.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謠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꼭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謠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워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⁴³⁾

이러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라리’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메나리, 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민요를 표기한 명칭으로 그것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박민일 교수는 메나리를 메(山)+나(川)+리(人)으로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⁴⁴⁾ 김연갑은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산노래·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⁴⁵⁾ 이소라 역시 삼척지방 민요를 수집 채보하면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 또는 ‘아라리’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데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

42) 成慶麟·張師勛 共編, 『朝鮮의 民謠』國際音樂文化社, 1949, p.151 참조.

43) 韓晶東, 「내 故鄉의 民謠 情調」, 『朝光』1939.10. 최철·설성경, 『민요연구』정음사, 1984, pp.213~214 재수록.

44) 朴敏一, 「강원도 아리랑의 고장·고향론」 『평창아라리의 민속문화적 특질』자료집, 2006. 2. 10, pp.11~19

45) 김연갑, 위의 글, p.30

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산노래’가 아니라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이는 ‘山遊歌’가 아니라 ‘아라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考究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영년은 ‘아라리(낱)’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이 곡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국에 퍼져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소리는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고 뜻이 음란하며 가락은 여운이 없고 단축하니, 대개 말세의 소리이다. 지금도 전하는데 ‘아라리타령’이라한다.”고 ‘아라리’의 구한말까지 존재여부를 기록하였다.⁴⁶⁾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調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속초 도천메나리는 삼척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나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모습을 띤 것으로 보인다.⁴⁷⁾ 따라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분파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3. 도문메나리의 전승과 활용

도문메나리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당시는 86호가 살았으며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었다. 조선시대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였으며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명이 유지되다가 일제 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년 도천면 사무소는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작은 동리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

46) 崔永年, 위의 책, p.5

47)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속초문화원, 2003, p.548

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두 14개리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도천메나리’라는 명칭에 사용된 ‘도천(道川)은 도천면에서 따온 것으로 도천면은 도문면과 所川面이 합쳐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천메나리’의 주요 전승지인 상도문리는 일제 초기 도문면에 속했으며, 당시 20여호가 살았으며 남녀 합하여 66명이 거주하였다.

강원도 민요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삼척·양양·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천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도천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짝은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패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천메나리는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설악산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리의 유장함으로 미루어 불교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속초시 도문동에서 전래되는 농사과정을 메나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마당 :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받은 도문동에 모십시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읍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접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읍니다

2) 둘째마당 : 논삶는소리

논삶는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거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투로서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 인 쪽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곶으로만 찾아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뒤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뒤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뒤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짹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뒤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뒤 와와

3)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찢다. 모를 찢 때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이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질레)을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고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쪼으며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다.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양양·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지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열시구 부지런히 심어를 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4) 넷째마당 : 김매는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는소리’를 말한다. 보통 두벌감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

I. 학술 세미나

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낱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 라고 한다.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뻗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어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5) 다섯째마당 : 파대치기와 새쫓기

파대치기는 파대를 치면서 그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주민들은 참새들이 범씨를 파 먹으므로 위이위이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쫓기풍속도 전한다.

6) 여섯째마당 : 벼베기와 한단소리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단소리’이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낮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벼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하게 된다.

얼런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흙칭흙칭 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얼른 흙칭흙칭 하더니 나도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거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벧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벧단을 세운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녀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녀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7) 일곱째마당 : 마뎡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뎡이’ 라고 한다. 태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돌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호 에호오
상도리깨가 난다
사람들은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농사가 다끝났네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벗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벗가리지우는소리’ 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벗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사람과 키를 든 사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 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벗가리지우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계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뱃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쌌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문화권역에 속한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의 영향을 아닐까 의심된다.

메나리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계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

I. 학술 세미나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그게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서 그늘졌지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양양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지면서 불려진다. 이에 반해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으나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피약별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에는 오독떼기를 부르는데 속초와 양양에서는 메나리를 부른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이남 지역인 삼척은 속초와 양양처럼 ‘메나리’ 보다는 ‘미노리’ ‘미너리’ ‘미놀이’라는 방언을 쓴다.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지역과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삼척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어나주게’를 선창자가 ‘매기는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받는소리’를 부른다.

도문메나리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

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된다. 소리를 못하면 진짜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도 그것을 반증한다.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 곡조를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양양지역과 비슷하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 도문메나리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려졌으며, 일제강점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메나리’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된다. 도문메나리가 삶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5. 도문메나리 농요의 보존방향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 아프리카원주민 한 명이 사망하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듯이 메나리 농요도 본격적인 보존과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속초시의 무형문화자원인 메나리 소리의 다양한 보존대책과 전수계획이 입안되어야 하겠다.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메나리 전수회관 건립과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이 시급하다.

둘째, 속초메나리 농요의 가창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속초메나리 농요의 음원확보와 채보, 자료발굴, 경창대회 등 학술적 체계화와 소리꾼 발굴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속초메나리 농요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속초메나리 농요 가창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도문동 전통한옥마을 정비 및 민박촌 조성 및 민속축제의 기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속초의 인물, 강원도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매곡 오윤환 선생의 학무정 일대를 정비하고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매곡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전통 서당을 재현하여, 메나리의 전승기반을 확보한다.

6. 속초시 도문동 민요채록 자료

*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맥, 2002. 4. 27

* 김정수 : 여·75, 최춘옥 : 여, 80

* 장정룡 조사

【조사상황】김정수 할머니 맥을 찾아갔더니 동네 할머니 분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있었다. ‘소리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몇 곡 응해주시자 다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 했고 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아쉽다’고 말하였다.

【가창자】김정수(여·75) 도문동 5통 3반, 인제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때 속초시 도문동에 큰댁이 있어서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그 해 24살 때 도문동으로 시집을 와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시조부가 매곡처사 오윤환으로 속초팔경 중의 하나인 학무정을 세운 분으로 유명하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오윤환의 2대조되는 분이 사 가지고 와 정착한 집이라 한다. 처마 끝에는 매곡고장(梅谷古庄)이란 현판이 걸린 고택이다.

【가창자】최춘옥(여·80) 도문동 5통 1반, 도문동 토박이로 매곡처사 오윤환의 외손녀이다. 19세에 시집을 가 2남 4녀를 두었는데 현재 동갑인 남편과 같이 예전 친정부모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창자】박순자(여·77) 도문동 5통3반, 도문동 토박이로 시집도 이곳이다. 살면서 잠시 속초 시내에 나가 살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가창자】정영춘(여·75) 도문동 5통 3반, 속초시 척산리가 고향이다. 이곳에 시집을 와 여태까지 살고 있다.

[자료1] 재짱개짱

김정수 :	재짱	개짱
	소수레	넉장
	콩죽	팔죽
	얼어	먹었니
	못얼어	먹었니
	사	마
	지	공

조사자 : 이 소리는 뭐 하며 부르는 소리인가요?

김정수 :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놀 때 같이 마주 앉아서 다리를 서로 집어넣고 하나씩 다리를 치면서 소리를 해요. 당침이 되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양반, 나중에 나오면 상늬م 그리면서 놀았지 뭐.

조사자 : 무슨 뜻이 있나요?

김정수 :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쪽 다리 하나씩 치면서 했다.

[자료2] 둥기타령

김정수 : 둥 둥둥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둥둥 둥둥둥
 우리집에 화목동이야
 건너집에 무신동이야
 둥둥 둥기야

[자료3]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오네	사촌형님 오네
형님마중	누가가나	형님동상 내가가지

I. 학술 세미나

형님 모셔놓고 형님반찬 무엇을할까
앵두같은 팔을삶고 외씨같은 전니밥에
앞집에가 목기닷죽 뒷집에가 사기닷죽
닷죽닷죽 열닷죽이면 형님반찬 될까

조사자 : 닷죽은 무슨 뜻인가요?

김정수 : 닷죽은 50개다. 한 죽은 10개다. 사기 닷 죽은 사기그릇이 닷 죽이고, 목기 닷 죽은 목기가 닷 죽이란 뜻이지.

[자료4] 아리랑

김정수 : 정선읍내 물레방아 궁글대는 해풍산이 삼십육경 서른여섯바쿠
 물살안고 빙글뱅글 잘돌아가는데
 시누작네 맞자부야 날안고 왜 못돌아가느냐

조사자 : 이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김정수 : 이 노래는 친정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지.

조사자 : 궁글대는 뭐지요?

김정수 : 물레방아 돌아가는 살을 궁글대라고 해요.

[자료5] 자장가

최춘옥 :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조끔만 더자면 엄마가온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너무 우리아기 잘도잔다
 (잠시 쉬었다가)
 멍멍개야 짚지마라

* 속초시 도문동 박계량 댁, 2002. 5. 18

* 박계량 : 여 · 80

* 장정룡 조사

속초시 도문동 가게에서 소리 잘하시는 분을 물으니 소개해주었다. 찾아갔더니 할머니

여러 분들이 모여 담소를 즐기고 계시다가 선뜻 소리를 응해주었다.

【가창자】박계량(여·80), 도문동, 속초시 도문동 토박이다. 생전에 친정 부모가 2녀를 두었는데, 본인이 둘째였다.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마침 남편도 막내여서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친정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슬하에 아들(61세) 하나를 보았고, 며느리가 손자도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난 관계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그대로 따라 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였고, 장구도 잘 쳤는데 며느리가 사망한 이후 상심하여 기억력도 쇠퇴했다고 한다. 조금만 젊었을 때 조사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훌륭한 가창자다.

[자료1] 한오백년

박계량 :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압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아무려면 그렇고 그렇구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한많은 이세상에 야속한님아
정을두고 몸만가니 눈물이나네
아무려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자료2] 에라만소

박계량 : 서울접자 광주땅에
서울접자 광주땅에
밀대같은 내오래비
어수해(어사화)를 숙여쓰고
세멘춤(세면장고춤)도 잘도춘다.
우리나 부모님 살았더라면
저런귀경(구경) 하시련만은
우리남매 살았다가
귀한귀경(구경) 보는구나
에라만소

I. 학술 세미나

박계량 : 옛날 오빠가 과거해 가지고 내려왔대.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쓴다고 하잖아. 과거 해 가지고 내려올 때 쓰는 거라구만. 이게 다 옛날 뜻이 깊은 소리지요. 에라만소 하면 모두다 좋아하였어.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쓰고 나를 데리고 세면장구 들어 매고 여러 나졸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나. 뜻이 깊은 노래다.

조사자 : 이 소리는 언제 부르셨나요?

박계량 : 처녀 적에 가만히 듣고 배웠다.

조사자 : 언제 시집을 가셨나요?

박계량 :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조사자 : 시집가기 전에도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박계량 : 그럼요. 그때 에라만소 소리를 하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조사자 : 그때 하던 다른 소리를 좀 해 주세요.

박계량 : 이것도 에라만소야. 에라만소는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돼.

[자료3] 에라만소

박계량 : 삼천장 베레또래(벼룻돌에)

일천장 먹을갈어

부모님의화상 그레(그려)놓고 보자하니

눈물지어 못보겠네

아강아강(아가아가) 그말마라

찬냉수에 목이 맨다.

에라만소 대신이야

[자료4] 강물은 돌고돌아

박계량 :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어 하라 어디로가나

요요 사또 능라도 벼들속에 봄비가 온다.

[자료5] 아리랑 (나물깎때 부른 노래)

박계량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 주게

역수장마 할라른가 저산밧이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박계량 : 옛날 처녀 적에 저 산(주봉산)에 나물 캐러 갈 때는 늘어진 것을 하여야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아니 들어.

[자료6] 한오백년

박계량 :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 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젊어질 못하고
노류야 대빠리야 왜 달개드냐(달려드냐)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박계량 :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하다가 슬픈 사람은 눈물이 나서 울며 올라가고 좋은 사람은 소리하고 그렇지 뭐. 짧은 소리는 숨이 차서 급해서 못해.

조사자 : 밭 땀 때는 어떤 소리를 하시나요?

박계량 : 모 심굴(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소리하라고 하니깐 하지만 밭 땀 때는 혼자 하는데 소리 언제 하겠어요.

[자료7] 권주가

박계량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을 사신다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세만세를 사신테이니
술이 아니라 먹고노자는 백화주요
이리놓아라 저리놓아라 열이고죽어도 나는못놓겠네

[자료8] 꿩서방

박계량 : 꿩꿩꿩꿩 꿩서방
자네네 집에 어딴나(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덤불밑이 내집이지

[자료9] 돈타령

박계량 : 에라만소
돈나온다 돈나온다

I. 학술 세미나

잘난사람은 못난돈 못난사람은 잘난돈
만국통화가 오십전 십전이전 고리동전이 다있어도
각중에 무일푼하니 장부한심이 무한심하구나
에라만소

박계량 : 이게 어릴 적에 오빠들이 하더라구. 왜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이라고 하나, 돈을 흔하게 쓰다가 돈을 다 써 없어지니 장부한심이 무한심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놀지. 이게 술집에서 기상(기생)들 놀리는 노래래.

[자료10] 뚜뚝이소리(비둘기소리)

박계량 : 앞산에 뚜뚝이는 뚜뚝뚜뚝
뒤산의 뼈꾸기는 뼈뼈국 운다
고래명당 열어서서 잠을자니 그방치사(치장) 어땡더냐
앞문에단 용그리고 뒷문에단 황그렸소
그집옆에 무엇을 심었더냐
출국화를 심었더라
그출국화속에 무엇이 있더냐
팔십먹은 노인이 갈강냇을 뽀뽀갈어
지계동테기 달아지고
앞동산에 높은데 우물구물 기울라가서
낙락장송 늘어진가지
툑툑찍어 한짐듬뽀 짊어놓고
짊어 소시절에 아들딸 못난것이 한이로구나
에라만소

박계량 : 그게 얼마나 슬퍼서 아들 딸 못난 것이 한이 되겠소?

조사자 : 뚜뚝이는 뭐가요?

박계량 : 뚜뚝이는 시방 비둘기를 가지고 뚜뚝이라 해요.

조사자 : 출국화가 뭐지요?

박계량 : 화초가 출국화이던데, 백일홍 같은 것이 출국화 아닌가. 나는 이 노래를 해도 사실 잘몰라

조사자 : 갈강냇은요?

박계량 : 풀 비는 냇을 갈강냇이라고 해. 앞산이든 뒷산이든 뚜뚝이든 뼈국이든 맘 대로 해도 돼, 앞문에는 청룡이고 뒷문에는 황룡을 그렸다네.

[자료11] 검불하는소리

박계랑 :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주게

[자료12] 등계소리

박계랑 : 동동동동 동동동 내손주야
은을주면 너를살까 금을주면 너를살까
동동동동 집안안의 화목동이야
등계동동 동동동기야
부모님앞의 효자동이야
동동동동 동기동동
나라님 앞의 충신동이야
동동동동 동동동기
너는 무신의 권한으로
할머니 할아버이 손끝에 놓고 ...

[자료13] 에라만소

박계랑 : 서울이라 치켜달려 서울이라 치켜달려
나무집이 어디없소 괴비고사리 집을짓고
난초잎을 대문달고 양지쪽에 금자리깔고
저문앞에 국화꽃을 한짐 뜬뽕쥐고
아장아장 들러나오는 아가씨 저거동보소
은을주면 내가살까 금을주면 내가살까
금도싫고 은도싫고 백년채분 나를주게

*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맥, 2002. 5. 26

* 박계랑 : 여 · 80, 김정수 : 여 · 75, 김종필 : 남 · 60

* 장정룡 조사

박계랑 할머니 맥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 동안 담바구타령을 제대로 기억해 내었다면서
즐거이 채록에 응했다. 채록하는 동안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싫은 내색

I. 학술 세미나

하나 하지 않았다.

[자료1] 담바구 타령

박계랑 : 구야구야 담바구야	너네국이 어땡길래
우리의국도 좋거니와	대한의민국으로 유람올제
돈도없구 운도없어	담바구씨를 갖고왔지
저기 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뿌렸더니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낮이면은 태양을받아
곱게곱게 길러서	
천하비수 드는칼로	와싹와싹비어서
영감의쌈지도 한쌈지	할멈의쌈지도 한쌈지
아들의쌈지도 한쌈지	며늘의쌈지도 한쌈지
손자의쌈지도 한쌈지	나의쌈지도 한쌈지
청룡황룡 대통수에	이글에이글에 부쳐놓고
담배한모금을 피우네	목구멍에서 골안개피네
또한대를 피우니	손톱과발톱이 육갑지탈을 하는구나
또한대를 피우니	세상만사가 태평일세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거던 사우(사위)삼지요
딸이있긴 있으나	나이가 적어서 못주겠소
아이구 할머니 그말씀마소	참새가 적어도 알만낱고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가요	고추가 적어도 맵기만하고
할머니 평생에 외손지 보리로드	

조사자 : ‘이글에 이글에 붙여놓고’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랑 : 이글이글 탄다는 말이지요.

[자료2] 추워추워춘달래

박계랑 : 추워추워 춘달래 더워더워 던달래

[자료3] 달아달아

박계랑 :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달속에 계수나무 옥도꾸로 찍어내어
금도꾸(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짓고

양친부모님 모셔놓고 천세만세 살어보자

[자료4] 내손이약손

박계랑 : 내손이 약손이다.
뒀배야 자라배야
무슨자래 ...

조사자 : 비 올 때 뭐라고 하나요?

박계랑 : 갈강비는 가라고 오는 비고 보슬보슬하는 거는 오라는 비라던가.

[자료5] 어랑타령

박계랑 : 놀어라 놀아라 젊어만 놀어라
늘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요 데헤요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짓고
우리님의 병세는 아구야짚어 가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 하늘에 아구야 쟈별도 많고
요내나 가슴(가슴)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상(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에헤야 데헤야 데헤야 에헤요둥둥 몽땅내사령아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님도 모른다
어랑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늘어지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는구나
어러어랑 어허야 어허야 두둥둥 대한에독립이 왔구나

I. 학술 세미나

스스레 북망이 야구야 뭐그래 좋아
꽃같은 날버리고 야구야 돈벌러 갔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은행)소복판에 묻고요
님그리워 죽은건 신작로복판에 묻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종소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이나 고와서 야구야 뒤돌아 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종소 요것도 사령이라

치매폭에 쌓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쌓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대한의독립이 왔구나

천길에 만길에 똑떨어져서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야구야 못살겠구나
어라어랑 어허야 에헤야종소 몽땅내사령아

늘민령 서둘기가 예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귀주겠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요것도 사령이라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조사자 : 늘민령이 뭐가요?

김종필(박계랑의 아들) : 저항령을 같고 그래요

박계랑 : 돌만 있는데 올라갈 때에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안 그랬다우. 돌이 한번 내려굴면 삼 년을 내려군다고 하대요.

[자료6] 회심곡

박계랑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지전 뼈를빌고
 어머니전 살을빌며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아을손가
 이삼십일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값아
 어이없고 애닭구나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닭고도 설운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흥안백발 들어가면
 인간의 이해공도를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예탄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니 약효험이 있을손가
 판수불러 경읽는들 경덕을 입을손가
 무녀불러 굿을한들 굿덕인들 있을손가
 재미쌀을 즐고즐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좃대한쌍 벌여놓고 향로향합 불갓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아을소냐
 감홍이나 할까보냐 (감동을 도무지 아니하는가보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시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며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동같이 굽은질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래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늪분부라 거역하며 늪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жат돈이나 갖고가게
만단계뉴에 애결한들 어느사자 들을소냐
애고답답 설운지고 이틀어이 하잖말인가

[자료7] 다복녀

박계랑 :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울고가요
부뚜막에 삶은팔이 싹나거든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울고가요
아강아강 다복녀야 실정밑에 삼년묵은
말뻘따구 살불거든 느낌마가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울고가요
느어머니
병풍뒤에 그린닭이 해치거든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울고가지 말고 집으로나 돌아오마
저기저기 서산너머 죽은 고목나무
앞이부야 꽃피거든 느어머니 오마더라

박계랑 : 이기 이렇게 질면서도 슬프더라구.

조사자 :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박계랑 :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배웠어. 장고도 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는 그냥 배웠어. 갈강냇 갈았더라는 것도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삼천장 베레

똥(벼룻돌)도 그때 배웠어.

조사자 : 어릴 적에 이 마을이 몇 호였지요?

박계량 : 100호 되었나.

조사자 : 매곡선생 아시나요?

박계량 : 어릴 적에 여자소학이라고 그러대. 그 집의 손주딸이 들이거든. 나하고 친구야. 나보다 한 살씩 더 먹었어. 여자들 시집가서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구. 친구에게 부탁해 그 책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책을 베끼었지.

조사자 : 매곡선생이 어떤 분이셨나요?

박계량 : 육모정 그 터는 북판에 비 하나 세웠잖아요. ... 준택이 할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고 일년에 쌀 닷말이던가, 하늘천 따지 가르치고, 하두 더우니까 나가 가르치려고 육모정을 그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자료8] 지정다지기

박계량 :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조사자 : 메나리를 여기서 하지요?

박계량 : 남자들이 하지요. 옴프를 신기하게 넘기더라구.

조사자 : 들어보았어요?

박계량 : 들어봐도 점심 해이고 가서 잠깐 점심 잠수면 들어가다보면 하구.
그저 우습게 여겼지 뭐. 남형이 양반 여기 있는데, 그 양반이 잘하는데.

조사자 : 소를 모시는 신이 있나요?

박계량 : 군웅대감이라는 거는 옛날에 마구 있을 때에 귀신 머리다가 달아매던데. 조(종이) 한 장 달아매더라. 여느 땐 안 그러다가 설에 차사 지낸 후 술 한 잔 뷔놓고 고기 한 접시 대더라구. 시방 세월엔 안 해.

조사자 : 영등에 무 찌개 하나요?

박계량 : 영등 때 시방 하는 사람은 해요. 바람영등 내려올 때 별 게 아니더라구. 무 한 대가리 푹푹뚫 썰어, 왁찌기 넓적 넓적 썰어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여 가지고 메지어 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식구 숟가락 수대로 밥그릇에다가 꽃아서 왁찌기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인 거 하고 내놓고 “바람님 내려오셔서 우리 농사 잘되게 해주고 집안 식구 다 건강하게 해달라” 하구. 내려오시던 날도 하고 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하구 잘 올라가시라고 하네.

조사자 : 15일날 가시나요? 20일날 가시나요?

I. 학술 세미나

박계랑 : 보름날 올라가시고 스무날은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베(수부)님이라고 그러데. 또 마저 해놓고 그래.

[자료9] 아리랑 (나물캐는소리)

박계랑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 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나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임과실어(싫어) 흑시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박계랑 : 아리랑 중간에 노래를 하고 앞뒤로 아리랑을 붙이지. 그저 그래.

조사자 : 발 갈면서 꿩이 하면서도 하나요?

박계랑 : 그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무슨 노래를 하나? 이 노래는 나물 캐 때 하는 노래지.

[자료10] 권주가

박계랑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구비구비를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자료11] 에라만소

박계량 : 화란춘성 만화방청요 때는종구나 봄이로다
있은야뜰어서 책은불고 꽃은꺾어서 머리에꽃고
동무따라 산에귀경을 가보느니 폭포수는야 좋거니와
산천야정기는 니뿐이나 이리농아라 저리농아라
열리본 죽어도 못놓겠소

뒷노깡(두만강)은 안주로삼고 압록강은쇠주로 삼아
팔포대 기상(기생)은 전봇줄 늘이고 돈없는 건달이 세멘만 치는구나
어절씨구 저절씨구 기화자자 저절씨구 아니아니노지는 못하리다.

[자료12] 빼꾸기흥내내는소리

박계량 : 떡국떡국

박계량 : 빼꾸기는 왜서 빼꾸기냐 하면 우리들은 빼꾸기라고 하는데 떡국떡국 한데,
옛날에 지 엄마가 일찍 죽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떡국을 한 다라 쭈어 냈는데, 옛날엔 개
를 들어매 놓고 키우지. 개가 떡국을 한 함지 다 먹었대. 애 엄마는 몰랐지 뭐. 가를 실
컨(실컷) 두드려 주었지 뭐. 개가 죽었대. 여식안지(여식아이인지) 며슴안지(며슴아이인
지) 몰라도, 가(개)가 죽어서 빼꾸기가 된다네. 개가 죽어서 저 산에 가서 ‘떡국 떡국’
한 대.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서 ‘빼국’ 한데(한다고) 그러대.

[자료13] 비둘기소리

박계량 :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헌투데디 몸에걸고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I. 학술 세미나

[자료14] 천자풀이

김정수 : 자시 생천하니 유유지천에 하날 천
축시에 생지하여 오향을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유현미목 흑정색 북방현무 검을현
궁상각치 좌우동서남북 중앙토색에 누루황
천지사방이 몇만리나 하루광한루 집우
연대곡조 고내금

[자료15] 앵기땡기

김정수 : 재짱 개짱
쇠스레 녀장 콩죽 팔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 마 지 쵩

[자료16] 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종필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박계량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나이빨 지붕위에 던져야
 헌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나게해다오

조사자 : 수망대가리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량 : 빠진 것 같고 허장이라구 그런 거이지.

조사자 : 삼베 짤 때 어떻게 하나요?

박계량 : 잘했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못 하겠더라구. 우리가 질쌘을 무섭게 했지만
뭐 노래하며 짤너?

[자료17] 베틀가

박계량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난간네 베틀노세

박계량 : 근디 순서가 어딘지 잊어먹었어. 낮에 짜는 것은 무신,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것은 월광단이요 삼형제요 다른 데 가면 잘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고 우
리는...

[자료18] 세상달강

김정수 : 시상달경 시상달경 질루질루 가다가
 밤한톨 얻어 고무다락에 치프렸더니
 머리깎은 새양주가 딜민날민 다까먹고

조사자 : 아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물러. ‘내손이 약손이다. 배아프지 말아라’ 그저 그랬지뭐

박계량 : ‘똥자래 읍자래’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자료19] 장타령

박계량 : 어얼씨구 품바야 얼씨구 품바야
 질루질루 가다가 밤을한개 얻은걸
 얻은밤을 뭐했나 낚수나하나 휘었지
 휘은낚시 뭐했나 고기한마리 낚았지
 낚은고기 뭐했너 해치구장치구 다먹었지
 품바품바 품바야 얼씨구도 잘한다
 너못하면 내할라 얼씨구 품바야

[자료20]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박계량 : 알나라 깔나라
 알나라 깔나라

김계량 : 진짜 그러면 알을 낳는다네.

박계량 : 소금쟁이를 잡아 손바닥에 대고 알나라깔나라 하면 손바닥에 노란 알을 진짜로 푹푹 떨어더라구.

[자료21] 제비보고 하는 소리

김정수 : 에히여
 강남갔던 제예비는 이집저집 다버려놓고
 박씨 하나를 물고 흥부나 집으로 감돌아든다
 이리농아라 저리농아라 못놓겠네
 농지를하여도 난못놓겠네

I. 학술 세미나

[자료22] 화투놀이

박계량 : 정월이라 소식이왔네 이월매자(매조)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맘을 사월흑싸리 흑싸리나
오월난초에 날아간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어 팔월공산에 달이떴네
구월국준 굳은마음 시월단풍 다쳐졌네
동짓달에 드는액은 섣달시루에 다쳐졌다

조사자 : 영등 할머니가 언제 오지요?

김정수 : 초하룻날

조사자 :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계량 : 이월 초하룻날 오면 무 한 대가리 왁짜기 푹딱딱 썰어서 탕 모양 해서 명태 한 마리 넣고 밥 할 적에는 팔 넣고 찹쌀 좀 넣고 밥을 잘 해 가지고 큰 그릇에 퍼 가지고 숟갈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개 꽃고 서이면 식구대로 꽃아서 대내에다 내다놓고, ‘이월 초하룻날 영등날이올시다. 그런데 그저 풍신님이라구 그러더라구. 빌적에는…. 풍신님요 그저 오늘날 내려오셔 가지고 이 터전 이 명당에 그저 식구 다 모두 고이 곱게 일년 열두 달 삼백예순날 과년 열석 달 하루같이 곱도록 잘 가꿔주시고 금년의 모든 액을 동서남북 사해팔방 땡기더라도 낙성(낙상)재도 없고 관재구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아주고 그저 금년 농사를 재도(지어도) 금절미 대 재미 하나 먹지 않게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발원이올시다.’

그리고 올라갈 적에는 보름날 올라갈 적에는 또 그렇게 해놓고 빌어요. ‘풍신님 올라가시는 날, 이월 보름날 올라가시는 날, 희망을 다 착실하게 하시고 올라 가시더라도 그저 섣달 그믐날까지라도 이 터전 이 명당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이고 잘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축원하지 뭐.

조사자 : 스무날 되면 수부가 올라가나요?

박계량 : 스무날은 그러게 해놓고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부님 다 잘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구. 어른들은 하더구만 우리들은 아니해.

조사자 : 한 지가 얼마나 되세요?

박계량 : 안 모신지 한 10여 년 되지 뭐. 그래도 문서는 환하지.

[자료23] 다듬이질흥내내는소리

박계량 :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박계량 : 다듬이질 때 다듬이나 하지 뭐 노래하나. 손이 안 맞으면 방망이 씹(싸움) 하거든.

방망이 씹하다가 이마뺨이(이마팍) 터져요. 마주 앉아 하는 다듬이도 참 돌이 손이 맞아야. 들을 때 이래. 손이 맞으면,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하고 들리고, 맞다듬이 하는 건 그렇는데, 손이 맞지 않으면 한꺼번에 ‘뚜닥닥 뚜닥닥’ 그래. 저쪽 사람이 방망이를 냅다 치면 이기 딱 맞으면 이마뺨이 불거지지 머.

[자료24] 삼잡는소리

박계량 : 해돋이 책면(체면)에 피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

조사자 : 눈티 나잖아요? 그거 없애는 노래 있나요?

박계량 : 눈다래끼는 그건 노래가 어딴니. 그게 나면 안섰을 실로 동여매대. 그러면 사그러 지대.

조사자 : 실로 매면 눈다래끼가 없어져요? 그림 그려놓고 옷 치고 하는 것도 있나요?

박계량 : 그건 삼서는 건데, 옛날에 어른들 한 대로만 얘기해. 팔을, 새빨간 적두팔을 해가 올라오면 요만큼 뵈킬 적에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가대요. 물 한 반 대접 떠 갖고 팔을 한 댓 개 집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삼을 잡는 것을 내가 봤어. 삼 썬 사람을 해오는 쪽으로 앉히더라구. 앉히구는 팔을 가지고 그 사람 삼 선 눈에다가 눈을 감으라고 하고 ‘해돋이 책면에 피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고 하고 해를 보고서는 물대접에 똑 떨어니 아주 팔에 그저 이런 물방울이가 병그렇게 불더라구. 암만 그래 두 열 개구 다섯 개구 다 떨어서 팔에 물방울이 안 그러면 안 삭는대.

해돋이 책면이라 하대. 삼잡는 이가 요렇게 문디며, ‘아무 살 먹은 아무개가 피삼 열삼이 썬으니 해돋이 책면에 피삼열삼을 삭게 해달라’고 하더라구. 팔에 팔만한 물방울이 탁 불더라구. 팔에 물방울이 하나씩이니 쌍둥이 같애. 고상(고생)시키고 안 나오려 면은 팔에 물방울이 안 불더라구. 불으께는 대접을 살살 가지고 (부엌에) 들어와서 솔 뒤에 놓더라구. 조왕님이 피삼열삼 선 사람을 얼른 삭게 해달라고 빌고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언제 내버리나요?

박계량 : 하룻밤 자고 나서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피삼이란 게 뭔가요?

박계량 : 빨경기도 하구 하얀 게 눈에 덮지. 그래도 피삼열삼이라고 하더라구.

조사자 : 삼 잡는 이는 누군가요?

I. 학술 세미나

박계량 :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해주지 뭐.

조사자 : 만약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박계량 : 그러면 오래오래 고생한대.

*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님, 2002. 6. 9

* 김정수 : 여 · 75

* 장정룡 조사

김정수 할머니 님을 세 번째 방문하였다. 마침 혼자 계시다가 이것저것 질문에 친절히 응해주셨다. 천자뒤틀이, 둥게소리, 한글뒤틀이 등 예전에 하셨던 소리도 해주시고 새로운 것도 불러 주었다.

조사자 : 이 집을 무슨 댁이라고 부르나요?

김정수 : 뒤틀이라고 해요. 옛날에 큰불이 났었다 하네요. 이 동네가 깡그리 타는데 뒤로 이 집만 하나 남았다내요

조사자 : 시할아버지는 누구지요?

김정수 : 매곡선생님. 이름은 모르고 매곡처사라고 하지요.

조사자 : 오윤환이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김정수 : 시아버지도 못 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 왔어요. 5월 달에 돌아가시고 10월에 시집왔으니까. 사변 중에 다 돌아 가셨거든요.

[자료1] 담바구타령

김정수 :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의 담바구야
니의국은 어떻다구 대한의국에 나왔나
우리국도 좋기는 좋다만은
대한의국에 심화풀이를 왔네
무신 심화풀이를 왔네
천년과부 만년과부 심화풀이를 왔나
무엇으로 그심회를 풀까
담바구 씨를구해 이편대편 던졌더니
오부동이 지었네 대부동이 지었네
그담바구 점점잘자라
걸에걸잎 적치고 속에속잎 뜯어

응달쪽에 수짚은곳에 말려
서울이라 치달려 굽높은 도매로
경성이라 치달려
은장도칼로 어씩비씩 쓸어
총각의담배도 한쌈지 내쌈지도 한쌈지
한대를 먹고나니 천지가아득 진동하고
두대를 먹고나니 일월이팽팽 도네

[자료2] 주머니소리

김정수 : 양석단 두루미 주머니
만수문장에 글자를새겨
굽은셋별 수를놓고
쟁셋별 삼칠달아
삼태성에 끈을달아
뒷동산 시누대끝에 달아놓고
올라가는 구관책방 내려오는 신관책방
이주머니 구경하고 가소
그주머니 누가진(지은) 주머닌가
하늘이라 무자선녀 지은 주머니
무자선녀 그주머니 지어놓고 어디를 갔소
양대산으로 구름을타고 비주러(비를 뿌리러) 갔소

[자료3] 자장가(풀미타령)

김정수 : 풀미 풀미 풀미
먹으나 굶으나 풀미
입으나 벗으나 풀미 풀풀
은을준들 너를살까
금을준들 너를살까
풀미 풀미 풀미야
집안에는 효자동이 되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되고
이웃간에는 화목동이 되라
풀풀 풀미야

I. 학술 세미나

[자료4] 아리랑

김정수 :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건달 다잘사귈 터인데 ...

[자료5] 춘향이신내리는소리

김정수 : 춘향아 춘향아 양골춘향아
춘향아가씨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조사자 : ‘청사초롱 불 밝히고’ 하는 춘향이 소리 있나요?

김정수 : 춘향전에 나오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첫머리가 뭐이 있어 가지고, 청사초롱 불 밝혀서 춘향의 집으로 들고 가는데 첫머리가 뭐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아이 나. 지금 언문뒤풀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러니, 아버지는 ‘날 데리고 그런 걸 가르친다고 그거는 옛날에 무신 선생님이,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도 아니고 뒷간이여, 뒷간에 가 앉아서 지은 글이래, 이 한글을, 이 몸쓸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천자 뒤풀이를 이게 진짜지’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조사자 : 춘향이 신 내리는 것 있어요?

김정수 : 그런 것도 보기만 했지. 몰라요. 이 아랫집 아재가 잘 내려서 한번은 혼이 났어. 노래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중지하니깐 어떻게 그만 까물치더라고. 봄에 화전놀이를, 저기를 망곳터라 하는데, 거기 나가 화전을 하는데, 아랫집 아재 이름이 봉화야. ‘춘향이 좀 해라’ 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춘향아 춘향아 양골 춘향아 춘향아가씨 ‘ 뭐 문서가 있더라구 ’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 하면 손이 차츰 벌어지더라고 그러면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여. 그러면 노래를 자꾸 대주어야 돌아가는데 그렇게 못하니 후딱 까물어치대.

[자료6] 잠자리잡는소리

김정수 : 앉은자리 뽕뽕 붙어라
앉은자리 뽕뽕 붙어라

[자료7]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김정수 :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김정수 : 잠자리 붙잡아 가지고,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하면 손바닥에 알을 낳아요. 노란 게 좁쌀날 같은 거요.

[자료8] 한글뒤풀이

김정수 : 지역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잖더니 인연조차 지중치 못하오
가갸거겨 가이없는 요내몸은 그이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굳건하기 짝이없소
나냐너녀 나개(나귀)등에 손질하여 조선팔도 유람가자
노노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이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달이 오시던손님 소식조차 돈절이오
도도두두 도담하도다 저몹쓸잡년이 도담하도다
라랴러려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마먀머며 마자마자 맛았더니 인연조차 지중치못해
모묘무뮤 모지도다 저몹쓸잡년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먹다 생각해도 임의생각
보보부뷰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을 또다시 보고지고
사샤서셔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참 늦어진다
소소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리기
한양산을 니가거든 임의소식 정코가계
아야어여 아다담삭 안딘손목 인정없이도 푹떨어졌소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구름 사줄줄줄 미어타니
자자저저 잣은종종 만났던님이 편지조차 돈절이오
차차처처 차차리 죽었으면 요런광경 안당할까
초초추츄 출출히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요
카카커켜 은장검 드는칼로 요내몸을 비어주소
코쿄쿠큐 콜콜이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
파파퍼퍼 파오파오 임의화공 그질없이 보고파오
포표푸퓨 폭포수 흐르는물에 거기평텅 빠졌더라면은 요런광경 안당할까
하하허허 한양낭군 내낭군인데 편지조차 돈절이라

I. 학술 세미나

호호후후 호점점점 먹었던마음 탐삭 리 아니가네

[자료9] 우리리

김정수 : 우리리야 우리리야
아참 잘 딛는다.
아이참 힘차게 잘딛는다.
어 잘딛는다 우리리야
방구똥다 뽕나무 들어간다 우리리야
칼로 찢렸다 피나무
들어가네 우리리야 우리리
(무신 거 하고)
양장목 끝당목 도리 지동감
다 들어가다 우리리야
고로쇠 박달 다 들어가다
우리리야 우리리야

[자료10] 베틀가

김정수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란간에 베틀노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오
안질개를 도다놓고 올라앉은 거동보소
잉엿대는 삼형제요 사치미는 형제
눌림대는 외아들이요
걸신대는 강태공의 낚시줄에 목을매고
쥐두강의 나갈새나 새두강에 나갈새나
황소같은 도투마리에

김정수 : 도투마리는 황새갈고 바디집 치는 소리는 원론 공산에 녹살알개 치는 소
리요. 북드나드는 형용은 무신 산에 무신 새 드나드는 형용이고..., 그런데 다 몰러.

[자료11] 추워추워춘달래

김정수 : 아고 추워 춘달래
고추먹고 맴맴

조사자 : 성주 모실 때 어떻게 비나요?

김정수 : 성주 모실 때는 집 질 때 모시지.

조사자 : 고사 지내지요?

김정수 : 가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가을에 동짓달에 지내.

조사자 : 마굿간에 무슨 신이 있죠?

김정수 : 마굿간에 군웅이 있는데, 없는 집도 있어.

조사자 : 어떻게 모시지요?

김정수 : 소 머리맡에 뭐 달아 매놓고 뭐 가져와도 뭐 놓고 그러던데

조사자 : 뭐 달아매죠?

김정수 : 종이장. 이 동네도 그렇게 달아맨 집이 아직도 있어.

조사자 : 군웅도 있죠?

김정수 : 시집갈 때 따라간대.

조사자 : 고성에서 많이 온다죠?

김정수 : 응.

조사자 : 이 떡은 뭐 모셨어요?

김정수 : 우린 성주제사밖에 없어요.

조사자 : 언제 지내나요?

김정수 : 저녁에. 본래 어떤 집들은 비는 이들을 데려다가 소지올리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축 고하더라고. 성주에게도 지내고 터에게도 터제사라고 지내요. 뒤편에 모셔놨어요.

조사자 : 그 안에 쌀이 있나요?

김정수 : 기왓장 돌리고 요만한 단지에 쌀 한줌 넣어서.

조사자 : 터주신이라고 하나요?

김정수 : 터지신이라고 해요.

조사자 : 일년에 한번씩 제물 놓고서, 그때 쌀을 바꾸나요?

김정수 : 그렇지.

조사자 : 그러면 그 쌀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바꾸나마나 찹쌀 집어 세 번 멍쌀 집어 세 번 넣는데, 가을에 가면 녹어서 다 썩고 없어. 그러면 가을에 가서 다 떨어버리고 또 그렇게 집어넣어 놓지 뭐.

I. 학술 세미나

[자료12] 각시방에 불켜라

김정수 :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김정수 : 이 거는 각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풀뿌래기가 있어요. 개비름이라고 해요. 그 뿌래기를 갖고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하고 문지르면 그게 빨개져.

조사자 : 그 거 갖고 오나요?

김정수 : 갖고 오기는 뭐,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지 뭐. 각시대가리 만드는 풀을 뜯어다가 갖고 놀다가 말로는 그냥 버리면 뭐이 된다고 해서. 놀다 들어올 땐 다 뜯어버리고 오잖아.

[자료13] 그네소리

김정수 : 우두그네야
추천이야
나간다

[자료14] 쪽박바뀌주

김정수 : 쪽박바뀌주
쪽박바뀌주

조사자 : 소쩍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 소쩍새는 ‘소쩍 소쩍’ 그러지. 쪽박바뀌주 새가 따로 있고.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쪽박바뀌주 쪽박바뀌주’ 그러더라구.

조사자 : 무슨 새인가요?

김정수 : 무신 새인지는 모르지. 내가 울산바위에 돈 받느라고 몇 년 가 있었거든. 거기 새가 그렇게 울더라구.

* 속초시 도문동 김남형 택, 2002. 6. 16

* 김남형 : 남 · 80

* 장정룡 조사

도문동의 소리꾼으로 소문난 김남형 할아버지를 몇 번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다행히 비가 오는 날 다시 찾아가서 녹음하러 왔다고 부탁을 드리자 하던 일도 중지하고 녹음에 선뜻 응해주었다.

【가창자】김남형(남·80) 도문동 5통 1반, 양양군 강현면 출신으로 19살에 이곳으로 장가들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처음 장가들어 이모님 논 1천 평과 종가 논 1천 평 등 도합 2천 평을 부쳐 3년 후에는 6천 평을 만들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고, 57살까지 농사를 지었고, 양봉을 시작하여 지금도 하고 있다. 주봉초교 육성회장.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천 미나리는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배웠다. 한문서당엔 한 3년 다녔다. 예전에 농악대가 있었을 때에는 팽과리고 잘 쳐서 상쇠를 했었다. 올 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후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자 : 미나리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김남형 : 여기 와서 어른들한테 배웠지. 여기 들은 도문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화서평이라고 하지. 여기서 미나리를 하면 저쪽 들로 건너가고 저쪽 건너서 미나리 하는 소리가 이리로 건너오고 했어요.

조사자 : (소리를) 주고 받고 했나요?

김남형 :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여러이(여럿이) 하나까 소리가 커졌지. 아이집이라고 벼가 요렇게 짝금 할 적에는 미나리도 아이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어요. 약한 벼(벼) 문닥그린다고. 두벌 짐(김)부터 미나리를 하고 그랬어요.

조사자 : 보통 세벌 짐(김) 하죠?

김남형 : 그렇죠. 네벌 짐(김)하는 이도 있지만 평균 세벌 짐(김) 하죠.

조사자 : 미나리 할 때는 보통 몇 분이 같이 부르나요?

김남형 : 다섯 아니면 여섯 되죠.

조사자 : 소리 매긴다고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죠. 받는 사람이 후렴하고

조사자 : 질 짠다고 하나요?

김남형 : 네.

조사자 : 그 사람들이 부르나요?

김남형 :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듣거나 하고...

조사자 : 잘 부르는 사람은 소리만 하죠?

김남형 : 아녀. 같이 매면서 하지. 미나리라는 것이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못 배우고 말더라구요. 처외숙, 오세준인가 하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I. 학술 세미나

[자료1] 도천미나리

김남형 :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뻗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김남형 : 숨 차. 아니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서 따라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어울리지 않아요.

조사자 : 지정다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러지. 그것두 혼자서 못해요.

조사자 : 명산들 다 주어 섬기죠?

김남형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백두산이 생겨 가지고 ... ’ 지금 사람들은 모를 기요. 커다란 돌에다가 구멍을 뚫었어. 거기다가 낭그(나무)를 지다란(길다란) 것을 꿰 가지고 엇거(엮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밧줄을 시겹(세겹)이고 네겹이고 하고 저쪽에다가도 밧줄을 시겹(세겹)이고 네겹이고 해서 소리를 주면 바싹 잡아당기면 돌이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다간 툇 놓구 썩 하면 툇 올라가다간 툇 놓구 그래서 줄을 맞춰들죠.

[자료2] 지정다지기

김남형 : (자 집터를 닦을 겁니다. 그러니 다 일심 받아서 해주세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라	에헤라 달호야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이 생겼구나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이집터가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소리맞춰 잘도찍소	에헤라 달호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헤라 달호야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에헤라 달호야
딸을나면 열녀나고	에헤라 달호야
소를노면 우격부리	에헤라 달호야
개를노면 삼살개다	에헤라 달호야
삼살개 짖는소리에	에헤라 달호야
오복이 굴러든다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거정다 된거같소	에헤라 달호야
막걸리 한잔먹고	에헤라 달호야

[자료3] 모찌는소리

김남형 : 얼른 하더라니 한 춤 (한 춤 떠서 집어내 던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연달아서 옆의 사람이)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그러면 또 연달아서 저쪽에서)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조사자 : 한춤이라는 게 뭐죠?

김남형 : 모를 묶어 놓은 것이지.

조사자 : 모 뭍 때 뭐하나요?

김남형 : 미나리하죠.

[자료4] 벼베는소리

김남형 : 흙칭흙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흙쳐흙쳐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I. 학술 세미나

[자료5] 벼세우는소리

김남형 : 벼(벼) 세울 때도 또 하지. 자 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그래요,

김남형 : (자 벼를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녀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아홉단에 스무단

한타래 세웠습니다

(여기서 스무단을 가지고 한 타래라고 합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녀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자료6] 도리깨질소리

김남형 :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호-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게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갑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조사자 : 타작할 때도 소리가 있죠?

김남형 : 그것 참 증말(정말) 옛날인데. 태 쳐서 집어던지면 하도리깨가 넘기는 건데... 잘 안돼요.

조사자 : 상도리깨가 있고 하도리깨가 있는 건가요?

김남형 ; 그렇죠

조사자 : 똑같이 생겼나요?

김남형 : 옛날에는 쪼파란 기계가 없어 가지고, 넓찍한 텃돌, 널찍한 텃산이라는 게 있어서 거게다(거기에다) 넓찍한 돌을 놓고 벧단(벧단)을 감는 줄이 있어요. 감아 가지고이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감아 치면 한쪽으로 한 두어 번씩 치면 베(벼)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쪽 풀민(풀면서) 던지면 저기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도리깨가 딱 받아서 쳐요. 치면서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이렇게 후리면 베를 불끈뿔끈 뒤집어줍니다. 하도리깨란 가로쇠거든요. 하도리깨가 돌이고 서이고 서서 소리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호-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개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온종일 탈곡을 해나 가지고 벧가릿개가 이만큼 되면 저녁에 베를 지운다고 하는건데, 불을 해놓고는 꺼끄랭이 꺼슬린다고 불에다가 옷을 흔들어요. 그래 가지고 입고 자고 했어요. 꺼끄랭이 타라고 하는 거지요. 벧가래를 이만큼 파는 거를(모아 놓은 거를) 또가리를 해놓고, 짚으로 또가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떠 넘기면(넘기면)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워요. 해보라우? 아랫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난 뒤에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해주세요

[자료7] 벧가리지우는소리

김남형 :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니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가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췌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돼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벧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벧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쌘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겨야 돼요.

이번엔 잘 줌 부쳐줘요.

I. 학술 세미나

세계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조사자 : 벧가리 지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지운다는 거는 문지(먼지)를 날린다는 거지. 온 종일 털은 걸 땀(모아)뉘두었다가 가래를 들고설랑 쪽 올라갔을 때 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 맞춰서 하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소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맞춰서 부쳐주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조사자 : 여기서도 소를 모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마라소라는 게 영서에서 받을 갈 때, 논농사 질 때 내가 상일꾼이었어요. 두림(두엄) 벌리러 나가면 장부 되고, 둘이 잡아 땡기고 가래질하는 거 있잖아요. 모 심으러 나가면 한 스투 몰고, 한 스투라는 건 쇠 두 마리 가지고 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 두 필로 하는 것. 쪽스레라는 것은 소 한 마리로 하는 것으로, 뒤에서 번지를 친다고도 하지요.

조사자 : 이랴 올라서라 이렇게 하지요?

김남형 : 그건 영서사람들이나 잘 하지요. 여기서는 ... 잘하는 소를 바른손 쪽에 세우죠.

[자료8] 소모는소리

김남형 : 이러- 올라서라

바로가란 애기다 이소야

어디 돌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어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자료9]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아-

어-

어-

이-

미리미리타불

조사자 : 초초 아뢰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일초, 이초, 삼초 아뢰는 게 있는데….

조사자 : ‘초’가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불교계통에서 나와서 우린 몰라요. 그저 어른들이 하니 할뿐이죠. ‘미리미리타불’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불교계통인 것이 틀림없어요. 옛날에 일초, 이초, 삼초 아뢰 때는, 밤새도록 과외라는 걸 하잖아요. 밤과외. 자지 않습니다. 일초 아뢰고, 술 갖다 먹고 또 놀고 그러다가 이초 아뢰다 하고, 과외 한다는 것이 날 세운다는 거예요. 삼초 아뢰고 아침에 발인 축 읽고 그러잖아요.

조사자 : 상여 소리 후렴은요?

김남형 : 어허 난차. 망인 앞에 가서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담제 후’ 이래요. ‘담제 후’ 하는 것은 상두꾼들 모이라는 뜻이에요.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망인 앞에 들어가서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세 번을 합니다. 그리구는 ‘아- 어- 어- 이-’ 한 후 ‘미리미리타불’ 그러면 후렴으로 따라서 또 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조사자 : 드장 하고 그 다음날 일초 이초 삼초 아뢰고

김남형 : 드장날 물어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묻었지요. 옛날에는 토롱 그 식인데 지금은 그 식으로 아니하고 가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인축 읽기 전에 삼초를 아됩니다. 삼초를 가는 날 아침에 삼초를 아뢰고 발인축 읽고 떠나갑니다.

조사자 : 선소리 하시는 분이 요령을 흔들며 하죠?

김남형 : 그렇지.

조사자 : 상두꾼은 몇 명이죠?

김남형 : 24명입니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에 저승이로구나’ 하면서 쟈소리 넣어 가지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요령도 흔들어 봤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상여 맬라

I. 학술 세미나

하니 힘들어 (상여는 매지 않고) 요령을 흔들었어요.

조사자 : 봉분 만들며 하는 소리를 뭐라 하나요?

김남형 : 회다지라고 하는데, 여긴 잘 할 줄 몰라요.

조사자 : 후렴은 어떻게 매기나요?

김남형 : 에호라 달호야

[자료10] 목도소리

김남형 : 아-으- 아-으-

어허여차 어허여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김남형 : 발 맞추는 것이니깐, 잘 하는 사람은 ‘저기가는 저 여자’ 하면서 히야까시도 하죠.

[자료11] 자장가(풀미타령)

김남형 : 풀미 풀미 풀미야

은을주면 너를사랴

금을주면 너를사랴

은자동아 금자동아

* 속초시 도문동 노인회관, 2002. 7. 13

* 김남형 : 남·80, 오대환 : 남·76

김순녀 : 여·70, 전기춘 : 여·68, 박선춘 : 여·65

김추월 : 여·65, 이준애 : 여·66

* 장정룡 조사

김남형 할아버지 덕을 다시 방문해 노인회관으로 모신 후 도문동 노인회관(2층)에 찾아갔다. 도문동 미나리를 김남형과 오대환 두 분에게서 채록한 후 옆에서 화투치는 할머니들한테서 또 소리를 채록했다.

[가창자]오대환(남·76) 속초시 도문동 태생으로 도천메나리를 즐겨 부른다. 김순녀(여·70)속초시 도문동 10통 2반, 속초 쌍다리가 고향이다. 전기춘(여·68) 속초시 도문동 10통 5반, 고성이 고향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박선춘(여·65)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속초 토박이다. 가장 많은 소리를 불렀다. 김추월(여·72)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양양 강현면 용호리 출신이다. 이준애(여·66) 속초시 도문동 10통 4반, 이곳 출신이다.

[자료1] 도천미나리

김남형 :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뻗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 김남형 선창에 오대환 합창으로 녹음을 했다. 소리가 끝난 후 오대환이 ‘동해동창 솟은해가 나의얼굴 비추고’ 가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곧 김남형의 설명을 듣고는 수긍하셨다. ‘지여가네’는 ‘늦어가네’라는 뜻이다.

[자료2] 초초아되는소리

김남형 : 담제고 에이
대령하였느냐
오대환 : 예이. 대령하였소
김남형 : 대령하였소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김남형 + 오대환 : 아 ~ ~ ~
어 ~ ~ ~
에 ~ ~ ~
이 ~ ~ ~
미리미리타불

[자료3] 넘차 소리

김남형, 오대환 : 에에호
어이갈까 에이호
에헤 에헤호
어이갈까 에헤호

I. 학술 세미나

[자료4] 화투놀이

전기춘 : 일월송학 속상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오월난초에 날아들다
유월목단 ...

* 긴장해서인지 제 곡조가 못나오고 가사는 잊어버렸다. 이하 칠월부터는 소리가 아닌 사설로 읊어주었다. ‘칠월 흥싸리 허숙하고, 팔월 공산에 달도 밝고, 구월 국준,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고, 동지선달 긴긴밤에, 나개만 떨어져도’

[자료5] 나물캐는소리

김순녀 :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씨찍새가 다파먹고 좃대만 간들간들

[자료6] 어랑타령

전기춘 :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애기 단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예헤야 데헤야 연사연이로구나

김순녀 :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을 찍구요
니탓이나 내탓이나 중매재(중매쟁이) 탓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에야 요것이 사령이로구나

간다 간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잡이나 자고가게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사령이로구나

[자료7] 뱃노래

김순녀 외: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나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 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거잔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에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기사머리 가려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 데레(테려) 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올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올너머 담너머 꼴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랑은 외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나는야 언제나 남자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자료8] 노랫가락

김남형 : 대천바다 한가운데에 뿌리없는 나무새여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그나무에 열매가열었네 일월이나 명월이나

사람마다 벼슬을주면 일할농부가 어디있나
의사마다 병고친다면은 북망산천은 왜생겼소

I. 학술 세미나

아서라 끄지마라 화류계여자를 팔세마라

이몸이 학이되어 나래 에다 유령실고
천만리 날어를가니 이별이없는 곳일러라
그곳도 이별보시는 또천만년

오대환 : 가랑잎이 반들반들 고초났(고추잎)도 반들반들
우리동네 한처녀가 언제나봐도 반들반들
임나만나 고운얼굴에 연주찍고 분바르네
한손에다 술병들고 한손에다 술잔들어
깨끗하게 곱게입고 상코가는 저총각아
여자눈에 이럴때야 남자눈에 오죽하랴

[자료9] 양양팔경

김순녀 외 4인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의 사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조사자 : 이 노래는 언제 배우셨나요?

김순녀 : 7~8살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돌아다닌 거 배운 거지.

[자료10] 앵기땡기

전기춘 :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 발레 회양주

[자료11] 세상달강 (아이 어루는 소리)

박선춘 : 실경달강
할머니가 서울가서 밤한되 사온거
고무라에 치뜨린거 머리까튼 새양쥐가 다까먹고
한톨을 넘긴거 가매물에 삶아서

조리로 견제서 껍데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엄마주고 너랑나랑 알맹이먹자
실경달경

[자료12] 두껍아

박선춘 :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두껍아

조사자 : 그거 언제 불렀나요?

박선춘 : 대여섯 살 때 불렀어요.

[자료13] 춘향이소리 (신내리는소리)

박선춘 :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야가씨
 이도령님 만났을때
 종글종글 내리시오
 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
 양골양골 춘향이야가씨

박선춘 :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은 두 손바닥을 모으게 해놓고 여럿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손바닥이 슬슬 벌어져 춤을 추고 논다고...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대신(센) 사람은 그게 안돼.

[자료14] 추워추워춘달래

박선춘 : 추워추워춘달래
 더워더워 던달래

[자료15] 내손이약손

전기춘 : 자래배 자래배
 엄마손은 약손이다

싹싹 문질러 풀어줘라

[자료16] 꿩서방

김추월 : 꿩꿩꿩 꿩서방
자네집이 어딴너(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밭이 내집이지

II. 속초시 민요의 계승과 발전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3. 도문메나리 농요 화보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장 정 룡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1) 속초시 지역개관

속초시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에 있으며,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인제군,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 고성군과 연결해 있다. 태백산맥의 능선인 해발 1708m의 설악산과 1327m의 마등령과 같은 높은 산이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난다. 하천은 雙川과 靑草川이 있는데, 연장 16km의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 도문평야를 이루고, 청초천은 연장 12km로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에 이르는데, 소야평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의 하구에는 후기 빙하기 때 해수면의 상승으로 영양호, 청초호 등 석호가 생겨났다.

설악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데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는 세번째로, 그리고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69년 관광지에 이어 1970년에 국립공원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본부는 설악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2년 8월 12일 설악산을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雪嶽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雪山, 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극히 높고 험한 산으로서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듬해 여름에 이르러야 비로소 없어진다고 했으며, 노산 이은상 선생은 본래 솔피였는데 한자로 쓰다보니 설악이 되었다고 하였다. 솔피의 솔은 설의 음역으로 신성·숭고·결백·생명을 뜻한다고 한다.

속초지역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외옹치 남쪽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되어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빈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시의 해안선은 총 9.4km에 달하며, 조양동 1464번지 일원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은 해안 백사장 450m에 총면적 4만㎡이다. 속초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이외에 동서로 이어주는 도로는 미시령이 유일하다.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속초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여지도서』의 기록이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도서』에 의하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9명, 여자 182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하던 중 조선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양양도호부 所川面에 속했다. 도문면과 소천면은 靑垌山을 사이에 두고 이북이 소천면, 이남이 도문면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도문면은 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웅진, 신흥사 등 6개 리, 소천면은 논산, 부월, 속진, 속초 등 4개 리를 두고 있었다. 1914년 3월 1일 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 개혁으로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을 만든 후 면사무소는 대포리에 두었다. 東津里와 東草里가 합해졌고 論山里에서 蘆里(蘆洞里)가 분리되었고 上道門里와 下道門里 사이에 中道門里가 신설되었다. 또한 신흥사가 위치한 지역은 獐項里가 되었고, 甕津里와 勿湍里는 大浦를 중심으로 하여 안팎에 있다고 하여 外甕峙里, 內勿湍里로 불렸다. 蘆里는 과거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 분리 독립하였고, 獐項里는 노루목고개에서 온 지명으로 노루목 고개 일대 즉, 현재 설악산 신단지 B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雪嶽洞에 해당한다. 靑草湖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그에 인접한 東草里가 점점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도천면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당시의 속초면은 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웅치리, 내물치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 등 11개의 리로 구성되었다. 1938년에는 읍면에 부분적인 지자체가 시행되어 민선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府令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속초리는 1구에서 4구로 분구되고, 노리에서는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비로소 행정권이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었다. 이때 다시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으며,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 5구와 6구를 신설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읍은 속초시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로 되었고, 1966년 1월 1일 동 명칭으로 변경을 해 12개 동으로 되었다.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초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개명하였다.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척대리는 다시 합쳐져 조양동으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노학동으로, 대포리, 외웅치리, 내물치리는 대포동으로, 상도문리, 하도문리, 중도문리는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개명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13개동이 되었다. 다시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가 설악동으로 편입되면서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고, 1990년 4월 1일 市조례 제1293호로 법정동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었고, 1998

년 10월 17일 市조례 제1657호로 행정동 중 영랑동과 장사동이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현재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8개 동이 되었다.

장정룡의『속초의 향토민속』(1992)에 다음과 같이 지명유래가 수록되어 있다.

속초는 뭍을 束자, 풀 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 지형이 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東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속초는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국가지정 보물 443호로 신라 진덕여왕 6년 652년 자장율사는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움집터,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등이 다수 발견되어 사적 376호로 지정되었다. 신흥사는 1912년경에는 건봉사의 末寺였으나 1971년 조계종 3교구 본사가 되었다. 사찰 내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14호 신흥사 극락보전, 15호 신흥사 경관, 104호 신흥사 보제루가 있고, 신흥사는 문화재자료 7호, 신흥사 부도군은 115호로 지정되었다. 도문동 김종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85호이고, 도문동 김근수 가옥은 문화재 자료 64호이다. 계조암은 신흥사 북방 2.3km 지점 천후산의 석굴 안에 위치한 암자로 의상, 원효 두 조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계조암이라 명명했다.

청초호는 쌍성호, 진성호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 호수로 그 모양이 술단지처럼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조 때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켰고 쌍성호의 아름다움이 영랑호보다 훌륭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8경의 하나로 들고 있다. 속초의 민속예술로 속초산대놀이와 1985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1991년에는 대포동의 용왕수살곳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의 고유 민속놀이로 속초지방에서 행해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 받았다.

所野八景이라하여 이 지역의 8가지 절경이 있는데, 舟橋夜火 溫井朝霞 靑岱畫屏 靑湖磨鏡 論山朝陽 蘆洞明月 梨洞白雪 鳥島歸帆 등이 그것이다. 속초시는 이것을 발전시켜 1999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영랑호의 범바위, 영금정의 등대전망대, 대포의 외옹치, 내물치의 설악 해맞이 공원, 청초호,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상도문의 학무정, 청대리의 청대산을 속초의 팔경으로 선정하였다. 설악제는 산악인들의 제례에서 출발하였는데, 1966년 제1회 설악제는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로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설악문화제로 개명하여 순수 문

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속초시는 1999년에 청초호변에서 국제관광EXPO를 개최하였고, 2000년 4월 바닷길로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 이르는 항로가 개설되었다. 또한 북한 금강산 관광선도 출항을 하고 있어 속초 설악산과 금강산, 백두산을 연결한 환동해권 중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2) 속초시 민요의 실제

속초는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이라고 읊는 팔경가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소리도 풍부하게 이어져왔다.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뱃소리가 연면히 이어져왔고,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을 풀이한 농산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은 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닮은 형태는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는 또한 실향민의 고장이며 수산도시이므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어로방식의 변화로 가창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청호동 지역에는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은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10월 14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1) 농산노동요

속초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뱃소리가 발달하였지만 설악산 산자락을 중심으로 한 도문평야와 조양평야에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며 질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못자리를 심고 논을 가는 데, 흔히 소 두 마리로 가는 경우 ‘한스레’라 하여 큰 스레를 소에 걸어 사용하고, 소 한 마리로 갈 때는 ‘쪽스레’라 하여 조금 작은 스레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논삶는소리다.

다음 예문 ①이 그 예이다. 논을 다 삶으면 본격적으로 모를 심는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한춤 소리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니가 하니 나도 한다 한춤’ 하는 소리로, 노동의 속도를 배가하며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소리다. 예문 ②는 모심는소리다.

① 이러- 올라서라 바로 가란 애기다 이소야
 어디 돌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② 얼른 하더라니 한 춤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모내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는 모가 약해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조심스레 김을 맨다. 그러나 두벌김부터는 소리를 하면서 흥겹게 김을 맨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메나리다. 도문동에서는 예로부터 독특한 메나리라 불리는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예문 ③이 그 예이다.

③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나 뿔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나가네
 지어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메나리 민요에 관한 관심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민요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반적인 전승상황이나 구연방식, 음악적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몇몇 민요 연구자나 국악관련 연구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에 비하여 많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露雀 洪思容, 李在郁, 韓晶東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洪露雀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럭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녀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李在郁은 메나리에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交涉」을 『新興』(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렀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혼동하여 ‘피노리’ ‘피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이후에도 메나리를 언급하는데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별다른 검토 없이 이후 연구자들이 仍用하였다.

韓晶東은 『朝光』(1939.10)「내 故鄉의 民謠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1936.8)라는 잡지에 「메나리아 메나리아」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앞의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高晶玉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¹⁾ 任東權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성장되는 ‘미나리꽃’과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²⁾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³⁾ 이후 姜騰鶴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가창구조·기능양상·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⁴⁾ 金英云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연구로도 성과를 거두었다.⁵⁾

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서울:首善社, 1949), 183쪽.

2) 任東權, 『韓國民謠史』(서울:집문당, 1964), 32쪽.

3)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나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15(1987), 16~30쪽.

4)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津橋語文研究』(서울:반교어문연구회, 1990).

또한 李素羅는 한국의 농요를 정리하면서 삼척군 지역 농요 메나리를 채보하여「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요 권·용도·가창방법·이재옥의 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발표하면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⁶⁾

필자도 삼척지방의 민간신앙과 지명유래를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리」(『들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2), 「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4)라는 단편적인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속초시 도문동 도문 메나리를 발굴하여 김영운에게 자료로 제공한 바 있고 필자의 저서에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⁷⁾

메아리도 아니고 미나리도 아닌 이 명칭에 대한 의문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나리’도 아니고 ‘나리꽃’도 아니다. 무슨 뜻에서 메나리라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메나리에 관한 이론들이 정확한 의미를 적출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했을 수도 있다. ‘메나리’라는 용어의 유사범주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나리’가 있으며 이밖에 여러 명칭으로 ‘뫼노리’·‘메노리’·‘민아리’·‘미누리’·‘면아리’·‘네나리’·‘니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현재 국악계에서 ‘메나리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는 형편이다. 우선,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뫼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⁸⁾

뫼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옥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옥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慶尙道 善美那里歌 按美那里 疑是山遊歌之轉 盖我認山曰美 遊曰奴里故也”⁹⁾라고 한 것에서 유추하였는데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뫼노리로, 뫼노리에서 미나리로

5)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 제4집(서울: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謠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 제20집(서울:한국국악학회, 1992)

6) 李素羅, 『韓國의 農謠』 제4집(서울:현암사, 1990).

7)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속초:속초문화원, 1992), 89쪽.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권 메나리(1991), 790쪽.

9) 李能和, 『朝鮮女俗考』 참조.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訛傳하지는 아니하였을까”라고 의심하였다.¹⁰⁾ 이 견해를 수용한 高晶玉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떨떨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되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 예다.¹¹⁾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 전에 洪露雀이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메나리’라는 용어는 우리 민요가락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메나리’의 어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메나리라 하는 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 민요 그것이란다”¹²⁾고 말하여 민요를 범칭했던 것이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山有花歌가 같은 민요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이소라는 산유화가를 백제가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벨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레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謠는 조선시대 구전문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讖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¹³⁾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

10)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1931.12)

최철 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서울: 정음사, 1984), 126~132쪽 재록.

11) 高晶玉, 前掲書, 183쪽.

12) 露雀, 「朝鮮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928.5).

최철 · 설성경 편저, 『민요의 연구』(서울: 정음사, 1984), 104~109쪽 재록.

13) 『민속예술 사전』(서울: 한국문예진흥원, 1979), 123쪽 참조.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아하 미나리아하 너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¹⁴⁾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이 저아이들이 참메나리 캐러가지”¹⁵⁾ 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실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¹⁶⁾

메나리는 뫼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뫼’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간지방의 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설로 메나리는 뫼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하나 신빙성이 없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도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¹⁷⁾ 간취 된다. 韓晶東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故鄉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附記하였다.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謠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꼭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謠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워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¹⁸⁾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

14) 李素羅, 『韓國의 農謠』4집(서울:현암사, 1990), 742쪽.

15)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서울:學藝社, 1929), 175쪽.

16) 김태갑·조성일 편저,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22~25쪽.

17) 成慶麟·張師助 共編, 『朝鮮의 民謠』(서울:國際音樂文化社, 1949), 151쪽 참조.

18) 韓晶東, 「내故鄉의 民謠 情調」, 『朝光』(1939.10).

최철·설성경, 『민요연구』(서울:정음사, 1984), 213~214쪽 재록.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찰은 어원적으로 보다 상세한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음악적으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김연갑이 “메나리조 노래 중 메나리, 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같은 음의 전사, 혼독에 불과하다는 것, 한자적 영향으로 또 다른 문자형태로 파생, 정착된 것일 뿐”이라는 언급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노래, 산노래, 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¹⁹⁾ 이소라 역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되고,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山遊歌가 아니라 아라리, 아리랑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고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 調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한 분파가 아닐까 하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속초 메나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간불교문화적 영향에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농사의 진행상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다른 농촌처럼 소리가 있다. 벼베는소리다. 벼를 베어 놓은 후 벼단을 가지런히 세운다. 이때도 역시 소리를 하는데 아래 예문 ④, ⑤가 그 예이다.

④ 흠척흠척 하더니 하-안 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척흠척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녑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19) 김연갑, 상계논문 30쪽.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낙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농촌의 즐거움은 타작을 하여 낱알을 곳간에 저장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아래 ⑥은 도리깨를 갖고 타작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다. 타작을 하면 벼 검불로 몸이 따끔거리는데 이를 털기 위해서 벼 검불을 터는 소리를 한다. 황덕불을 피워놓고 옷자락을 흔들며 옷에 걸린 벼 검불을 태워 버린다.

⑥ 자 때려라/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아흐-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갑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⑦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쌌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위의 예문 ①~⑦은 도문동의 김남형 씨가 부른 소리다.

(2) 수산노동요

속초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이번 조사에서 뱃소리를 많이 채록하지 못하였으나 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는 소리의 전승이 가능하였다. 이 경우에는 힘든 노동이 많이 가미되므로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졌는데,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뱃소리를 부른 연령층이 아니다. 동명항에서 만난 김갑용 씨는 연세가 79살이었으나 뱃소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뱃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세상을 달리하여 채록이 더욱 힘들었다.

채록된 뱃소리는 놀배기소리(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대포동 김병국), ‘어야디여’(동명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동 최재윤, 영랑동 김갑용), ‘에라소 가래라소’(장사동 김현배)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배들은 ‘어여차 디야’(김갑용 증언)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으니 산대로 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어 가사를 만든다. 그물당기는소리는 요즘은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과거엔 ‘당겨 보자 에야디여’를 즐겨 썼다고 한다.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맏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내자’는 함경도에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라고도 하나 속초지방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한다. 아마도 소리가 서로 넘나들어 서로가 영향을 교류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자-’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붙끈붙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 든대질이란 ‘설망’ 즉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다. 이 과정에 아래 예문 ⑥처럼 다양한 사설이 들어간다.

속초 지방의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그물당기는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대포동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돌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퍼 담아 올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 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 가지고 ‘야이야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고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데’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짚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는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를 보면, 뱃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뱃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지문도 있다. 아래 예문 ①~⑦은 뱃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문들이다.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 보자’ 등의 후렴도 농촌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특히 ⑥의 예문은 이 지역 뱃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알 수 있는데, 남쪽 삼척 앞 바다에서부터 강릉, 양양,

간성, 장전 앞 바다를 거쳐 위로는 함경도 원산 앞 바다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바다 일과 관련된 정보와 소리들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소리는 든대소리 뿐만 아니라 산대소리에도 응용되고 있음을 봐서는 다른 여러 소리에도 가창자 능력에 따라 응용되었을 것이다. 예문 ⑦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원산내기 바람이 뱃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명동 최재운 씨도 셋바람이라고 부르는 원산내기 바람이 가장 무섭고, 다음이 내바람 즉 하늬바람이라도 하면서 맞바람 즉 마파람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한 바람이라고 한다. 예문 ⑤에서는 뱃사람이 고기를 잡은 후 어떤 순서로 고기를 나눠 갖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포동(외옹치)의 김병국 씨에 의하면 명태바리는 선장, 기관장, 낚시사공, 선원이 있어서 잡은 고기를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낚시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

- ①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 다리어소리 >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놓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다리어소리 >
-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다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가래소리 >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 베끼소리 >
-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 든대소리 >
-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취한 술이 절로 깬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처럼 뱃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산촌 등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졌던 가사도 뱃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래의 예문 ⑧~⑫는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다. 이런 보편적인 가사에 뱃소리 특유의 후렴을 붙여 부르면 뱃소리가 된다.

- ⑧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다
 우리 저 멧덩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입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
- ⑫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삼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외에도 고기숫자를 세는 소리도 있다. 속초에서는 주로 명태를 잡는데, 명태를 잡아 풀어놓고 고기 숫자를 세는 때 ‘하나이요 둘이요 서이요’ 하면서 흥겨운 리듬 속에 고기를 세어 묶어내어 놓는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노래이다.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되는 리듬은 노동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동해안 뱃소리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지역이면서도 함경도 풍속들이 교차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뱃소리와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러지는 가사가 습합되어 어부들의 희노애락을 담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북 실향민들이 부른 북한지역뱃소리는 제외하였다.

(3) 유희요

아라리는 속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속초에서도 아라리는 도처에서 불러진다. 속초 지방에서는 아라리와 가사는 같아도 곡조는 어랑타령의 곡조로 불러지고, 뱃노래, 청춘가의 곡조로도 불러진다. 다음은 그 예이다.

- ①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 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 최월선(영랑동)
- ②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③ 울너머 담너머 풀베는 총각아/눈치가 있거랑은 외 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④ 산이 높아야 골골이 깊지요/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느냐 - 차종용(노학동)

①은 어랑타령 ②, ③은 뱃노래 ④는 청춘가이다. 그러나 그 가사는 아라리 곡조로 불러진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어느 산골과는 달리 아라리의 절절한 한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것은 그만큼 노래의 곡조가 어랑타령, 뱃노래처럼 흥겨운 곡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곡조는 필연적으로 놀이를 동반하고 또 유희적 상황에서 불러졌을 것이다. 가창자 대부분이 장구를 즐겨 치는 분들이다. 삼월 삼진날 화전놀이를 가거나, 농사일을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거나 그 외 여러 행사 때 많이 불러져서 농촌에서 불러지는 아라리와 차이가 생겼으며, 가사는 슬픈데 흥겨움으로 끝난다. 다음은 그런 몇 가지 예이다.

- ⑤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나 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영애(동명동)
- ⑥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요내몸은 잊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 박계량(도문동)

이런 흥겨움은 아라리, 어랑타령, 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유희요에서도 보여진다. 대표적인 유희요로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이 다리뿔기이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 ⑦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 천두 만두 두만두 / 짹 발레 회양주 - 전기춘(도문동)
- ⑧ 한알개 두알개 / 삼사 너구리 / 뚱개 망개 / 참낭그 지계통 / 고불통 내아들
- 남복우(장사동)
- ⑨ 재짱 개짱 / 쇠스레 녀장 / 콩죽 팔죽 / 언어 먹었니 / 못언어 먹었니 / 사 마 / 지 콩
- 김정수(도문동)
- ⑩ 이똥 저똥 행기똥 / 지 할미 곱새 똥 - 김옥진(영랑동) 김영애(동명동) 김윤문(영랑동)
- ⑪ 이원 지원 / 가매 꼬지 - 박계량(도문동)
- ⑫ 이거리 저거리 갖고리 / 심지 망근 도망근 / 짹 바리 호양강 / 도루메 장치 장두깨 / 모개 발
에 작서리 / 동 지 설 달 / 대서리 - 이응숙(대포동)
- ⑬ 윙그리 땡그리 / 죄가 재축 / 오리 고이기 / 먹으나 못먹으나 / 죄가 때꿈
- 차종용(노학동)
- ⑭ 윙그리 땡그리 / 삼사 똥개 망개 / 참나물 등거리 / 고등어 짬지 / 죄가 때꿈
- 차종용(노학동)

위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리를 뺀 어놓고 여럿이 다리를 서로 집어넣은 후 이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친다. 한쪽 다리를 칠 때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치다보면 필경 마지막 소리에 걸리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리를 구부려놓고 다시 남은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또 이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 소리들은 여성 가창자에게 채록이 되었으나 ⑩의 예는 남성 가창자(대포동 김병국)에게서도 채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다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을 경우 방귀 냄새가 나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방귀뀐 놈이라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요로서 춘향이 놀이를 또 들 수 있다. 여럿이 모여 한사람을 지목하여 손바닥을 마주치게 한 후 춘향이 소리를 하면 차츰 마주 대었던 손바닥이 차츰차츰 벌어지면, 그 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신들린 듯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도문동에서 채록한 춘향이 소리다.

- ⑮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이도령님 만났을 때
종글종글 내리시오/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박선춘(도문동)

3) 속초시 민요 일람표

◇ 임산노동요

임산물채취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풀씨는 소리				○				
나물캐는 소리		○		○	○			

◇ 공산노동요

임산물채취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풀씨는 소리				○				
나물캐는 소리				○		○		

◇ 농산노동요

농농사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논가는소리				○				
논삶는소리				○				
모심는소리			○	○				
논매는소리				○				
벼베는소리			○	○				
벼단세우는소리				○				
도리깨질하는소리				○				
검불날리는소리				○				

◇ 수산노동요

고기잡이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노젓는소리			○		○	○	○	
그물당기는소리			○		○	○	○	
고기푸는소리			○		○		○	
든대질하는소리			○		○	○	○	
고기터는소리			○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 토건노동요

토목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목도하는 소리				○				

건축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땅다지는 소리				○				

◇ 상업노동요

산술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고기세는 소리			○				○	

◇ 가사노동요

살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듬이질하는 소리			○					

◇ 가사노동요

살림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듬이질하는 소리			○					

건축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아기어르는 소리		○	○	○		○	○	
아기재우는 소리		○		○		○		

◇ 기원의식요

안녕기원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고사지내는 소리				○				

◇ 벽사의식요

축질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배스러주는 소리				○	○	○	○	

◇ 통과 의식요

장례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초초아되는 소리				○				
운상하는 소리				○				

◇ 동작유희요

동작경기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다리뽑기하는 소리	○	○	○	○	○	○	

◇ 언어유희요

말풀이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천자풀이하는 소리	○		○				
한글풀이하는 소리	○		○				
화투풀이하는 소리	○	○	○	○			

말엮기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어휘맞춰엮는 소리		○					

말잇기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조건으로잇는 소리		○					

◇ 놀림유희요

신체놀림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이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	○	○	○	○	○		

인물놀림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옛장수 놀리는 소리	○						

◇ 자연물 상대 유희요

잡기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잡자리잡는 소리	○		○				

부림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방아깨비부리는 소리				○			
잡자리부리는 소리			○				

조절요 \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삼잡는 소리			○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완상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제비보고하는소리				○				
평보고하는소리		○	○	○	○	○	○	
참새보고하는소리		○						
비둘기흥내내는소리				○	○	○	○	
부엉이흥내내는소리		○						
빼국새흥내내는소리				○				
할미꽃보고하는소리		○						

◇ 신비체험유희요

최면술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춤추게하는 소리			○	○				

◇ 생활의식요

상황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방귀뀌며하는 소리			○					
추울때하는 소리				○				

◇ 조형유희요

만들기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모래집짓는 소리				○	○			
플각시만드는 소리		○	○	○			○	

◇ 가창유희요

	지역명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청호동
비기능창곡요		○	○	○	○	○	○	
비기능사설요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이 한 길 (강릉대학교 국문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메나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 장정룡, 강등학, 김영운 등이 영동지방의 메나리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는 범패소리와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아시다시피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는 아마도 이 지역의 인근에 절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창자들은 도문동과 이웃한 양양 상복리에도 많이 있다. 이곳은 도문동과는 평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 상복리의 메나리를 보면 도문동의 메나리의 특색을 더욱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문 메나리 농요의 전승 과정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는 사실 그 근원은 오래되었다. 김남형 옹은(남·81세, 도문동 거주) 양양에서 태어나 도문동에서 장가들어 이곳에서 생업을 일켰다. 이분은 메나리를 이곳에 장가 온 이후 처외숙 되는 故오세준, 故박남식 등에게서 메나리를 배웠다. 당시 김남형은 19살이었고, 오세준은 50여 세가 넘었다고 한다. 사실 메나리 가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박남식이란 분은 가사를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양양 방면 논을 하서평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장재터라고도 부른다 - 이곳 도문뜰에서 메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 때, 즉 아이집(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벌 김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벌 김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벌 김을 매니까 두 번 정도 김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그런데 메나리라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여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배우려 하다가 끝내 못 배우고 마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메나리 소리는 아쉽게도 기계화 영농이 시작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를 심고 김 매기를 하는 것이 기계가 대신하면서부터 차츰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한 소리를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영농기계가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온 것은 20년은 넘었고, 30년은 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차츰 메나리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전신인 태백문화제가 있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 마을에서는 김남형, 오순석, 이상욱 등이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요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해도 도문동에 메나리는 전승되고 있었던 것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었다.

당시 김 맬 때는 삼베적삼을 대체로 입었는데 머리에 수건은 같은 것은 매지 않은 것으로 김남형 옴은 증언한다. 삼베적삼을 입고 팔다리는 시원하게 걷고 김을 매었다. 다음은 2002년 현지에서 채록한 자료에서 일부 인용한 구절이다.

조사자 : 언제까지 소리를 했나요?

김남형 : 기계가 들어온 다음, 제초제가 나온 다음부터 소리를 안 했다. 20년은 더 되었으나 30년은 안 된 것 같다. 70년대 후반에 제초제 나온 것 같다.

조사자 : 김맬 때 어떤 옷을 입었나요

김남형 : 삼베중후 적삼.

이후 기계화 영농으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고유한 소리는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면 중 속초에서 이 메나리가 발굴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문동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농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논 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메나리소리, 벼베는소리, 도리깨질하는소리, 벧가리지우는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속초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도문메나리 농요의 발굴이 시작되었고,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도문메나리농요>로 참가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필자는 지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내용

도문동 마을은 예전부터 농악이 있어서 정초가 되면 지신을 집집마다 찾아가 지신도 밟아주고 또 마을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마을의 단합을 꾀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주민자치위원회를 여타 동리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농기에는 - 이 지역에서는 농상기라고도 불렀다. - 광목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붉은 수술(까치발)을 달았다. 위에는 수평의 깃털로 장식했는데 분량은 다른 마을보다도 풍성하게 보이려고 꿩 두 마리 분량을 사용했다. 이를 꿩장목이라고 불렀다.

김남형 : 누가 치고 가잖아요. 가다가 도중에 서낭나무가 있으면 서낭굿을 치고 가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 이라고 치고 가요.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굿을 쳐요. ‘앗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령칠령 건너가자’

오명현 : 서낭에 가서 뭐를 받아오더군요.

조사자 : 그게 뭐죠?

오명현 : 예. 신을 받아오죠.

조사자 : 대나무에 한지를 걸죠? 서낭대라고 하나요?

김남형 : 서낭님을 받는다고 하여, ‘서낭 서낭서낭님 ...’ 쇠를 치죠. 종이, 실을 잡아매고, 언제 이집 하고 들어가서, 서낭기를 세워놓고 마당굿을 치거든요. 그러면 몇 되박 혹은 몇 말 내놓아요. 고사반을 치기도 하고…….

조사자 : 어떤 형질을 매다나요?

김남형 : 광목, 보화쥬. 어떤 집에 들어가 박대를 받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낭대를 까꾸로(거꾸로) 끌고 나옵니다. 뭐냐하면 이놈의 집 잘 되지 말아라 하고 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농악대를 끌고 신흥사 절에까지 가 봤어요.

상기 예문에서 보다시피 농기 외에도 성황당에는 서낭대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는 한지를 착착 접어 걸고, 또 실도 동여매 놓았다. 성황당에서 먼저 서낭굿을 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리굿도 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굿도 쳤다. 그러면 주인은 마당 지신을 밟아주어 고맙다고 쌀을 성의껏 내놓았는데, 일부 박대를 하는 집이 있으면 서낭대를 거꾸로 끌고 나오곤 했다.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또한 마을의 중요 행사를 위해 걸립을 할 때에는 당시 인근 신흥사에까지 가서 지신을 밧아주기도 했다.

당시 서낭쇠는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밖의 서낭님...’이었는데, 이 유형의 쇠는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되는 쇠가락이다. 다리쇠 또한 ‘앗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렁칠렁 건네가자...’ 인데 이 역시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된다.

60~70년 전 만해도 이곳은 행정구역상 속초시가 아니라 양양군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문동이 되었는데, 60~70년 전에 양양에서 별신 마당이 열리면 마을대항 농악 경연대회도 같이 열리곤 했었는데, 당시 이 지역의 농악의 구성을 보면 논 갈고, 논 삶고, 모심고, 김 매고, 벼 베고, 탈곡하고, 벼 지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 참가했었다고 한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한 <도문 메나리 농요>의 내용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는 전체 과정을 놀이로 작품화하면서 ①성황굿 ②논삶는소리 ③모심는소리 ④김매는소리 ⑤질먹기 ⑥벼베는소리 ⑦황덕굿 등 7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1) 첫째 마당 : 서낭굿

첫째 마당은 서낭굿으로 시작한다.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성황당에 모여 성황님께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밖의 서낭님...’이라는 서낭굿을 치는데, 이를 작품화하여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인사를 드리면 성황님은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가늠하게 받으시어 응감을 한다. 신목이 으스스 소리를 내며 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서낭굿이 끝나면 상쇠는 농악대를 이끌고 이동하여 다음 마당을 준비한다.

다음은 당시 사용한 서낭쇠 사설이다.

아하

모십시다 모십시다 성황님을 모십시다.

성황성황 성황님 강원도라 속초시의

설악산의 정기가 내려뵈은 도문동의

성황님을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기를

축원~~ 하옵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을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성황님께 비옵니다 성황님께 비옵니다.

(2) 둘째 마당 : 논삶는소리

봄이 오면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논도 삶아야하고 모도 준비해야 한다. 도문동은 농사철에 부르는 농요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농사와 더불어 소리도 시작이 된다.

논삶는소리는 흔히 소모는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로 농사를 지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인데,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간다. 혹 소 한 마리로, 즉 쪽스레로 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갈 때 이때 다양한 소리가 전해진다. 대체로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이 표현된 이 소리는 소를 다 물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에 따라 또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소모는소리

이러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곶으로만 찾아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뵈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뵈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뵈
 쇠머리에 모춤 올라얏겠구나 얼릉얼릉 짹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뵈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뵈
 와와

소가 제 길을 잘 찾아 제 골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소가 성이 났는지 제 골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 이럴 때 소모는 이가 - 소모는 이를 이 지역에서는 성군이라고 한다. - 고삐를 조정하며 소를 달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상징하여 작품화하였다. 가령 한스레이므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몸을 비비며 장난을 하거나, 또 잘 가던 소가 갑자기 가지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를 얹고 성군을 골탕을 먹인다던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눈을 감고 삼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를 찢다. 이때 모를 찢 때도 또한 소리를 한다. 흔히 한춤소리라 알려진 것인데, 도문동의 모찌는소리는 다음과 같다.

□ 모찌는소리

A : 얼른 하더라니 한 춤

B :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C :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A : 얼른 하더니 또 한춤

B : 나도 또 한춤 나간다.

C :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A :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편의상 A,B,C 라고 구분을 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몇 명이 참가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다.

당시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을 - 이 마을에서는 질레라고 하기도 한다. -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았다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더 많은 분량을 남겨놓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꽃아놓고 모를 찢다. 모를 다 찢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다.

김남형 : 농상기를 만들어요. 농토에다가 꽃아놓고 농상기 패들이 여느 질레가 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모를 찢요. 들어올 적에도 똥땅거리고 들어오고, 안 온 놈 것은 좌상이 내댒요. 요건 그놈 거. 하면서. 늦게 온 놈에게 “너 저저 심어.” 합니다. 꼼짝 못하고 심습니다.

조사자 : 영좌, 대방 이런 조직이 없었나요?

김남형 : 좌상은 나이가 많은 분이 합니다. 일도 같이 합니다. 좌상이 늦게 온 사람 골탕을 먹이려고 매야할 논자락을 많이 할당합니다.

조사자 : 농악대의 대장은 상쇠지요?

김남형 : 상쇠가 아니고 좌상, 나이 많은 사람이죠.

(3) 셋째 마당 : 모심는소리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려졌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 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어느새 점심참이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가네
정든님방 들시간이 늦어가네

(4) 넷째 마당 : 김매는소리

김매는소리를 메나리라고 한다.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친다. 이 때부터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하루 중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소리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본고 4장 ‘도문메나리농요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5) 다섯째 마당 : 질 먹기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고 한다. 이 마당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저마다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여기저기 웅기중기 모여 앉아 저마다 장기 자랑도 하고 여인들은 합지를 이고 술상을 들고 분주히 오고가는 쾌활한 농촌의 하루 풍경을 그려내었다.

(6) 여섯째 마당 : 벼베는소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면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달리 ‘한단 소리’ 라고도 하는데,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 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 벼베는소리

흙칭흙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흙치흙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벼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벼단을 세운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여기까지 형상화했으나 이하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았다.

□ 벼단세우는소리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녀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명이 한다고 한다. 텃돌(태상이라고도 한다)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한다. 텃돌이란 널찍한 돌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이때도 물론 소리를 했다.

□ 상도리깨소리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호-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랫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탈곡을 하여 벳가리가 이만큼 모아 있으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벳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한다.

□ 벳가리지우는소리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니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심오는 넘겨야 하는데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부채질을 췌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뱃가리가 넘어간다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뱃가리가 넘어가네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쌘 나요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췌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뱃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부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이나 키를 든 이나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 여기에서는 산대미라 한다 - 퍼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벼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7) 일곱째 마당 : 황덕굿

풍년이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햇곡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흥겹게 노는 마당을 표현했다. 이 마당의 특징은 아무런 형태 없이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차례를 올릴 때 축문은 다음과 같고 제관은 좌상이 담당했다.

□ 祝文

維 歲次 癸未年 八月보름 祭官 최선준
 敢昭告于
 江原道 東草市 上道門洞
 雨順風調 時和年豐 五穀豐登 六畜繁盛
 災殃消滅 祝願祈禱 酒果脯醢 明薦歆格
 尙 饗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여타 농요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정적이며 구성된 가락을 지니고 있다. 이 메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창법하고도 유사하지만, 그 그윽하면서도 우렁찬 맛은 여타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인근 사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사이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처녀가 등장하고 명사십리 해당화가 등장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가창자가 자기 스스로 지어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아래 인용한 가사는 농부들이 즐겨 애창했던 가사이기에 나름대로 농부의 애환을 잘 표현한 것으로 짐작하여 적어 본 것이다.

가)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아어주-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뻤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녹수청산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치녀야
속에속잎 절여두고 속에속잎 나를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김매기 소리는 사실 미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 소리를 하게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소리를 한다. 이게 동강소리이다. 물론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도문동에 동강소리는 맥이 끊겼다. 오순석(남·64) 씨도 예전에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확실히 가사와 곡조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인근 양양 상복리에는 아직도 메나리와 동강소리가 전해온다. 다음은 양양 상복리의 현전하는 메나리와 동강소리이다.²⁰⁾

□ 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얇얇한데 질꾸내기 불리아어주게
매여주게 매어나주게 손을세워 매여아어주게
이-히-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아어나
이-히-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룽발이 태워아어주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나쿵쿵 때려아어주게
이-히-

20) 2003년 2월 양양 상복리에서 직접 채록했다. 메나리소리는 『강원의 민요』에서 일부 가사를 보충 인용했다.

□ 동강소리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이-히-
 그게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서 그늘졌지
 이-히-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올령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뗏해일새
 우겨라 우겨

위 양양의 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리진다. 이에 반해 도문동 메나리는 위 밑줄 친 가)에서 보다시피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다. 이에 반해 양양 메나리는 ‘이-히-’ 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 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지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피약별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배미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 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은 오독떼기를 부른다. 속초/양양의 메나리가 강릉의 오독떼기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²¹⁾ 강릉 아래 삼척은 속초/양양처럼 미노리라는 말을 쓴다. 다음은 삼척 지방의 미노리이다.

□ 삼척미노리²²⁾

동해동천 솟는해야 일모서산을 넘어간다
 이-후-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그꽃도또다시 핀나이다
 이-후-
 닭이우네 닭이우네 모시밭골에 닭이우네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거기에누가 닭이드냐 명산군에 임닭이세
이-후-
이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드냐
방실방실 웃는님은 다먹어보고서 해가지오
이-후-
사해중생 농부들아 인간신고 싫어마오
산너머공장 생긴후에 귀중하기가 농사로다
이-후-
소가우네 소가우네 고운넌앞뜰에 소가우우
이-후-

삼척의 미노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 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도문메나리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강등학은 삼척의 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써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파악하였다.²³⁾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별지 악보 참조)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다. 이왕에 농사일을 하면서 불려진 소리이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바닷가 영동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볼진대 바닷가와 관련 있는 구절이 거의 없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길쌈도 하고 닭도 키우고 소가 등장하고 이런 농촌의 풍경이 양양과 삼척의 메나리에는 잘 드러나 있는데 반하여, 속초 도문동의 메나리에는 이런 세밀한 지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 또한 사찰이 많은 도문동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 짐작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후일로 미룬다.

가창방법을 보면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어나주게’를 선창자가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나머지 분들이 부르는 식이다. 농요가 집단요로서 공동체식을 고양하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점에서도 발견이 된다. 함께 하는 노동요로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풍속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21) 장정룡, “삼척 메나리 민요의 특성과 그 이해”, 『江原道 民俗研究』, (서울 : 국학자료원 2002), p.218.

22) 2001년 삼척 지방에서 직접 채록한 자료이다. 가창자 이춘홍(女 · 62).

23) 장정룡, 상계논문, p.218에서 재인용.

4) 끝내는 말

속초시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차츰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옛날부터 뿌리내린 토착민이 많아 지금도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있다. 2002년 이곳에서 필자는 논밭는 소리, 모찌는소리, 김매는소리(메나리), 벼베는소리, 벧단세우는소리, 상도리께질하는소리, 벧가리지우는소리 등 농요뿐만 아니라 아리랑, 어랑타령, 시집살이요, 등계소리, 주머니타령, 담바구타령, 다복녀, 지경다지는소리, 비둘기흥내내는소리, 천자풀이 등 수많은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창자들의 고령화로 앞길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제20회 강원민속예술 축제에 도문동 농요가 속초시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고, 필자 또한 지도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문메나리농요>라는 작품이 탄생했고, 오순석, 최도수 등 훌륭한 소리꾼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주지하다시피 농요다. 농요 속에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그 속에 녹아 있다. 일종의 노동요인 셈인데,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는 등 그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소리를 한다. 메나리 소리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후에 즐겨 불렀던 동강소리를 미처 복원할 수 없었다.

메나리 소리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소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삼척의 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의 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가능한 한 지키려 노력하는데,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곡조를 유심히 들여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양양과 비슷한 점이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

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도문동 메나리 농요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미진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삼척, 양양 등 여타 메나리와의 본격적인 대비고찰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도문동 메나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문메나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속초 도문메나리(논매는 소리)

♩ = 38 실음은 9도아래 3 노래: 김남형, 채보: 김혜정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The tempo is marked as ♩ = 38.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re are several triplet markings (3) and slurs throughout the piece. The lyrics are: 매 여 나 주 게 매 여나 으 에 에 주 게 헤 요 논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매 여 나
주 게
매 여나 으 에 에
주 게 헤
요 논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I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동 창
숫 은 으
해 가 이
반 공
중 에
눈 이 어 아 어 떳 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Korean folk song.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in a single system, all written in treble cle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the notes. The first staff has a '3' above it, indicating a triplet. The lyrics are: 동 창, 숫 은 으, 해 가 이, 반 공, 중 에, 눈 이 어 아 어 떳 다. The music features a mix of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some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triplets.



입장 : 신목과 서낭대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장면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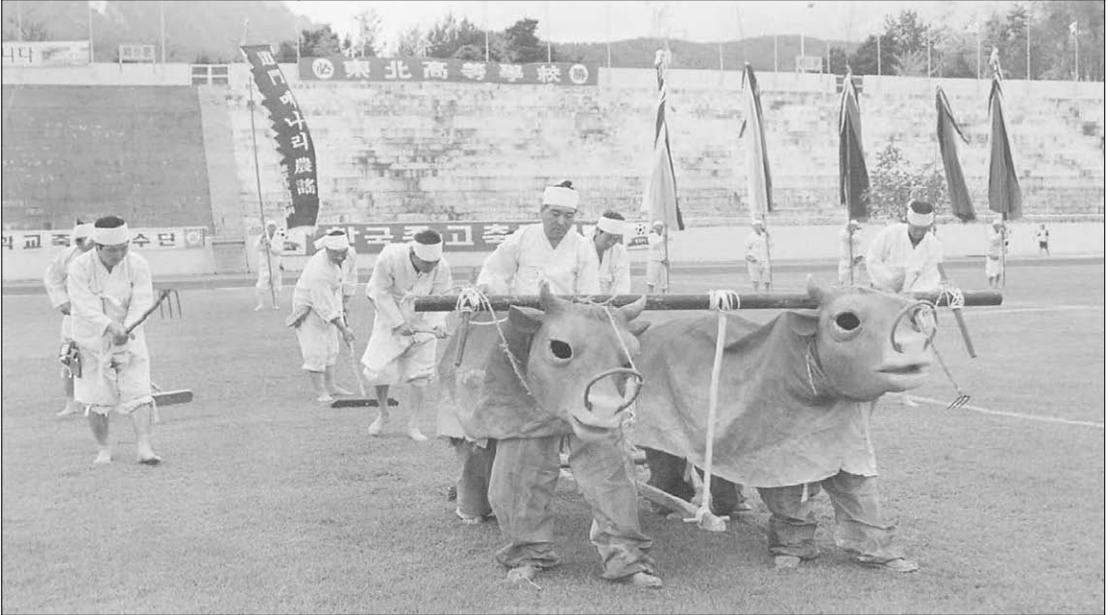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서낭고사 : 신목을 향해 주민들이 모여 절을 하는 장면



서낭고사 : 신목을 향해 마을의 안녕과 소원을 기원하는 장면



논살는 마당 : 한스레를 끌고 가는 장면



모심는 마당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모심는 마당 : 모를 다 심고 나서 한바탕 노는 장면



김매기 마당 : 좌상의 지휘하에 초벌 김을 매는 장면



김매기 마당 : 두벌 김을 메는 장면



김매기 마당 : 세벌 김을 메는 장면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질먹기 마당 : 김을 다 맨 후 삼삼오오 모여서 질을 먹는다



파대치기와 새쫓기 마당 : 파대를 쳐서 새를 쫓는 장면



벼베기 마당 : 벼를 베어서 묶는 장면



벼베기 마당 : 벼가리를 만드는 장면

Ⅱ.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타작 마당 : 도리깨질과 태질을 하는 장면



도문메나리 농요를 열창하는 소리꾼들



황덕굿 마당 : 추수와 탈곡이 끝난 후 마을 잔치를 여는 장면



황덕굿 마당 : 뒤풀이로 출연자들이 모여서 흥을 돋구는 장면

Ⅲ. 속초민요의 실제

1. 문헌 자료
2. 채록 자료
3. 속초민요 악보

1. 문헌자료

속초시의 민요와 관계하여 다음 서적을 참고자료로 조사하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각 편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었던 속초 민요의 특징을 간략히 적어 보았다.

〈참고자료〉

속초시, 『속초시지』, 1991.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장정룡·김무림 공저,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문화방송 편, 『한국민요대전』, 1996.

1)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어업노동요로서 〈지어소리〉는 노젓는 소리고, 〈다리어소리〉는 그물당기는 소리다. 〈가래소리〉는 고기 퍼 올리는 소리고 〈베끼소리〉는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어업노동요 중 일부를 전재한다.

◇ 지어소리

가래밀어 예. 밍니다

어야어야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잘도간다 어이여차

잘도미네 어이여차

앞발은 버티고 어이여차

뒷발은 밀고 어이여차

Ⅲ. 속초민요의 실제

앞당겨서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 제보자 : 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 지어소리

에헤라 저어라 배저어라
에헬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저어라 보자 지어라지어라 음 음
저어라 보자 음음 지어라 간다 음음
손허리 저렇게 배기고 음음
어찌 둘러싸겠니 음음

- 제보자 :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
다리어라 내자꾸나 다리어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

- 제보자 :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다리어소리

다리구내자 다리구내자
다려보자 다려보자
야, 많이 올라온다
다려보자 다려보자
야, 다디기다. 다디기
올라온다 막올라온다
다리구내자 다리구내자

- 제보자 : 전윤이(남·81), 1997.11.28, 장사동

◇ 다리어소리

에야 어야 어허야
 에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어야
 잘도하네 어야 잘도하네 어야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제보자 : 김봉준(남 · 67), 1997.3.20, 장사동

◇ 가래소리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니잘나고	에라선 가래로구나
내잘나도 소용없잖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르게되면	에라선 가래로구나
한배 만선해실고	에라선 가래로구나
우리고향 들어가면은	에라선 가래로구나
얼매나 기본 좋고 명이나느냐	에라선 가래로구나

- 제보자 : 신재덕(남 · 81), 1994.11.3, 동명동

◇ 가래소리

에라술 가래라술	
얼씨구 좋다	에라술 가래라술
밥끓드니	에라술 가래라술
성황님이	에라술 가래라술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술 가래라술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술 가래라술

- 제보자 : 강양수(남 · 70), 1994.11.2, 장사동

◇ 가래소리

가래가래라 가래라로구나	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누구의 가랠까	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이도령 가래요	에이야 가래라소

Ⅲ. 속초민요의 실제

두 번째 가래는 춘향의 가래 에이야 가래라소
산천초목이 울릴 때까지 에이야 가래라소
슬퍼말게 슬퍼말아 에이야 가래라소
늪어진다고 슬퍼말게 에이야 가래라소
- 제보자 : 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 베끼소리

벗겨라 보자 벗겨라
벧기어라 보자꾸나 벗겨라 벧기어라 보자꾸나
니가내가 잘하든 벧기어라 보자꾸나
내가너가 잘하든 벗기고 벗기고나 보자꾸나
저손질이 저리구 벧기어라 보자꾸나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벧기어라 보자
들어쳐라 몰아쳐 벧기어라 보자
벗기고 벗기고자 보자
- 제보자 : 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 베끼소리

어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벧기어라 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슬렁슬렁 벗기자고 에라 벗기고 보자
이말저말 하지말고 에라 벗기고 보자
이등칸에서 들어내라 에라 벗기고 보자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
- 제보자 :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 산대소리

에헤 산자 에헤 산자
에헤라 산자 에헤 산자
에 넘어라 한마디 하자 에헤 산자
에헤 산자 에헤 산자

에 넘어라 오늘어디에헤 산자
 어헤 산자 에헤 산자
 올려라 올려라 에헤 산자
 에이야 사이다

- 제보자 : 김현태(남 · 67), 1994.11.3, 대포동

2)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이 책에서는 속초의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노동요로서 해안가에서는 어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농업노동요, 토목노동요, 임업노동요, 길쌈노동요가 조사되었다.

속초의 어업노동요에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당기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른 <베끼소리>,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새롭게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재래식 이동기구인 든대로 일을 하며 부르는 <든대질소리>도 전한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을 넣기 때문인 것 같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푸면서 부른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는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소리>라고도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농업노동요는 <메나리소리>, <논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벼베는소리>, <나부야소리>, <이랴소리> 등이 있다. 도문동의 김남형(남 · 73), 오대환(남 · 54), 노학동의 김병철(남 · 74) 등이 불러주었다.

토목노동요는 대포동의 허삼용(남 · 77), 홍종덕(남 · 70)이 부른 <지정소리>가 조사되었다. 이 소리는 <지지미>라고도 하고, '지자야'라는 후렴을 붙였다. 임업노동요로 <목도소리>가 있고, 길쌈노동요로 <베짜는소리>가 있다.

의식요는 노동요에 비해 많지 않았다. <운상소리>, <달구소리>, <회심곡> 등이 조사되었고, 유희요로 <가갸겨겨소리>, <곱새치기소리>, <각설이타령>, <다북녀>, <비둘기> 등이 조사되었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든대소리(배 진수하는 소리)

자 자, 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
자 자,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항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 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나 가구 동네술집은 낮에나 가자

◇ 가래소리(고기 퍼담는 소리)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니잘나고 내잘나도 소용없잖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똑같이 들어서 당겨다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렇게 되면은	에라소 가래로구나
한 배 만선 해서 신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고향 들어가면은	에라소 가래로구나
얼매나 기분 좋고 명이나느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내하는 소리는 다같이 맞춰	에라소 가래로구나
숨씨 많이 당겨주오	에라소 가래로구나
에라소 에라소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산대 저산대 다걸어 실었네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뱃짐이 들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물이 한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에 들어서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죽서루나 구경가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하면 죽서루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석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청간정을 지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에 들어가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구경이나 가보세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이 좋을시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동해끼고 솟은산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구름같이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천하명산이 그아니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앞바다에 들어서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리저리 땡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있이지고 꽃이핀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 논매는소리(도문메나리)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다함께 논김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을 입고 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동해나 동창에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뻘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되었으니
 지루한 점심때를 몹시도 기다렸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심심하고 암암한데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때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나가네
저어나간다 말만에말고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잘도하네 잘도하네 총각대방 잘도하네

- 제보자 : 김남형(남·73), 도문동

◇ 모찌는소리

얼렁얼 하더니 또 한춤이라
나도 그저 또 한춤 나간다
얼렁얼 하더니 나도 또 한춤이라

- 제보자 : 김남형(남·73), 도문동

◇ 벼뭉는소리(한단 소리)

한 줌 두 줌 석 줌 하니 또 한 단이라
나도 마쳐 또 한단 묶어뵈다
얼른 하더니 아흐 한 단 나가네
얼른 하더니 아흐 또 한 단 나가네
얼른 하더니 또 한 단 묶었다
니 한 단 뵈으면 나도 한 단 베었다
얼른 하더니 아흐 나도 한 단 묶었다
얼른 똑딱하더니 나 또 한 단 나간다

- 제보자 : 김남형(남·73), 도문동

◇ 이랴소리(소모는 소리)

이러 이러 디어 디어 / 이러 이러 올라서라
어디어 우측으로 돌아라 / 이러 어서 가자
일넉서산 해는 지는데 /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가자 이 소야 / 이리이러 이러 가자
야 이늬의 소야 빨리 가자 / 해는 다 저간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허영차소리(목도 소리)

자재여 어기정 어기정차 어기정 어기저라
저기 가는 저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우나 삼게
어기저야 이여차 어라
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녘 달 돛는다
어기저야 이여차 어라

◇ 베짜는 소리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어 잉에 걸어
딸각딸각 짜듯하니 대문밖에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쥐고 두손으로 펴어보니
부모죽은 편지로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서
비네(비너) 빼서 땅꽃고 또 한 모퉁이 돌아가서
머리 풀어 산발하고 또 한 모퉁이 돌아가서
부모죽은 지불 땅에 내가왔네 내가왔네
부모죽은 부모얼굴 다시 보자니 이에 이년
오랄 적에 왜 못오고 이제와서 어찌하나
- 제보자 : 고성녀(여·80), 설악동

◇ 운상소리

에호 에헤호 어이갈까 어이갈까
에호 에헤호 북망산천 어이갈까
저승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에호 에헤호 어이갈까 어이갈까

◇ 덜구소리

에헤루 덜구야 에헤루 덜구야
이산을 써서 삼 년 만이면 에헤루 덜구야
아들이 나면 효자가 되고 에헤루 덜구야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에헤루 덜구야

◇ 가가거겨소리(한글뒤틀이 소리)

기역 니은 디근 리을 기억자로야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자더니 인연이 지중치 못하구나
 가이기가 거이겨하니 가이없는 이내 몸 그지 없이 되었구나
 고이기로 구이교하니 고생하던 우리 낭군 구원하기가 짝이 없네
 나니야 너냐하니 나귀등에 솔질하여 조선팔도를 유람하자
 노니요 누니요하니 노세노세 째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리라
 라리아 러료하니 날아가는 원양새 널과 날과 짝을 짓자
 로리요 루료하니 노류장화 이게 유지 처처마다 있건만
 마미야 모묘하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한양낭군이 모지도다
 바비야 버벼하니 밥을 먹다가 넘생각 목이 메어 못먹겠네
 보비여 부부하니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을 보고지고
 라리요 러료하니 날아가는 원양새야 널과 날과 짝을 짓자
 - 제보자 : 김병철(남·76), 노학동

◇ 곱세치기소리(노름하는소리)

일자도 모르는게 판무식 이북단천은 행정고
 삼을삼을 엮은님 여기저기 가다가 남행리에 정들이지 말어
 오를으를 오진보 오기요 밤중오신 손님
 팔세를 말고 천대를 말아라
 그대불림 잘못났소 내불림 정불림이라
 - 제보자 : 김병철(남·76), 노학동

◇ 숫자풀이소리(각설이타령)

열씨구 씨고씨고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일장호서야 물떠놔라 적은 각시가 내려온다
 푸움 폼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이자나 한 자 들고보오
 이나침침 야순밤에 밤중 셋별이 완연했네
 푸움 폼바라 정종다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삼자나 한 자 들고보오
 삼동구리 늦춧대에 제상밑으로 들어갔네
 푸움 폼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사 자나 한 자 들고보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사대행차 떠났네 점심참이가 늦어오네
푸움 품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오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오색가지 베를 모아 공기단으로 돛을 달고
맑은 날 선들분다 유월정창 더운 날에 별살보기가 늦어온다
푸움 품바라 각설아 거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육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육지장지 대장지 대공사신 들어갈 제 노천조천 찾아간다
푸움 품바라 정종다 거덜거리고나 들어간다
칠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칠년 대한 왕가뭉에 정제시마 떨어지네
푸움 품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팔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우리야 행차 팔행자 너거행자 칠행자 한 서당에 글 배워도
제사금자가 늦어온다
푸움 품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간다
구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앉아간다 안간장 궁덩이 모자라 못보고
설설긴다 기개장 무릅팍 모자라 못볼래
아가리 크다 대구장 엄청시러워 못볼래
푸움 품바라 각설아 어덜거리고나 들어가자
열 자나 한 자 들고보오
요놈의 각설이 요래도 하룻장만 빠져도 지집 자식을 끌리네
푸움 품바라 각설아

- 제보자 : 임옥순(여·75), 동명동

◇ 다복녀

다복다복 다복네야 해가진데 어디가니
우리엄마 산소가서 젓먹으러 나는간다
산높아서 못갈러라 물깊어서 못갈러라
산높으면 기어가고 물깊으면 헤엄쳐서
우리엄마 산소가서 노랑참외 열렸드라
하나따서 맛을보니 우리엄마 젓맛일새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 어디로 올며가니
우리엄니 무덤가에 젓먹으러 올고가요

물깊어서 못간다오 물깊으면 헤엄치지
 산높아서 못간다오 산높으면 기어가지
 명태줄까 명태싫다 가지줄까 가지싫어
 우리엄마 젓을다오 우리엄마 무덤가에
 기어기어 가서보니 빗갈 좋고 탐스러운
 개똥참외 열렸기에 두손으로 따가지고 먹어보니
 우리엄마 살아생전 먹여주시던 젓맛이요

- 제보자 : 이옥순(여·80), 설악동

◇ 할미꽃

뒷동산에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꽃이 못되어
 허리굽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 비둘기

가는고개 비둘기야 너어디가 자고왔나
 앞을열개 내려달아 금도개비 자는방에
 누에잠을 자고왔다 살기는 좋더라만
 줌이트면 짜리등정 부모그려 못살러라

3)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속초지역은 과거에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농요는 도문동 등 양양과 가까운 곳에 주로 남아있고 설악산 등 산악지방에서는 초동들이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나 핏골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던 노래, 산삼 캐는 <심메소리>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업요는 속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수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

◇ 조양동 지신제 고사소리

국태민안이 범을전 세화연풍이 돌아든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태조 등극할 때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봉황을 놀려 대궐을 짓고	대궐앞엔 육조로다	
삼정승 육판서	오명문이 가감사요	
각도 각읍을 마련할 때	경상도 71주가 대모관이요	
전라도 54관 함경도 34관	강원도 경관이 대모관	
강원도를 들어서서	26관을 마련할 때	
춘천하고도 도계면이요	원주하고도 현감동	
영월하고도 단종대왕	인제하고도 지방도	
양양하고도 속초시	영동시군을 잡아든다	
시로는 속초시	동으로는 조양동이요	양씨가정을 잡아든다
상남자 서방님	중남자 도령님이요	하남자 여자이기
무릎위에 동자매기	무릎밑에 명석아기	구석구석 처자아기
작년신수는 가렸거니와	금년신수를 가려보자	
정월액은	정월대보름으로 막아내고	
이월영동 삼월삼진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팔월한가위 구월구일	
시월중기 십일월동지	십이월그믐 그건 그러하거니와	
온갖 살이 심하다니	살풀이나 하여보자	
물앞 출입하옵시면	두되도 서왕살이요	
물앞 출입하옵시면	서되도 서왕살이요	
고개고개 서왕살	거리거리 서왕살 마당에는 벼락살	
칠십삼만에 성주살이요	일오팔십에 조왕살이요	
아래웃방에는 삼신살이요	도장에는 지식살이요	
사랑에는 걸객살이요	부모자식에는 고생살이요	
형제기간에 의논살	부부기간에는 이별살이요	
치켜나 잡아라 천둥살이요	내려잡아라 기둥살이요	
을지경도 수문장살을	천지백살 다 풀어내니 근들아니 영화로다	
난데없는 봉황이	한나래를 쭉치니 102만석을 점지하고	
또 한 날개를 치니	귀동자 아기를 점지하고	
큰아기가 자라날 때	외 크듯 가지 크듯	
역수장마에 비퍼붓듯	왕대밭에 대손솟듯	
심심산천에 뿔출엷듯	높은산에 구름겉듯 뭉기뭉기 자라나서	
과거보러	한양에 올라갈 때	
어떤배를 잡아타니	씩어져서 못타고	
돌배를 잡아타니	가라앉아 못타고	

흙토산을 잡아타니	풀어져서 못타고
가랑잎배를 잡아타니	바람무서워 못타고
철배를 잡아타니	지남철이 무섭더라
고생고생 무릅쓰고	한양에 당도하니
춘당서를 바라보니	어떤글자 걸렸드냐
강구연월 동문여라	일필휘지를 선정하니
삼시관 받아보니	어허 그글 잘지었다
자자야 마다 구절이요	귀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받아	금의환양하니
양씨가문의 영화로다	

◇ 든대소리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향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리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 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 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 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 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몰렸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Ⅲ. 속초민요의 실제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원산 바닷가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땡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춘삼월 호시절에	앞이피고 꽃이핀다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어라
자- 자- 자- 자-	

◇ 지정다지기

가을철이 얼른되니	저 농부 거동보소
낫자루 꿈무니차고	이리 툇쳐 썩나가니
나갈적엔 빈말이요	돌아올적엔 찬말이라
말마같은 상노놈은	절방을 걸어 저들이고
비오리같은 종년들은	따발이 받쳐 여드리고
앞마당 노적이요	바깥마당도 노적이라
노적가리가 좋을시고	

◇ 도문메나리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주게
다함께 논김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아어지고
시원한 백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나 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 떴다
아침해가 높이 떠서	점심 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늦어가네
점심참이 되었으니	지루한 점심 때를
몹시도 기다렸다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 주게
심심하고 암암한데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때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 지나	명년삼월 다시 피지

4)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속초의 어업노동요는 청호동을 비롯하여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등에서 주로 전승된다. 어업 노동요를 흔히들 뱃소리라고 하는데 청호동의 경우 함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 많은 실정이고,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어로 부르던 것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노노젓는 배가 대부분으로 조업 시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힘들게 고기를 잡을 때 박자와 흥을 맞추고 듣게 하여 주는 소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고생스런 바다 일을 하는 데는 소리꾼의 소리가 씩씩해야 일할 맛이 난다고 한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 ‘허리도리’라 하는데, 힘이 센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어부들이 후렴을 제창하는 형식이다.

◇ 지어소리

행-헤 행-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팔청춘 그립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간다더니 왜 왔던가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올고가더니 왜 왔더니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을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발편 잠이나 자구 가거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가지 만사를 생각하면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오동추야 달 밝은데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님의 생각이 절루 만난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요차보자 지어라 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가자가자 빨리가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수건너 배로 가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배로함께 어서가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조그마한 자라 등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크다하는 저 달을 싣고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우리 고향 언젠가나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화같은 밝은 밤은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Ⅲ. 속초민요의 실제

저 달보고 울지를 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님아님아 정든님아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요내 가슴을 만지어 보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청천 하늘에 별두나 많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꾸나	다리어라 내자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라 내자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라 내자
동지설달 기나긴밤	다리어라 내자
누웠으니 잠이오나	다리어라 내자
앉아있은들 님이오나	다리어라 내자
잠도님도 아니온다	다리어라 내자
배가고파 받은밥은	다리어라 내자
돌도많고 니도많다	다리어라 내자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다리어라 내자
돌가리고 니가리나	다리어라 내자
동지설달 설한풍에	다리어라 내자
손발시러 내뭇살겠네	다리어라 내자
원수로다 원수로다	다리어라 내자
악마금전이 원수로다	다리어라 내자
이내팔자 기박하여	다리어라 내자
이모양이 되었구나	다리어라 내자
동해동산 돌논해는	다리어라 내자
저산으로 일몰하고	다리어라 내자
우리할일 늦어가네	다리어라 내자
꽃같은 고운님을	다리어라 내자
열매같이 맺어놓고	다리어라 내자
가지가지 뺨은정은	다리어라 내자

뿌리같이	깊었구나	다리어라	내자
적설이	자진토록	다리어라	내자
춘소식을	몰랐더니	다리어라	내자
귀용덕이	천봉난이	다리어라	내자
와유생심에	수동요라	다리어라	내자
추야장밤도	길다마는	다리어라	내자
나만혼자	밤이긴가	다리어라	내자
어느시절에	님을만나	다리어라	내자
긴밤을	짧게셀까	다리어라	내자
구구청병	일인호야	다리어라	내자
부산이등실	높이떴다	다리어라	내자
양국에	찾은안개	다리어라	내자
월봉으로	돌아든다	다리어라	내자
오월이라	단오날	다리어라	내자
양류속에	그네매고	다리어라	내자
그네뛰는	요처녀야	다리어라	내자
한번굴러	앞줄높아	다리어라	내자
두번굴러	뒷줄높아	다리어라	내자
삼사번	굴러대니	다리어라	내자
녹수청산	자진토다	다리어라	내자
말없는	청산이요	다리어라	내자
태가없는	유수로다	다리어라	내자
값없는	청풍이요	다리어라	내자
임자없는	이몸이라	다리어라	내자
일락서산	해는지고	다리어라	내자
월출동산	달이떴네	다리어라	내자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잇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가실적에	오마하더니	다리어라	내자
가고나니	그만이구나	다리어라	내자
우리부모	날양할제	다리어라	내자
젖은자리	마른자리	다리어라	내자
이리저리	가려눕혀	다리어라	내자
이런고생	시킬려고	다리어라	내자

Ⅲ. 속초민요의 실제

세살적에	중이나	궤으면	다리어라	내자
이런고상	없을텐데		다리어라	내자
금강산이	좋을시고		다리어라	내자
동해끼고	솟은산이		다리어라	내자
일만이천	봉우리를		다리어라	내자
구름같이	몰렸으나		다리어라	내자
천하명산	그어디냐		다리어라	내자
장안사를	구경하고		다리어라	내자
만경대를	올라가니		다리어라	내자
마의태자	어디갔나		다리어라	내자
보고보고	암만봐도		다리어라	내자
보배인들	배이어라		다리어라	내자
저기가는	저놈봐라		다리어라	내자
나를보면	손을친다		다리어라	내자
손을친데	밤에가고		다리어라	내자
동네술집은	낮에가자		다리어라	내자
잘도하네	잘도하네		다리어라	내자
앞발을	버티고	뒤로	자빠져	다리어라
늪지말고	부쩍부쩍	당겨주네		다리어라

◇ 베끼소리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해는지고	저문날에	베끼어라	보자
고삐없는	소를놓고	베끼어라	보자
그소찾기	망경이다	베끼어라	보자
손흔드는데는	밤에가구	베끼어라	보자
동리술집은	낮에가구	베끼어라	보자
첫날밤에	색시벗기듯	베끼어라	보자
이리저리	베씨어보자	베끼어라	보자
나는좋네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처녀총각이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귀밑머리	치켜들고	베끼어라	보자
입맞추기	나는좋네	베끼어라	보자
어이끼고	내자	베끼어라	보자
잘걸렸네	못걸렸네	베끼어라	보자

명주바지	잘살걸리듯	베끼어라 보자
대추나무	연줄걸리듯	베끼어라 보자
연못안	연당안에	베끼어라 보자
연밥따는	요처녀야	베끼어라 보자
연밥은	내따줄게	베끼어라 보자
내품안에	잠들거라	베끼어라 보자
잠들기는	어렵지않소	베끼어라 보자
연밥따기	늦어간다	베끼어라 보자
얻어먹다	빌어먹다	베끼어라 보자
집이란걸	지어노니	베끼어라 보자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삼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자지향이	황금출이요	베끼어라 보자
개문향이	만복래라	베끼어라 보자
동지선달	긴긴밤에	베끼어라 보자
닭개는	잠자는데	베끼어라 보자
우리팔자	무슨팔자	베끼어라 보자
이런고생을	하느냐	베끼어라 보자
이눔을취면	저눔이나오고	베끼어라 보자
저눔을취면	이눔이나온다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기운을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에	베끼어라 보자
취한술이	절로깰다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이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푸른푸른	봄배추는	베끼어라 보자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베끼어라 보자
옥에간힌	춘향이는	베끼어라 보자
이도령만	기다린다	베끼어라 보자

◇ 산대소리

에라소 가래로구	에라소 가래로구나 퍼실어보자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에라소 가래로구나
지뭇에 젖어 축늘어졌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산대 저산대 다걸어 실었네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뱃짐이 들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몰이 한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에 들어서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죽서루나 구경가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하면 죽서루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석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바다를 떠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청간정을 지나고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에 들어가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구경이나 가보세	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이 좋을시고	에라소 가래로구나
동해끼고 솟은산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구름같이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천하명산이 그아니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앞바다에 들어서서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리저리 땡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아가 동자야 술 부어라	에라소 가래로구나
매일장춘 먹고나 놀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아니먹고 아니쓰면	에라소 가래로구나
왕장군이 고잘래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춘추시절은 적망인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개고층은 낮을 잃었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인간청춘 늙어간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산도설고 물도설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떤사람은 팔자가 좋아	에라소 가래로구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에라소 가래로구나
살림큰애기 안고 노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런 고상을 하는구나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부자리 좋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왕구성 풍세 셋별 요강이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람간장 다 녹인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산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저 멧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뚫린 구멍도 못뚫는다	에라소 가래로구나
세상만사는 무과주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술이나 맥구 놀아보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 산대 저 산대 거두시더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만선이 되어	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를 몰아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항에 입항하여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왕 지나왔던 곳에	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시내나 구경가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골목 저골목 당기다보니	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꽃이진다고 서러워마라	에라소 가래로구나
내년춘삼월에 다시 만나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 든대소리

자-자 자-자	
우리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 다 얼었구나
들어보세 들어보세	우리배를 들어보세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로다
개고충이 녀을 잃었다	산천초목은 짙어가는데
인간청춘 다 늙어간다	어떤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살 높은 집에	살림큰애기 안고 노는데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이런 고상 하는구나
가자가자 어서 가자	보배 건지러 어서가자

5)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6.

◇ 논매는소리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어나간다 말만에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심심하고 암암한데 질꼬내기 불러아어보세
잘도하네 잘도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오늘해도 석양이네 골골마다 그늘아어졌네

◇ 검불날리는소리

(자 또바리 여기다 받쳤어요)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빙글빙글 들어가며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여기부치고 저기부치고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바람세게 부쳐주오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야 또바리가 나왔어요. 예. 또 한 번 넘겨야됩니다)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소리가 맞지 않으면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체가 부서질 듯합니다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다 두 번 또바리 나왔어요. 한 번 더 냉겨야 합니다)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빙글빙글 들어가며 에헤이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에헤이 에호 에호에호 에호에호
(자 세 번째 또바리 나왔습니다. 예)

2. 채록자료

여기에 실린 자료는 2002년 속초지역에서 채록한 것이다. 동별로 순서대로 적는다.

1) 속초시 노학동(蘆鶴洞)

노학동은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의 蘆와 척산리 학사평의 鶴을 따 이름지었다. 면적은 22.26km²이고, 인구는 7,310세대 21,263명, 남자 10,481명, 여자 10,78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며, 주민 대부분이 3차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법정동은 노학동과 청학동(교동 일부 지역 포함) 2개 동이며 45통 240반으로 되어있다. 현재 아파트 증설 및 택지개발로 시의 중심부로 부상하였으며, 속초시내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후기 『읍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노학동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던 것이 그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강점기 때 행정상 노리가 신설되었고 습지대의 개발과 버dings의 개척에 따라 더욱 더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동시에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개 리로 갈라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dings으로 집단 이주해와 신흥리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으로 명명되었다.

노리(蘆里)는 노학동의 중심마을이며 갈골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던 앞버dings 일대가 예전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蘆洞, 蘆洞里, 蘆里로 명명하였다.

응골은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應谷, 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마을이 청대산 두루봉 앞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설과 또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주었다는 설이다.

도리원리(桃李源里)는 노리 동북쪽 둔덕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 하나, 지금 되린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발음의 변화에서 마을 이름이 명명된 듯하다.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두안덕, 뒤란덕, 되란덕이라고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할 때 도리원으로 된 듯하다.

이목리(梨木里)는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로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돌배나무골이라는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 梨木洞, 梨洞, 梨洞里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梨木里로 최종 명명하였다.

척산리(尺山里)는 과거 노리에 속했으나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66년 동제 실시 때 다시 합쳐졌다.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온천으로 유명하다. 척산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 목우재라는 고개와 관련이 있다. 고개, 재가 있는 산이므로 잣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尺山으로 명명하였다. 그 외 농사철 마을 뒷산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다는 설, 마을 뒷산이 마치 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다는 설, 동네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피륙이 마치 산처럼 쌓여 불려졌다는 설, 물난리가 심해 농경지 경계가 불분명해 산에 올라 경계를 정하거나, 가을 농사의 소출을 측정하여 각자의 세곡이나 세물을 결정하던 산을 가리켜 척산이라 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척산리 관내에 척산온천이 있어 관광단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30년대 땅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 온천임이 알려진 후로 1969년 온천수 개발에 성공하였고, 1976년 정부는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1978년 10월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하였다.

학사평은 전통적으로 행정상 독립된 동리를 이루지 못하고 노리에 속하다가, 1942년 이후에는 척산리에 속하였다가 1966년 동제 실시 후 노학동에 속하였다.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 자 대신 ‘학’ 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으로 딱사밭로 통칭 불린다.

신흥리는 5.16 이후 군사정부의 개간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뒷버덩에 새로 일으킨 마을로 자활촌이라 불려졌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를 실시한 후 노학동에 속하였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속초시 노학동 척산리 김주현 님, 2002. 7. 15
김주현 : 남 · 81

김주현 : 남 · 81, 속초시 노학동 42통 2반 / 춘천에서 출생하여 3살 때 학사평으로 이사왔다. 45년 전에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다. 근처에 개량서당에 몇 해간 다니다가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에 1년 정도 가 있었다. 사주, 풍수 등에 밝고,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 하였지만 이날은 감기에 걸려 목이 좋지 않았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조사자 : 이 마을에 유래가 있나요?

김주현 : 저 앞산이 자尺자거든, 자처럼 질게 생겼거든. 노학동은 저 앞에 갈밭이 있었어요. 그 앞에 물이 있거든. 학이 내려와 벌거지(벌레) 주어 먹느라 있었거든. 그래서 노학동이지요.

조사자 : 학교는 다니셨나요?

김주현 : 학교 서당 10년 다녔어요. 선상이 집으로 다니며 한 달씩 돌림차례 하면서 하는 그런 선상(선생)이지 머(뭐). 관립학교는 몇 해 다니다 말았어요. 개량서당이라고 이곳에 있었는데 한 이태 다녔지.

조사자 : 논 삶을 때 소모는 소리하나요?

김주현 : 우리가 소 두 마리 갖고 몰았어요. 스레가 돌이거든, 두 마리가 끌고 다니거든. 마라소가 기운이 세야 되고, 두 마리로 끄는 것을 제리소(겨리)소라 해요. 쪽스레는 하나가 모는 게 쪽스레고 한스레는 둘이 모는 거고.

◇ 소모는소리

김주현 : 이러 이소
어에 이러 이소

◇ 노랫가락

김주현 : 놀아 쫓어만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화려춘풍 올라시 해를쫓던 저두견아
어다공산 어드메도 노래둔절 왜왔느냐
밤에밤중에 너우는소리 겨우든잠 다깨운다.
이리이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어랑타령

김주현 :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가는 소리
 고무공장 단보짐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려언마 디여라 내 사령아

속초시 노학동 노리 이연호 댁, 2002. 7. 20
 차종용 : 여 · 85

예전에 도리원리였던 곳을 찾아갔으나 채록에 실패한 후 다시 노리였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마침 한 주민이 이연호(여 · 75) 댁에 할머니들이 많이 모인다는 정보를 주어 그곳을 찾아가는 도중에 차종용 할머니를 만나 같이 모시고 갔다.

차종용 : 여 · 85, 속초시 노학동 39통 6반 / 부모 때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 남편은 35살에 사망하고 아들 3형제는 한국전쟁 때 사망하여 지금은 이곳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연세에 비해 정정하고 기억력이 비상하였다. 지금도 밤새도록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 박타는소리

차종용 : 시르렁실근 톱질이야	실근실근 톱질이야
아이구 엄니야 당겨주소	시르렁실근 당겨주소
큰자식은 토소리가고	작은자식은 이리로오너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놈의 가난이야
어떤 사람은 팔자좋아	고대광실야 높은집에
부귀나 영화로 잘살건만	요놈팔자 무슨팔자래
박을 따서야 먹고사니	요런팔자가 또어디있나
시르렁 실근 당겨주게	마누라님예 톱소리 좀야 들어보소
톱질을야 하자하니	배가 고파서 못하겠네
이박을야 어서따서	박속을랑 꿰어먹고
바가질랑은 팔어가지고	생맹포를 다려보세
시르렁실근 당겨주게	이박을 따개저든
아무것두야 나오지말고	박한통 나와주소
이띠리리 띠리리	이띠리리 날리 날리이야

Ⅲ. 속초민요의 실제

◇ 토끼화상

차중용 : 토끼여 화상을 그려라 토끼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소
일월선 봉화대²⁴⁾ 봉그리던 환쟁이
난²⁵⁾ 국천자 능허대 일월그리던 환쟁이
동정유리 청황연(靑黃硯) 오징어불러 먹갈어
양두화 덩씩 풀어 이리야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기(승지)간에 경기(경개)보던야 눈 그리고
앵무공작 지저궤제 소래야 듣던 귀그리고
방장봉에²⁶⁾ 운무중에 내잘맞던 코그리고
난초진초(지초) 온갖화초 꽃따먹던야 입그리고
대한엄동 설한에 방풍하던 털그리고
우편은 청산이요 좌편은 녹수로다
녹수청산 깊은곳에 양금주축(조춤) 펄펄뛰던
두귀는 쫓긋쫓긋 두눈은 도래도래
허리는질쑥 쫘지는몽툭 앞발은짜르고 뒷발은길어
깜짝깜짝 잘도뛰다.
아미산을 반유토(아미산월반유추)²⁷⁾ 들에서 더할소나
아니야 뵈다 별주부야 너가지고 나거라(가거라)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띠리리 날리리야

◇ 다복녀

차중용 : 다복다복다복네야 너어두로 올고가니
올어머니 몽진곳에 젓먹으러 올고간다
야야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뒷동산에야 고목낭기 앞이피면 온다더라
산나무 앞이피지 죽은나무도 앞이피나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24) 李謫仙 鳳凰臺 : 중국 당나라 이백이 놀던 봉황대

25) 난 : 鸞은 난새 혹은 봉황새의 일종으로 천자(황제)를 상징하는 동물.

26) 방장봉래(方丈蓬萊) : 신선이 살고 있다던 방장산과 봉래산을 의미함.

27) 蛾眉山月半輪秋 : 李白的 〈蛾眉山月歌〉의 한 詩句로, 三峽으로 가는 도중 蛾眉山的 달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지었다 한다.

살강밑에 삶은팔이 싹이나면 온다더라
 산팔이 싹이나지 삶은 팔도 싹이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부뚜막에 엮은 박이 싹이 나면 온다더라
 산박이 싹이나지 떼겐(떼어낸)박도 싹이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팽풍(병풍)모레 그린닭이 께를치면 온다더라
 산닭이 께를치지 그린닭도 께를치너
 아가아가 울지마라 느어머니 온다더라
 아가아가 울지마라 니가울면 남의눈에서 피눈물난다

◇ 창부타령

차중용 : 인생부두 소년들아 젊었을적에 덕을닭소
 빈객삼천 맹상군두나 죽어지면은 자취없고
 백자천손 광부냥(곽분양)²⁸⁾두야 죽어지면은 허사로다
 영웅인들야 늑지를알고(말고) 호걸인들야 죽잖을까
 여흥(영웅)두나 자랑을 말고 호걸두야 말을 마소
 이세월이 견고할줄 태산같이나 믿었더니
 백년광음 못다가서야 백발되니나 슬프도다
 이내일심야 늑어져서 한구석에야 앉았으니
 오늘 누가나 알아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야 원통하구나 절통하다
 이한몸이 돌아가면 다시오기는 어렵도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새타령

차중용 : 새가새가 날아든다
 온갖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야 문전에 풍년새
 상구꼭심 무인초 우렁비 조물새들이
 농촌화답에 짝을지어 쌍긋쌍긋 날아든다.

28) 곽분양 :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명장 郭子儀. 안록산의 난을 토벌하였고 그의 수많은 전공을 세워 汾陽王으로 봉해짐. 곽분양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

Ⅲ. 속초민요의 실제

말잘하는 앵무새 춤잘추는 학두루미
소태미 수국 앵땡이는 주루루
저쭈구기²⁹⁾ 울음운다 저항조 울음운다
이산에가면 쭈꼭쭈꼭 저산에가도 쭈꼭쭈꼭
좌우로다니며 울음운다
저항조 울음운다 저피꼬리 울음운다
아무데가나 이쁜새 온갖소리를 다하며
바람아 등천 부지마라
추풍낙엽이 떨어져서 명년삼월이 돌아오면
목동의 요지가 니아니나
띠리리리 무엇을 물어다 집을질까
무엇을 물어다 집을제(지어)
건넌산 가리오 능수버들 막교지상에 피꼬리
요리롱 저리롱 좌우로 다니며 울음운다.
띠띠 띠리리

◇ 청춘가

차중용 : 청천 하늘에 잔별두 많고요
요내가슴에는 수심도 많구나
근곤한 세상을 근근히 지내니
불쌍한 이몸이야 괴로이 부는구나

당사실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거는 무엇으로 푸느냐

인생은 일장의 또춘몽하니나
세상만사가 아아 꿈받기로구나

날다려 가려므라 날모셔 가거라
화영낭군이 날다려 가려므나

산이 높아야 골골이 짚지요
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느냐

29) 소쩍새

악마야 부수야 황금만 알았지
 생사람 죽는줄은 왜몰라 주느냐
 우리아버지가 왜나를 낳아가지고
 한고상 못할고상 요렇게 시키나

◇ 시집살이

차중용 :	세살먹어서 어머닐잃고	다섯살먹어서 아버질잃고
	삼오시오야 열다섯살에	시집살이가 웬일인가
	하늘같은 서방님을요	태산같이나 믿었더니
	우연히우연히 병이들어서	대한약방에 약을지어
	풍로화리에 약을때려서	베포수건에 짜가지고
	한손에는 약을들고요	한손으로 고를찢고
	정든님의얼굴이 데다보다가	숨넘어야 간줄을 몰랐구나
	죽는사람도 불쌍치만	산사람도 불쌍하네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청춘과부가 웬일이냐
	얼씨구 얼씨구나 정말두중네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 한글뒷풀이

차중용 : 지역자로 집을짓구나 지긋지긋이 사졌더니
 인연이 지중치못하구나
 가이없는야 이내몸이나 거지없이 되었구나
 고생하던 우리낭군야 구건하기가 짝이없네
 나귀등에나 소질하여서 조선팔도에 유람할까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날어가는야 원앙새야 너와나와나 짝을짓자
 노류화자 인개유지³⁰는 처첩마등에 다있건만
 마재마재나 마졌던남야 당사월이 못가 님생각난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화영낭군이 모지도다
 밥을먹다가 임생각에 목이미어서 못먹겠네
 보고지고야 보고지고 우리낭군을 보고지고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에참이 늦었구나

30) 路柳墻花 人皆可折이 원문. 길가의 버들, 담장의 꽃은 누구나 꺾을 수 있다는 뜻

Ⅲ. 속초민요의 실제

소슬단풍(蕭瑟丹楓)야 찬바람에 울고가는야 저 기러기
한양손님 가거들랑 이내소식 정코가소
아시다덤씩 안손이 인정없이는 떨어졌네
오동복판(梧桐腹板) 거문고를야 세줄늘이듯 타노라니
백학이 하마 제짐작하여 우르우르 춤을춘다
자주종종 만내던 님이 영소식이 무소식
조별낭군³¹⁾도 내낭군인데 편지나 없을소나
차라리어 죽었더면 요런꼴 저런꼴 아니볼꼴
초당안에나 깊이든잠 학의소리에 놀라깨니
그학소리는 간데없고 들리나니나 물소릴세
타도타도 뭉타도하니 어느누길 바래 여기왔네
토지지신이 감동하여서 임보게나 도와줍소
펴요펴요 보고싶어요 임이나하영 보고싶어요
폭포수야 흐르는물에 풍기덩실 빠졌더면 요런고통을 안당할걸
화영낭군도 내낭군인데 소식조차나 돈절할까
호협하게나 먹었던 맘이 당사월이못가 임생각나네
여원과천 기내실(지나는)길에 가는풀잎이 웬일이냐
얼씨구 얼씨구나 정말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 아리랑

차종용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야 두고서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야 두고서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당사실로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거는 뭐로 푸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1) 早別郎君 : 이른 아침에 이별한 낭군

남포야 등잔아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굴(얼굴)이
 본것이 화근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들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나물캐는소리

차종용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와다시 넘겨나주게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야 고개나 자축을 와다시 넘겨주게

삼팔령 이남은야 왜갈려나(갈라)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날 넘겨나주게

무정한여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
 임이그리워 죽은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나고개를 날 넘겨주소

아들팔을여 만나고야 삼재불공을야 말고
 딸같은야 여자를야 팔세를 마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를 잘두 넘어간다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아린아리랑 스리야스리랑 아라리가 났소

Ⅲ. 속초민요의 실제

아리아리랑 고개나 자축을 나를 넘겨주게

산이나여 높아야지 골골이나 짚지
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마나 깊너
아린아리랑 스리스리랑 심에나 나무는
매디매디야 꺾어두나 꽃만피네

우리나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없어서 이곳에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로 와다시 넘겨주게

참나물여 즈내기³²⁾여 쓸어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린아리랑 고개나고개를 나를 넘겨주게

갈철인지야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귀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나 언제 또 넘어보나

◇ 윙그리 땡그리³³⁾

차중용 : 윙그리 땡그리
죄가 재축
오리 고이기
먹으나 못먹으나
죄가 때꿈

윙그리 땡그리
삼사 퐁개 망개
참나물 등거리
고등어 짝지
죄가 때꿈

32) 산나물의 일종

33) 이 소리는 다리를 뺏어 놓고 다리를 하나씩 치면서 하는 소리다.

◇ 화두풀이

차중용 : 정월이라 드는정은 이월매조로 막아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쌀(흑싸리)로 해쳐놓고
 오월난초에 노딘나비는 유월목단에 춤을추니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서 팔월명월을 쳐다보네(쳐다보네)
 구월국화 피는꽃이야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이불려도 그대생각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이날려도 그대생각
 이리생각 저리생각 생각끝에 한숨이오
 한숨끝에는 눈물이라 눈물은흘러 엇깔을담고
 한숨은깊어 동남풍되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겠오

◇ 노랫가락

차중용 : 화락춘성 만화방천 때는좋다구 벗님네야
 죽장집고야 마혜(망혜)신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폭포두나 참이종구나 명산경기(경개)가 여기로다

 비유직하야 삼천척을 옛말아니 들었더니
 의식은 화락구천이요 과년홍년이 아니로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하겠네

 꽃은꺾어서 머리에꽂고 잎은뜯어서 입에다물고
 산에올라서 들구경하니 가는행인이 길뚫간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나 노지는 못하겠네

 뒷동산에 고목나무는 내속과같이도 썩는구나
 겹이썩어야 남이야알지요 속이썩으니 누가아나
 요내속 썩는줄 어느누가나 알려줄까

 옥분에 매화를심어 거리노중에 던졌더니
 굵은비 찬바람을 마질(맛을)때루나 맞았구나
 박쥐가 나빈체하고 꽃을보고서 앓을까말까

 변치를마오 양인의 청을랑 변치마오
 남모르게 깊이든정 새벽쌈(싸움)인들 당할소냐
 우리가 피차에 남북간 살어도 불변심석자 잊지마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유자도 나무련마는 한가지에 둘씩셋씩
광풍이 건득붙어서 떨어질줄을 왜모르나
우리도 언제 좋은이 만나 유자와같이

푸른바다 한가운데 뿌리없는 나무갈소
가지는 열두가지요 잎은 피어서 삼백예순
그나무 열매가 열어 일월이라고 하오니다.

하늘천 따지자하니 집우자로나 집을짓고
거칠흥 께바지에다 달월자로나 달을놓고
밤중면 입을모시고 별진잘숙

◇ 평서방

차중용 : 꺾꺾꺾 꺾꺾방 자네집이 어디니
이산넘고 저산넘어 덩불밑이 내집일세

◇ 각시방에 불켜라

차중용 :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 권주가

차중용 :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이술한잔 들으시면은 천년두살고요 만년도사오

◇ 어랑타령

차중용 :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짜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우리나여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등등 안어등등 나를길러 쫓건만
어허야더야 어허야간다 나는도려만(돌아만) 가노라

간데여 쪽쪽에 정들어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 좋네 사령사령이로다

고향은여 정절어 타향이나야 되고야
 타향은야 정절어 내고향이나 되는구나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 똥똥 내사령이로다

아들야 딸을 못나서 삼재야 불공을 말고
 날같은 여자를 니가야 팔세를 말아라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배추건달이 되었네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야 잃고서
 십오야 지등을 니가야 안고 도느냐
 어허야더야 어허야 어허야 좋다 사령사령이로다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열매나 깊느냐
 어허야어야 어허야 어허야 좋다 내사령이로다

우리어머니여 올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골라) 키웠건만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내사령이로다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계다 믿고서
 소방산 대뜰에 누워서 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타령에 다팔아먹고 배추건달이 되었네

철러덩철러덩철러덩 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잔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어허야간다 에헤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산천이여 파릇파릇야 가시던 님이
 백사정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어야더야 에헤야 어허야간다 경기경성을 가노라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복남아 울지마라 ³⁴⁾

차중용 : 복남아 울지말고 어서자거라
너를업고 배주리는 날도있단다
복남아 우지마라 우지를마라
니가울면 내눈에선 피눈물난다
복남인 등에 얹혀 울고있어요
복남아 우지마라 우지를마라

◇ 부엉새소리

차중용 : (암부엉이는) 부흥 양식없다 부흥
(숫부엉이는) 걱정마라 부흥

◇ 앞니빠진 수망다리

차중용 : 앞니빠진 수망다리 뒷골로 가지마라

◇ 옛장사놀리는소리 ³⁵⁾

차중용 : 원숭이 퐁구멍은 빨강고
옛장사 퐁구멍은 찌덕찌덕
사기장산 사그러지고
옹기장산 오그러지고

◇ 자장가

차중용 : 자장자장
우리애긴 잘도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머리잠도 내려놔라 눈에잠도 내려놔라
우리애긴 잘도자고 남의애긴 못두잔다

34) 이 소리는 차중용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불렀다고 한다. 일종의 창가인 듯하다.

35) 이 소리는 어렸을 적에 불렀던 것으로, 동네에 옛장사나 옹기장사 등이 물건을 팔러오면 뒤따라가며 그 들을 놀리면서 불렀다고 한다.

◇ 등계소리

차중용 : 등등 등등
아침바람에 연초롱
저녁바람에 대추씨

◇ 참새소리

차중용 : 참새야 참새야 오늘똑똑한
캄캄한 골짜기를 나만혼자서
높은산 깊은숲을 무성한곳에
적적한 제집으로 찾아가노라
아니요 여러분 저곳에는
내어머니 내아버지 기다르세요
잠이있는 우리집이 있는곳일새
잘가세요 여러동무 짹짹

◇ 한손에 책보들고

차중용 : 한손에 책보들고 모자를 눈썹까지
붕글러치고 나세니 사나운 곳일세
바람이 불때마다 시꺼먼 옷지락이
바람에 펄펄날릴제 주름이죽죽 제친다
무스위 세상이 무섭다고(무섭다고) 별벌떠는 나귀똥
다부러 다부러 다부러
천하를 한화로에 한바퀴 돌이뜨다.
기러기 떼를만나서 사랑을 받는다.

◇ 할미꽃

차중용 : 뒷동산에 할미꽃
늪에서도 할미꽃 늪에서도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꽃이 되어서
허리굽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 어떤 하날(하늘)에 종이왔나

차종용 : 어떤하날에 종이왔나	어떤하날에 종이왔나
아닌밤중 중일러나	염주를매어서 중일러나
고깔을써서 중일러나	가사를매워서 중일러나
아닌밤중 중일러나	검고도 푸른중생
풀거도야 검은중생	바라를팔러 내려왔너
바라를사오 바라를사오	이바라를야 사고보면
없는자손을 점지하고	있는자손은 수명장수
재수발원도 하오리다	

2) 속초시 대포동(大浦洞)

행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1998년 10월 17일 洞 통폐합으로 기존의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이 합쳐진 곳으로 다른 지역과는 특이하게 어촌, 농촌, 관광지가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이다.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진 대포항 횃집 먹거리촌과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어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洞 전체면적은 65.87km²로 속초 전체면적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93.1%가 국립공원지역이다. 현재 행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대포동, 설악동, 도문동 등 3개의 법정동에 15통 6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현재 인구는 1775세대 5,224명이며, 남자 2,612명 여자 2,612명이다.

법정동으로서의 대포동은 대포리, 내물치리, 외옹치리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포리는 큰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대포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하였다. 독재를 기준으로 하여 대포리를 독재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큰마을, 큰독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포는 일제 강점기 때 상당히 큰 항구로 이 고장의 문호를 담당했다. 1937년 도 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으나 1930년대에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부터 1937년 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졌고, 그 이후 면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대포는 성황제를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3년이나 5년마다 풍어굿을 한다. 여성황당은 봉수터 끝에 있고, 남성황당은 큰길 건너 야산 중턱에 있다. 대포/물치지구는 영북 제1위 어업전진기지로 면적은 371ha이다.

외옹치리(外甕峙里)는 독재(甕峙)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고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외옹치리다. 『여지도서』, 조선후기 『읍지』 등을 보면 조선시대의 행정상 명칭은 웅진리(甕津里)였었다. 그후 일제 강점기에 외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이 마을은 3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전하는데 한국전쟁 전에는 150세대가 살았으나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해안경비대가 위치한 곳에 신라 시대부터 있어온 德山 烽燧가

있다. 외용치의 동제는 성황제, 용왕제, 장승·짐대제 등 3개가 있다. 성황제는 봄, 가을로 길일을 택해 지냈으며 20여 년부터 음력 3월3일과 9월9일로 고정하여 지내고 있다. 용왕제는 3년마다 하는데 음력 9월9일에 한다. 장승·짐대제는 3년마다 가을 성황제 때에 지낸다. 외용치항은 매우 아름다운 절경으로 속초팔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내물치리(內勿淄里) : 쌍천을 사이에 두고 양양군 강현면에도 물치리가 있다. 『여지도서』, 조선후기 『읍지』 등에는 淄자가 緇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행정상 속초시 물치는 勿緇里, 양양군 물치는 勿緇津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속초시 물치를 內勿淄里, 양양군 물치를 勿淄里(‘勿’字가 바뀐)로 바뀌어져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마을 이름은 대해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물이 검으니 이를 향찰식 표기로 검을 치(緇)를 써서 지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암 송시열이 유배 가는 중에 이 마을에서 하룻밤 잠잘 적에 홍수를 만나 ‘물에 잠긴 마을’이란 뜻으로 지어주었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물재(勿齋) 유희일의 아호를 따서 지었다는 설이 있다.

물재 俞晦一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의 사후 사당에 봉사하였고, 그후 사당이 퇴락하자 그곳에 1748년 유허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예조판서 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洪鳳祚가 썼다. 1960년대 새마을 사업 시 유허비는 일출봉횃집 뒤 철길 옆으로 옮겨졌다. 설악산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마을은 1979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고지대로 주민 전체가 이주했으며, 100여 세대에 전씨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집성촌이다. 마을의 성황제는 음력 3월3일과 10월 초하룻날에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고, 몇 해 걸러 한 번씩 풍어제를 지낸다.

내물치에 위치한 설악해맞이 조각공원은 속초팔경의 하나로 1999년 국제관광EXPO 행사를 위해 20,952㎡(약 6,300여 평)으로 확대하여 조성하였다.

속초시 대포동 노인정, 2002. 5. 14
이동백 : 남 · 86

이동백 : 남 · 86, 대포동 2동 3반 / 과거에는 노래를 잘하여 ‘노래 잘하는 이동백’으로 소문이 났지만 최근엔 나이가 들어 노래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간신히 소리해주셨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현재 막내딸이 근처에 살고 있다. 5년 전까지는 조그만 배도 하나 있었으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 뱃일을 하지 않는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사랑가

이동백 : 사령사령 잠든사령이 내사령아
사령이 불같고보면 타는가슴만 오죽타라
가슴만 탈뿐아니라 온몸전신이 다타는구나

◇ 아리랑

이동백 : 정선읍내의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빙글빙글 잘도돌아 가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어데가고선 날안고 돌출몰르나

속초시 대포동 이규옥 씨 덕, 2002. 7. 8
이응숙 : 여·71, 장세월 : 여·79, 이규옥 : 여·77

대포동 노인정을 또 찾아갔으나 채록에 실패했다. 몇 번이나 찾아가 허탕을 치자 그곳에 계시던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70대 할머니들이 모이는 집을 가르쳐주셨다. 이규옥 할머니 집을 찾아갔더니 70대 할머니 몇 분이 모여 놓고 계시다가 선뜻 응해주셨다.

이응숙 : 여·71, 속초시 대포동 3통 1반 / 속초 위 대진이 고향이다. 18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이규옥과는 동서지간이다.

장세월 : 여·79, 속초시 대포동 / 대진에서 북쪽으로 20리쯤 들어가면 재진이란 곳이 있다. 그곳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나와 여기에 정착했고, 이름도 같았다. 농사를 지었고 길쌈은 안 해봤다.

이규옥 : 여·77, 속초시 대포동 / 양양 명지리(어성전 밑)에서 태어나 대포로 16살에 시집왔다. 남편은 농사일도 하고 뱃일도 하다가 20여 년 전 사망했고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이응숙과 동서간으로 이규옥이 큰댁이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나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이 집에 평상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놓고 있다.

◇ 이거리저거리

이응숙 : 이거리 저거리 갖고리
삼지 망근 도망근
짜 바리 호양강

도루메 장치 장두깨
 모개 밭에 작서리
 동 지 선 달
 대서리

◇ 이똥 저똥

장세월 : 이똥 저똥 행길똥
 문둥이아들 곱새 똥

◇ 창부타령

장세월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슬어마라
 언제다시 오실적에 오신다하고 기별하나
 니가 가면은 언제오나
 이월세월 다넘어가고 언제한번 또오시나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화투풀이

이규옥 : 일월송학 속속한마음	이월매지에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졌네
오월난초 나는나비가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는 혼자앉아	팔월공산에 저달밝어
시월단풍에 오신단님이	설달눈비도 안오시나
얼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노랫가락

이규옥 : 송죽같이 굳던 절개 매맞는다구선 허락하나
 뭇은벌어(비록) 기생일망정 절기(절개)나 좋아서 잊을소나
 얼씨구나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세상달강

장세월 :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서울로 가다가 밤한톨 주어서
고무락에 치트리더니
머리깎은 새양쥐가 다파먹고
껍데기만 남았네
니하고 나하고는 껍데기 차지다.

◇ 화투놀이

장세월 : 일월송학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앉았구나
삼월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졌네
오월난초에 나는나비가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는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밤어 좋아
구월이라 굳은절개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네
동짓달에 오신단님이	선달이다가도 오지를않네
일촌간장에 맺은사랑이	도시간으로 이뤄졌네
얼씨구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춘향이(신내리는소리)

이응숙 : 성춘향이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 치야칭칭나네 ³⁶⁾

이규옥 : 치야 칭칭나네	
시내깡변에 돌도많네	치야 칭칭나네
놀아놀아 젊어서놀아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인제가면은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치야 칭칭나네
대문밖에 저승이네	치야 칭칭나네

36) 이 소리는 관광을 가 늘 때면 언제나 마지막에 하는 노래고, 또 산에 가 돌아가신 분을 묻을 때, 묘 달구질 할 때도 쓰는 노래라고 설명을 해주셨다. 후렴은 주위 할머니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었다.

언제오나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먹고나놀자 쓰고나놀자	치야 칭칭나네
언제나 오나 언제오나	치야 칭칭나네
엄마엄마 올엄마야	치야 칭칭나네
인제가면은 언제올라나	치야 칭칭나네
실경밑에 삶은팔이 싹이나면 올라던가	치야 칭칭나네
꽤꽤닭이 꿩치면은 올라던가	치야 칭칭나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치야 칭칭나네
나는간다.	

◇ 어랑타령

이규옥 : 어랑타령 본조종은 함경도 신고산인데
 고무공장 큰아기 벤포밥만 싸노라
 어이야 어야 어이야 어야 더야 얼싸 엄마 둥가 디여라 내사령아

통치마 꼬리다 소주병을 달고요
 오동나무 수풀로 임만찾아 가잖다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가는님 허리를 한아름담뽕 안고요
 내잘못 했으니 십분의용서만 해주소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 권주가

이규옥 : 술은야 술술이 어루화 잘넘어가는데
 찬물에 냉수는 중치만컹컹 미누나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내사령 뚝뚝에서 어떤경칠눔(년의 뜻) 주고요
 사람만 보면은 생짜장만 내누나
 어야어양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놀어라 놀어라 절기가(젊으나)젊어서 놀아라
 나이 많고 병들면 어루화 못노니로다
 어야어야 어허야 어루야 엄마 디여라 내사령만 가노라 (좋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동글레당실

이규옥 : 동글레당실 동글레당실 너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밤소 냇가머리로 갈거나
동글레당실 동글레당실 너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밤소 냇가머리로 갈거나

◇ 권주가

장세월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얼씨구절씨구 기화자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노랫가락

장세월 :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간밤에 꿈이 좋더니 정든님께서 편지가 왔네
편지는 왔다만은 우리님은 못오시나
봉자야 먹을갈어라 님에게다 답장을하자
한자쓰니 눈물이 돌아 두자쓰니 한심이로다
한심은 짚어 동남풍되고 눈물은 흘러서 한강수라
일전간장에 맺은사령이 요시간(식간?)으로 이뤄졌네
얼씨구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뱃노래

이규옥 : 뱃놀이를 갈라면 어두로 갈라나
강릉야 경포대로 뱃노래 가잖다
어허야더허야 어야나더야 어기여차 뱃놀이나 갑시다

술은 술술히 잘넘어 가는데
찬물에 냉수는 중치만 미누라
어이야더이야 어야나더야 어기여차 뱃놀이만 가잖다.

◇ 각설이타령

이규옥 :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얼씨구씨구 잘한다 품바나품바 잘한다
일자나 한장 들고서...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김병국 씨 덕, 2002. 7. 10
김병국 : 남 · 68

동네 분들이 김병국 씨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몇 번이나 허탕을 쳤다. 이날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갔더니 마침 저녁을 드시고 쉬고 계셨다. 피곤할 텐 데도 1시간 가량이나 채록에 응해주셨다.

김병국 : 남 · 68세,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 4대째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다. 젊어서 뱃일도 했고,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 95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이분은 소리를 강릉이나 양양하고 다르게 상당히 부드럽게 부른다.

◇ 모심는소리

김병국 :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나주게

넘어가네 넘어가네 넘어를가네
바다같은 논배미가 넘어를가네

◇ 산대소리

김병국 : 에라소 가래라소 (하게 되면은 매기는 사람이 있다가, 산대로 푸잖아요)
이산대는 서낭님이 봐주는 산대다
에라소 가래라소

◇ 놀배기소리

김병국 : 으샤으샤

김병국 : 가래라소는 여러 사람이 부르고 매기는 사람은 하나가 부르고 했죠. 도루묵 같은 거 많이 낚어요. 그때는 (도루묵은) 고기가 아니어요.

조사자 : 가래라소는 무슨 뜻인가요?

Ⅲ. 속초민요의 실제

김병국 : 산대에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신호인데 퍼 가지고 배에다가 많이 싹잡아요. 내막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고기가 많이 나면은 가래라소라고 하지요.

◇ 든대질소리

김병국 : 자- 아리아
뒤야 뒤야
자- 자

조사자 : 든대질이라고 있지요?

김병국 : 배를 내쿨(내릴) 적에는 '자- 아리아' 라고 매기면 밑에가 힘을 더 쓰라는 얘기고, 배라고 하는 것이 목선이니까 뒤가 덜렁 들리고 앞이 덜렁 안 들리면 안 나가잖습니까? 그때는 '뒤야 뒤야' 하면 '자- 자' 하고 구령을 맞추면 '뒤야-' 하면 뒤에서 힘을 더 써야 발란스가 맞잡아요.

조사자 : 배성주 모시죠?

김병국 : 배에다가 성주를 매게 되면 특별한 것은 없고 제사처럼 다 채려 갖고 가서 그전에 서낭당에 한번 갖다오고(제를 올리고) 배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부락 사람들이 술, 음식 나누고, 깃발(만선기) 많이 달잡습니까? 시운선 한다고 해서 (배에서) 팽과리, 징 두 들기며 놀았어요.

조사자 : 풍어굿도 하는 거죠?

김병국 : 그때는 이 지방에서 다 그래 했어요.

◇ 뱃소리

김병국 :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 가잡다

조사자 : 그때 뱃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병국 : 그때 뱃노래는 '어기여차 뱃놀이 가잡다' 지금 보면,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 가잡다.' 그러면 매기는 사람이 그때 따라 지어서 하지요.

조사자 : 장승이 있지요?

김병국 : 저게(저기에) 장승 두 개가 있는데, 나무는 흔히 부락에서 몇 십 년 묵은 나무를 베어서 만들잡습니까? 흔히 구월구일 전에 날을 받아서 세우고 구월구일 제(祭) 지내고, 봄에 간단하게(3월3일날) 제를 지내고, 옛날에 3월달도 날을 받아서 했는데, 그 전에 하던 어떤 할 아버지 한 분이 3월 삼짇날이 날이 좋으니 그날하자고 해서 그날로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월구일 날 지낼 때는 두사족(頭四足), 옛날엔 소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두사족인데 소 한 마리 꼴이 되잡아요.

조사자 : 소를 말이라고 하죠.

김병국 : 네. 그렇습니다.

조사자 : 장승제 , 풍어제, 서낭제 다른 겁니까?

김병국 : 첫 번째 장승 할 때는 우리가 베었다가 술이나 부어 지내고, 삼 년마다 굿을 하잖습니까?
서낭에서 굿을 해 가지고 장승을 서낭에다 모셔 가지고 서낭님하고 합신해서 굿을 시작합
니다. 굿의 끝머리는 바다에 나가서 용왕굿을 하지요.

조사자 : 용왕굿은 어떻게 하나요?

김병국 : 용왕굿은 무당들이 하는 거니까. 거리 귀신들 밥을 다 먹인다고 해서 바가지에다다 해 넣어
서...

조사자 : 뭐라고 축원하나요?

김병국 : 장승을 모셔놓고 절을 한 다음에, “천하장군님 지하장군님 이 거리를 다니는 동네 부락주민
들 어른 아이고 학생들이고 사고 없이 잘 좀 거들어서 편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조사자 : 무당은 누구입니까?

김병국 : 동네 무당이 있어요. 그분한테 낱짜를 잡아서 무당들은 모아 옵니다.

◇ 소모는소리

김병국 : 이라
가자가자 가자 일어서

김병국 : ‘이라’ 하고 나서 청승스럽게 ‘가자가자 가자 일어서’ 하면서 소를 때리면서 청승스럽게 꾸
미는 거지 일정하게 다른 것이 없어요.

◇ 그물댕기는소리

김병국 : 자 올라온다
자 봐라 푸름하다
자 자리자리
자 잘 물었다
자 봐라 푸름하다 (푸름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지)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뒤에 빨리 와 뺏게 (한사람은 고기를 벗기잖아요)
자 뒤 받아라 받아라
자 댕계
자 푸름하다
자 뒤에 받아
빨리 빨리 받아

김병국 : 명태바리 나가게 되면, 낚시를 댕기게 되면, 그때는 손으로 댕겼잖아요. 댕기게 되면 달래
요. 밑에 환하게 따르죠. ‘푸름하게 논다.’ 하면서 선원들 사기를 도와줘요. 같이 옆에서

Ⅲ. 속초민요의 실제

잡아도 옆의 배는 (고기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봐라 야 푸름하다.' 하면서 옆에 배 사기를 죽이느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야 자리자리 물었다. 야 푸름하다' 고 소리친다. 명태바리는 선장이 있고 기관장, 낚수사공이라고 있다. 낚수사공은 낚수(뉘시)를 낚요. 놓게 되면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낚수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먹죠.

조사자 : 집반이란 뭐죠?

김병국 : 100만원이라면 열씩이면, 선장은 15만원, 낚수사공은 13만원, 선원들은 일할 먹고, 낚수를 놓는 것도 낚수사공 손에 달렸어요. 낚수를 많이(깊이) 놓거나 얇게 놓거나 낚수사공 손에 달렸어요.

조사자 : 밥짓는 사람은 뭐라 하나요?

김병국 : 화쟁이라고 하죠. 명태바리는 밥을 싸들고 가기 때문에 따로 화쟁이가 없어요. 큰 배는 있어요.

조사자 : 화쟁이는 몇 명 두나요?

김병국 : 1명 두죠.

◇ 한단소리(벼베는소리)

김병국 : 얼른얼른 하더니
나도 한 단
나간다. (하면 저기서)
그 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나도 한 단
나간다

김병국 : 베(벼)를 빌 때 이쪽에서 한단 베어 가지고 던지면 저쪽에서 또 베어 던지죠.

조사자 : 그걸 어려서 보신 거죠?

김병국 : 어려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낫으로 베 때 직접 했어요.

조사자 : 도리깨질소리는 있나요?

김병국 :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없어요.

조사자 : 풀각시 갖고 노시는 것 아나요?

김병국 : 나무에다 풀 매 가지고 머리 딸아 가지고, 예전에 처녀들이 하더라구요.

'각시방에 불켜라' 하는 소리 들었어요.

◇ 새야새야.

김병국 :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장사가 올고간다

◇ 고기세는소리

김병국 : 하나요 둘이요 세이요
 넷이라 다섯이라 여섯이 일곱이라
 여덟에 아홉열
 열하나 열둘 열서이라
 열너희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스물

◇ 꿩서방

김병국 : 꿩꿩꿩 꿩서방 자네집이 어딴나
 이산저산 넘어가 덤불밑에 집이었다

◇ 이똥저똥(방귀뀌는아이놀리는소리)

김병국 : 이똥 저똥 앵기 똥
 집의 할미 곱새 똥

-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방귀를 끼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목하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이 방귀를 꾸었다며 놀리곤 했다. 웃자고 하는 소리다.

◇ 앞니빠진수망다리(이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병국 : 앞니빠진 수망다리 뒷골로 가다가
 호박줄에 걸려서 아이구메야 얹어져라.

조사자 : 수망다리란 무슨 뜻인가요?

김병국 : 이빨 사이가 빠졌잖아요. 그것을 수망다리라 하죠.

◇ 세상달강(아이재우는소리)

김병국 : 세상세상
 할멈이 (아이를 두드리면서) 서울로 가다가
 찬밤 한톨 얻어서(얻어서) 짚단속에 열더니(넣더니)
 머리까진 새양쥐가 들랑날랑 다 파먹고
 껌데기는 니가 먹고 알맹이는 우리 손지 먹었다
 자장자장

◇ 저건너 김서방 나무하러가세

김병국 : 영감 배불러 나무 하러 가세
배 아퍼 못가
뭇배 자래배 뭇자래 애미자래
뭇애미 서울애미 뭇서울 탈서울
뭇탈 엔지탈 뭇엔지 코리엔지
뭇코리 생콜 뭇생 하늘색
뭇하늘 청하늘 뭇청 대청
뭇대 왕대 뭇왕 임금왕
뭇임금 나라임금 뭇나라 대나라
뭇대 쌀대 뭇쌀 보리쌀
뭇보리 가을보리 뭇갈 떡갈
뭇떡 개떡 뭇개 사냥개
뭇색 장색 뭇장 장꿍
뭇장 강릉읍내장

◇ 가가거겨하니

김병국 : 가가 가다가 거겨 거기서
고교 고기잡아 구구 국끓여서
나냐 나도먹고 너너 너도먹고
다다 다먹었다 더더 더먹을래

3) 속초시 도문동(道門洞)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가 있었고 도문면의 중심지였다. 그러다가 1914년 3월 1일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서 오늘날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道川面)이 되었고, 이때 행정상 중도문리(中道門里)가 신설되면서 행정의 중심이 대포항으로 옮겨갔었다.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 도문동이 되었다.

1926년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인구는 1119호 6,219명으로 남자 3,240명, 여자 2,979명이었다. 당시 991호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어업도 217호나 되었고. 소도 776마리나 사육되었

다. 창동산업계(契)가 있었는데, 1927년에는 대포에 금융조합과 어업조합이 생겨날 정도로 금융이 일찍 발달하였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신라 때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 하여 道門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道間이라고 하던 것이 道門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중도문리 출신 이석범은 쌍천학교를 세웠고 1919년 3·1운동 시 도천면에서 4월 5일과 6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상도문1리에 있는 鶴舞亭(일명 육모정)은 속초팔경의 하나로 쌍천 시냇가 송림 속에 위치해 있다. 매곡처사 오윤환이 1934년 건립했는데 정자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고 부른다. 남쪽에 鶴舞亭, 북쪽에 永慕齋, 북동쪽에 仁智堂 남서쪽에 敬義齋이란 편액이 걸려 있고, 정자 안쪽으로 한시를 적은 현판이 13개나 걸려있고, 천장 중앙에 龍자가 적혀있으며, 6면 모두 분합문을 단 흔적이 남아있다. 중도문리 쌍천 냇가에는 벼락바위가 있다. 벼락을 맞아 갈라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벼락바위라 불린다. 도문동은 옛날 가옥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 도문1리 김중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하도문리 김근수 가옥은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속초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동명동에 세워진 충훈탑이 1987년 도문동 신문덕으로 이전해왔다.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덕, 2002. 4. 27

김정수 : 여·75, 최춘옥 : 여·80

박순자 : 여·77, 정영춘 : 여·75

김정수 할머니 덕을 찾아갔더니 동네 할머니 분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계셨다. 소리는 못하신다고 손사래를 치시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몇 곡 응해주시자 다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 하셨고, 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다. 오후 5시가 지나자 저마다 집에 가야 한다면서 일어나시어 더 이상 녹음을 할 수 없었다.

김정수 : 여·75, 도문동 5통 3반 / 인제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때 속초시 도문동에 큰덕이 있어서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가 그해 24살 때 도문동으로 시집을 와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슬

Ⅲ. 속초민요의 실제

하에 4남매를 두었다. 시조부가 매곡처사 오윤환으로 속초의 팔경 중의 하나인 학무정을 세운 분으로 유명하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오윤환의 2대조되시는 분이 사 갖고 와 정착한 집이라 한다. 처마 끝에는 매곡고장(梅谷古庄)이란 현판이 아직도 달려 있는 고택이었다.

최춘옥 : 여 · 80, 도문동 5통 1반 / 도문동 토박이로 매곡처사 오윤환의 외손녀이다. 19세에 시집을 가 2남 4녀를 두었는데 현재 동갑인 남편과 같이 예전 친정부모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박순자 : 여 · 77, 도문동 5통3반 / 도문동 토박이로 시집도 이곳이다. 살면서 잠시 속초 시내에 나가 살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정영춘 : 여 · 75. 도문동 5통 3반 / 속초시 척산리가 고향이다. 이곳에 시집을 와 여태까지 살고 있다.

◇ 재짱개짱

김정수 : 재짱 개짱
 소수레 녅장
 콩죽 팔죽
 얼어 먹었니
 못얼어 먹었니
 사 마
 지 콩

조사자 : 이 소리는 뭐 하며 부르는 소리인가요?

김정수 :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놀 때 같이 마주 앉아서 다리를 서로 집어넣고 하나씩 다리를 치면서 소리를 해요. 당침이 되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양반, 나중에 나오면 상놈 그러면서 놀았지 뭐.

조사자 : 무슨 뜻이 있나요?

김정수 :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쪽 다리 하나씩 치면서 했다.

◇ 등게소리

김정수 : 등 등등 등기야
 먹으나 굶으나 등기야
 입으나 벗으나 등기야
 등등 등등등
 우리집에 화목동이야
 건너집에 무신동이야
 등등 등기야

◇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오네 사촌형님 오네
 형님마중 누가가나 형님동상 내가가지
 형님 모셔놓고 형님반찬 무엇을할까
 앵두같은 팔을샅고 외씨같은 전니밥에
 앞집에가 목기닷죽 뒷집에가 사기닷죽
 닷죽닷죽 열닷죽이면 형님반찬 될까

조사자 : 닷죽은 무슨 뜻인가요?

김정수 : 닷죽은 50개다. 한 죽은 10개다. 사기 닷 죽은 사기그릇이 닷 죽이고, 목기 닷 죽은 목기가 닷 죽이란 뜻이지.

◇ 아리랑

김정수 : 정선읍내 물레방아 궁글대는 해풍산이 삼십육경 서른여섯바쿠
 물살안고 빙글뱅글 잘돌아가는데
 시누작네 맞자부야 날안고 왜 못돌아가느냐

조사자 : 이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김정수 : 이 노래는 친정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지.

조사자 : 궁글대는 뭐지요?

김정수 : 물레방아 돌아가는 살을 궁글대라고 해요.

◇ 자장가

최춘옥 :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조끔만 더자면 엄마가온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너무 우리아기 잘도잔다
 (잠시 쉬었다가)
 멍멍개야 짖지마라

Ⅲ. 속초민요의 실제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님, 2002. 5. 18

박계랑 : 여 · 80

속초시 도문동 슈퍼마켓에서 옛날소리 잘하시는 분을 물으니 이분을 소개해주셨다. 찾아갔더니 할머니 여러 분들이 모여 답소를 즐기고 계시다가 선뜻 소리를 응해주셨다.

박계랑 : 여 · 80, 도문동 / 속초시 도문동 토박이다. 생전에 친정 부모가 2녀를 두었는데, 본인이 둘째였다.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마침 남편도 막내여서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친정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슬하에 아들(61세) 하나를 보았고, 며느리가 손자도 없이 먼저 유명을 달리 하는 관계로 지금은 아들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그대로 따라 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였고, 장구도 잘 쳤는데 며느리가 죽은 이후 기억력이 옛날만 못하다고 슬퍼하셨다.

◇ 한오백년

박계랑 :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압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아무려면 그렇고 그렇구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한많은 이세상에 야속한님아
정을두고 몸만가니 눈물이나네
아무려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 에라만소

박계랑 : 서울집자 광주땅에
서울집자 광주땅에
밑대같은 내오래비
어수해(어사화)를 숙여쓰고
세멘춤(세면장고춤)도 잘도춘다.
우리나 부모님 살았더라면
저런귀경(구경) 하시련만은
우리남매 살았다가
귀한귀경(구경) 보는구나

에라만소

삼천장 베레또래(버릇돌에)
 일천장 먹을갈어
 부모님의화상 그레(그려)놓고 보자하니
 눈물지어 못보겠네
 아강아강(아가아가) 그말마라
 찬냉수에 목이 맨다.
 에라만소 대신이야

서울이라 치켜달려 서울이라 치켜달려
 나무집이 어디없소 꾀비고사리 집을짓고
 난초잎을 대문달고 양지쪽에 금자리깔고
 저문앞에 국화꽃을 한짐 뜰뽕쥐고
 아장아장 들러나오는 아가씨 저거동보소
 은을주면 내가살까 금을주면 내가살까
 금도싫고 은도싫고 백년채분 나를주게

박계량 : 옛날 오빠가 과거해 가지고 내려왔대.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쓴다고 하잖아. 과거 해 가지고 내려올 때 쓰는 거라구만. 이게 다 옛날 뜻이 깊은 소리지요. 에라만소 하면 모두다 좋아하였어.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쓰고 나를 데리고 세면장구 들어 매고 여러 나졸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나. 뜻이 깊은 노래다.

조사자 : 이 소리는 언제 부르셨나요?

박계량 : 처녀 적에 가만히 듣고 배웠다.

조사자 : 언제 시집을 가셨나요?

박계량 :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조사자 : 시집가기 전에도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박계량 : 그럼요. 그때 에라만소 소리를 하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조사자 : 그때 하던 다른 소리를 좀 해 주세요.

박계량 : 이것도 에라만소야. 에라만소는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돼.

◇ 강물은 돌고돌아

박계량 :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어 하라 어디로가나
 요요 사포 능라도 벼들속에 봄비가 온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나물캐는 노래

박계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 주게
역수장마 할라른가 저산밧이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박계랑 : 옛날 처녀 적에 저 산(주봉산)에 나물 캐러 갈 때는 늘어진 것을 하여야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아니 들어.

◇ 한오백년

박계랑 :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쭉어만 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쭉어질 못하고
노류야 대빠리야 왜 달개드냐(달려드냐)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노

박계랑 :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하다가 슬픈 사람은 눈물이 나서 울며 올라가고 좋은 사람은 소리하고 그렇지 뭐. 짧은 소리는 숨이 차서 급해서 못해.

조사자 : 발 밟 때는 어 떤 소리를 하시나요?

박계랑 : 모 심굴(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소리하라고 하니깐 하지만 발 밟 때는 혼자 하는데 소리 언제 하겠어요?

◇ 권주가

박계랑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을 사신다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세만세를 사실터이니
술이 아니라 먹고노자는 백화주요
이리놓아라 저리놓아라 열이고죽어도 나는못놓겠네

◇ 꿩서방

박계랑 : 꿩꿩꿩 꿩서방 자네네 집에 어딴나(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덩불밧이 내집이지

◇ 돈타령

박계량 : 에라만소
 돈나온다 돈나온다
 잘난사람은 못난돈 못난사람은 잘난돈
 만국통화가 오십전 십전이전 고리동전이 다있어도
 각중에 무일푼하니 장부한심이 무한심하구나
 에라만소

박계량 : 이게 어릴 적에 오빠들이 하더라구. 왜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이라고 하나, 돈을 흔하게 쓰다가 돈을 다 써 없어지니 장부한심이 무한심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놀지. 이게 술집에서 기상(기생)들 놀리는 노래래.

◇ 뚜두기소리

박계량 : 앞산에 뚜두기는 뚜둑뚜둑
 뒤산의 빼꾸기는 빼빼국 운다
 고래명당 열어서서 잠을자니 그방치사(치장) 어떻더냐
 앞문에단 용그리고 뒷문에단 황그렸소
 그집옆에 무엇을 심었더냐
 줄국화를 심었더라
 그줄국화속에 무엇이 있더냐
 팔십먹은 노인이 갈강냇을 뽁뽁갈어
 지게동테기 달아지고
 앞동산에 높은데 우물구물 기울라가서
 낙락장송 늘어진가지
 툇툇찍어 한짐듬뿍 짊어놓고
 짊어 소시절에 아들딸 못난것이 한이로구나
 에라만소

박계량 : 그게 얼마나 슬퍼서 아들 딸 못난 것이 한이 되겠소?

조사자 : 뚜두기는 뭔가요?

박계량 : 뚜두기는 시방 비둘기를 가지고 뚜두기라 해요.

조사자 : 줄국화가 뭐지요?

박계량 : 화초가 줄국화이던데, 백일홍 같은 것이 줄국화 아닌가. 나는 이 노래를 해도 사실 잘몰라

조사자 : 갈강냇은요?

박계량 : 꿀 비는 냇을 갈강냇이라고 해. 앞산이든 뒷산이든 뚜둑이든 빼국이든 맘 대로 해도 돼, 앞 문에는 청룡이고 뒷문에는 황룡을 그렸다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나무, 검불 하러 갈 때 무슨 소리하나요?

박계랑 : 별 소리 없어. 그저 늘어진 소리를 해.

◇ 검불하는소리

박계랑 :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주게

◇ 등계소리

박계랑 : 동동동동 동동동 내손주야

은을주면 너를살까 금을주면 너를살까

동동동동 집안안의 화목동이야

등계동동 동동동기야

부모님앞의 효자동이야

동동동동 동기동동

나라님 앞의 충신동이야

동동동동 동동동기

너는 무신의 권한으로

할머이 할아버이 손끝에 놓고 ...

박계랑 : 예전에 젓 먹여놓으면 할머니들이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하더라. 우리야 일 하러 나갔지뎐.
문서가 많더라구 그런데 우습게 들어서 ... 다 몰라.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님, 2002. 5. 26

박계랑 : 여 · 80, 김정수 : 여 · 75, 김종필 : 남 · 60

박계랑 할머니 님을 다시 찾아갔더니 일요일이어서 아들과 함께 있었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 저번에 왔던 사람임을 알아보고 또 그때 했던 말들도 기억하셨다. 그 동안 담바구타령을 제대로 기억해 내었다고 하시면서 즐거이 채록에 응해주었다. 채록하는 동안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으셨다. 한참 하시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유식한 소리를 잘 한다며 김정수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 불러주셨다.

김종필 : 남 · 60, 박계랑 할머니의 아들.

◇ 담바구 타령

박계량 :	구야구야 담바구야	너메국이 어떻길래
	우리의국도 좋거니와	대한의민국으로 유람올제
	돈도없구 운도없어	담바구씨를 갖고왔지
	저기 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뿌렸더니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낮이면은 태양을받아
	곱게곱게 길러서	
	천하비수 드는칼로	와싹와싹비어서
	영감의쌈지도 한쌈지	할멈의쌈지도 한쌈지
	아들의쌈지도 한쌈지	며늘의쌈지도 한쌈지
	손자의쌈지도 한쌈지	나의쌈지도 한쌈지
	청룡황룡 대통수에	이글에이글에 부쳐놓고
	담배한모금을 피우네	목구멍에서 골안개피네
	또한대를 피우니	손톱과발톱이 육갑지랄을 하는구나
	또한대를 피우니	세상만사가 태평일세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있거던 사우(사위)삼지요
	딸이있긴 있으나	나이가 적어서 못주겠소
	아이구 할머니 그말씀마소	참새가 적어도 알만넣고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가요	고추가 적어도 맵기만하고
	할머니 평생에 외손지 보리로다	

조사자 : ‘이글에 이글에 붙여놓고’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량 : 이글이글 탄다는 말이지요.

◇ 추워추워춘달래

박계량 :	추워추워 춘달래	더워더워 던달래
-------	----------	----------

◇ 달아달아

박계량 :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달속에 계수나무 옥도꾸로 찍어내어
 금도꾸(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짓고
 양친부모님 모셔놓고 천세만세 살어보자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내손이약손

박계랑 : 내손이 약손이다.
뒤편야 자라배야
무슨자래 ...

조사자 : 비 올 때 뭐라고 하나요?

박계랑 : 갈강비는 가라고 오는 비고 보슬보슬하는 거는 오라는 비라던가.

◇ 어랑타령

박계랑 :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요 데헤요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짓고
우리님의 병세는 아구야짚어 가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 하늘에 아구야 켜별도 많고
요내나 가삼(가슴)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상(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에헤야 데헤야 데헤야 에헤요둥둥 몽땅내사령아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님도 모른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어지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는구나
어러어랑 어허야 어허야 두둥둥 대한에독립이 왔구나

스스레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 좋아
꽃같은 날버리고 아구야 돈벌러 갔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은행)소복판에 묻고요

님그리워 죽은건 신작로북판에 묻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종소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 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종소 요것도 사령이라

치매폭에 쌓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쌓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대한의독립이 왔구나

천길에 만길에 푹떨어져서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어러어랑 어허야 에헤야종소 몽땅내사령아

늘민령 서둘기가 에루화 돈같은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귀주겠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등등 요것도 사령이라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잊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등등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조사자 : 늘민령이 뭔가요?

김종필(박계랑의 아들) : 저항령을 같고 그래요

박계랑 : 돌만 있는데 올라갈 때에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안 그랬다우. 돌이 한번 내려굴면 삼 년을 내
려군다고 하대요.

◇ 회심곡

박계랑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며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칠을몰라 부모은공 아을손가
이삼십일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닦구나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흥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닭고도 설운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흥안백발 늘어가면
인간의 이해공도를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예탄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니 약효험이 있을손가
판수불러 경읽는들 경덕을 입을손가
무너불러 굿을한들 굿덕인들 있을손가
재미쌀을 쏘고쏘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춧대한쌍 벌여놓고 향로향합 불갓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아을소냐
감홍이나 할까보냐 (감동을 도무지 아니하는가보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시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며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동같이 굵은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래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갓돈이나 갖고가게
 만단계뉴에 애결한들 어느사자 들을소냐
 애고답답 설운지고 이를어이 하잖말인가

◇ 다복녀

박계랑 :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올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올고가요
 부뚜막에 삶은팔이 싹나거든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올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올고가요
 야강야강 다복녀야 실정밑에 삼년묵은
 말뼈따구 살붙거든 느엄마가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올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젓먹으러 올고가요
 느어머니
 병풍뒤에 그린담이 해치거든 오마더라
 다복다복 다복녀야
 올고가지 말고 집으로나 돌아오마
 저기저기 서산너머 죽은 고목나무
 잎이부야 꽃피거든 느어머니 오마더라

박계랑 : 이기 이렇게 질면서도 슬프더라구.

조사자 :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박계랑 :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배웠어. 장고도 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는 그
 냥 배웠어. 갈강냇 갈았더라는 것도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삼천장 베레돌(벼룻돌)도 그때
 배웠어.

조사자 : 어릴 적에 이 마을이 몇 호였지요?

박계랑 : 100호 되었나.

조사자 : 매곡선생 아시나요?

박계랑 : 어릴 적에 여자소학이라고 그러대. 그 집의 손주딸이 둘이거든. 나하고 친구야. 나보다 한
 살씩 더 먹었어. 여자들 시집가서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구. 친구에게 부탁해 그 책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책을 베끼었지.

조사자 : 매곡선생이 어떤 분이셨나요?

박계랑 : 육모정 그 터는 복판에 비 하나 세웠잖아요. ... 준택이 할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고 일년에
 쌀 닷말이던가, 하늘천 따지 가르치고, 하두 더우니까 나가 가르치려고육모정을 그 할아버
 지가 지었어요.

Ⅲ. 속초민요의 실제

◇ 지정다지기

박계량 :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조사자 : 메나리를 여기서 하지요?

박계량 : 남자들이 하지요. 음보를 신기하게 넘기더라구.

조사자 : 들어보았어요?

박계량 : 들어봐도 점심 해이고 가서 잠깐 점심 잡수면 들어가다보면 하구.

그저 우습게 여겼지 뭐. 남형이 양반 여기 있는데, 그 양반이 잘하는데.

조사자 : 소를 모시는 신이 있나요?

박계량 : 군웅대감이라는 거는 옛날에 마구 있을 때에 귀신 머리다가 달아매던데. 조(종이) 한 장 달아매더라. 여느 땐 안 그러다가 설에 차사 지낸 후 술 한 잔 뉘놓고 고기 한 접시 대더라구. 시방 세월엔 안 해.

조사자 : 영등에 무 찌개 하나요?

박계량 : 영등 때 시방 하는 사람은 해요. 바람영등 내려올 때 별 게 아니더라구. 무 한 대가리 똑딱 똑딱 썰어, 왁찌기 넓적 넓적 썰어 명태 한 마리 넣고, 꿩여 가지고 메 지어 가지고, 요만 한 데다가 식구 손가락 수대로 밥그릇에다가 꽃아서 왁찌기 명태 한 마리 넣고 꿩인 거 하고 내놓고 “바람님 내려오셔서 우리 농사 잘되게 해주고 집안 식구 다 건강하게 해달라” 하구. 내려오시던 날도 하고 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하구 잘 올라가시라고 하데.

조사자 : 15일날 가시나요? 20일날 가시나요?

박계량 : 보름날 올라가시고 스무날은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베(수부)님이라고 그러데. 또 마저 해 놓고 그래.

◇ 아라리(나물캐는소리)

박계량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 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계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계주게
산이나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나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계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 날만 넘계주게
 산이나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임과실어(싫어) 후시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계주게

박계량 : 아리랑 중간에 노래를 하고 앞뒤로 아리랑을 붙이지. 그저 그래.

조사자 : 발 갈면서 갱이 하면서도 하나요?

박계량 : 그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무슨 노래를 하나? 이 노래는 나물 켈 때 하는 노래지.

◇ 권주가

박계량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구비구비를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 에라만소

박계량 : 화란춘성 만화방청요 때는중구나 봄이로다
 잃은아뜰어서 책은불고 꽃은꺾어서 머리에꺾고
 동무따라 산에귀경을 가보느니 폭포수는야 좋거니와
 산천야정기는 니뿐이나 이리농아라 저리농아라
 열리본 죽어도 못놓겠소

뒷노깡(두만강)은 안주로삼고 압록강은쇠주로 삼아
 팔포대 기상(기생)은 전봇줄 늘이고 돈없는 건달이 세멘만 치는구나
 어절씨구 저절씨구 기화자자 저절씨구 아니아니노지는 못하리다.

박계량 : 오보현이네 하고, 시방은 죽었지만, 밤새도록 에라만소 시합을 했네. 밤이 후딱 세 었어.

◇ 빼구기흥내내는소리

박계량 : 띠국띠국

박계량 : 빼구기는 왜서 빼구기냐 하면 우리들은 빼구기라고 하는데 띠국띠국 한데, 옛날에지 엄마가

Ⅲ. 속초민요의 실제

일찍 죽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떡국을 한 다라 썬어 놔는데, 옛날엔 개를 들어매 놓고 키우지. 개가 떡국을 한 함지 다 먹었대. 애 엄마는 몰랐지 뭐. 가을 실컨(실컷) 두드려 주었지 뭐. 개가 죽었대. 여식안지(여식아이인지) 머슴안지(머슴 아이인지) 몰라도, 개(개)가 죽어서 뼈꾸기가 된다네. 개가 죽어서 저 산에 가서 '떡국 떡국' 한 대.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서 '뼈국' 한데(한다고) 그러대.

◇ 비둘기소리

박계량 : 뚜둑뚜둑
자식죽고 예체하고 헌투데기 몸에걸고
뚜둑뚜둑
자식죽고 예체하고 ...

◇ 천자풀이

김정수 : 자시 생천하니 유유지천에 하날 천
축시에 생지하여 오향을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유현미목 흑정색 북방현무 김을현
궁상각치 좌우동서남북 중앙토색에 누루황
천지사방이 몇만리나 하루광한루 집우
연대곡조 고내금 ...

◇ 앵기땡기³⁷⁾

김정수 : 재짱 개짱
쇠스레 녀장 콩죽 팔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 마 지 콩

박계량 : 이원 지원 가매 꼬지 ...

◇ 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종필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37) 당시 박계량, 김정수 두 할머니가 서로 다리를 마주 뺨고 손으로 다리를 치면서 해주셨다.
김정수 할머니가 끝나자 박계량 할머니가 이어서 해주셨다.

박계량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너이빨 지붕위에 던져야
 현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나게해다오

조사자 : 수망대가리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량 : 빠진 것 같고 허장이라구 그런 거이지.

조사자 : 삼베 짤 때 어떻게 하나요?

박계량 : 잘했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못 하겠더라구. 우리가 질쌘을 무섭게 했지만 뭐 노래하며 짰너?

김정수 : 그저 팔이 아프서 ... 사치미는 형제고...

박계량 : 황소같은 도투마리 말라간다고

◇ 베틀가

박계량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난간네 베틀노세

박계량 : 근디 순서가 어던지 잊어먹었어. 낮에 짜는 것은 무신,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것은 월광단
 이요 삼형제요 다른 데 가면 잘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고 우리는...

◇ 세상달강

김정수 : 시상달경	시상달경	질루질루 가다가
밤한톨 얻어		고무다락에 치뜨렸더니
머리깎은 새양주가		덜민날민 다까먹고

조사자 : 아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몰러. '내손이 약손이다. 배아프지 말아라' 그저 그랬지워

박계량 : '똥자래 읍자래'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 장타령

박계량 : 어얼씨구 품바야	얼씨구 품바야
질루질루 가다가	밤을한개 얻은걸
얻은밤을 뒤했나	냘수나하나 휘었지
휘은냘시 뒤했나	고기한마리 냘았지
냘은고기 뒤했너	꽤치구장치구 다먹었지
품바품바 품바야	얼씨구도 잘한다
너못하면 내할라	얼씨구 품바야

Ⅲ. 속초민요의 실제

◇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박계랑 : 알나라 깔나라
알나라 깔나라

김계랑 : 진짜 그러면 알을 낳는다네.

박계랑 : 소금쟁이를 잡아 손바닥에 대고 알나라깔나라 하면 손바닥에 노란 알을 진짜로 똑똑 떨어
더라구.

◇ 제비보고 하는 소리

김정수 : 에히여
강남갔던 제에비는 이집저집 다버려놓고
박씨 하나를 물고 흥부나 집으로 감돌아든다
이리농아라 저리농아라 못놓겠네
농지를하여도 난못놓겠네

◇ 화투풀이

박계랑 : 정월이라 소식이왔네 이월매자(매조)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맘을 사월흑싸리 흑싸리나
오월난초에 날아간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어 팔월공산에 달이떴네
구월국준 굳은마음 시월단풍 다쳐졌네
동짓달에 드는액은 선달시루에 다쳐졌다

조사자 : 영등 할머니가 언제 오지요?

김정수 : 초하룻날

조사자 :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계랑 : 이월 초하룻날 오면 무 한 대가리 왁재기 똑딱딱 썰어서 탕 모양 해서 명태 한 마리 넣고
밥 할 적에는 팔 넣고 찹쌀 좀 넣고 밥을 잘 해 가지고 큰 그릇에 퍼 가지고 손같이 식구
가 다섯이면 다섯 개 꽃고 서이면 식구대로 꽃아서 대내에다 내다놓고, '이월 초하룻날 영
등날이올시다. 그런데 그저 풍신님이라구 그러더라구. 빌 적에는... 풍신님요 그저 오늘날
내려오서 가지고 이 터전 이 명당에 그저 식구 다 모두 고이 곱게 일년 열두 달 삼백예순
날 과년 열석 달 하루같이 곱도록 잘 가꿔 주시고 금년의 모든 액을 동서남북 사해팔방
댕기더라도 낙성(낙상)재도 없고 관젤 귀순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아주고 그저 금년 농사를
재도(지어도) 금절미 대재미 하나 먹지 않게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발원이올시다.'
이거 별거 다해. 그리고 올라갈 적에는 보름날 올라갈 적에는 또 그렇게 해놓고 빌어요.
'풍신님 올라가시는 날, 이월 보름날 올라가시는 날, 희망을 다 착실하게 하시고 올라 가

시더래도 그저 선달 그믐날까지라도 이 터전 이 명당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이고 잘 올라 가시라' 고 이렇게 축원하지 뭐.

조사자 : 스무날 되면 수부가 올라가나요?

박계량 : 스무날은 그러게 해놓고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부님 다 잘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구. 어른들은 하더구만 우리들은 아니해.

조사자 : 한 지가 얼마나 되세요?

박계량 : 안 모신지 한 10여 년 되지 뭐. 그래도 문서는 환하지.

◇ 다듬이질흥내내는소리

박계량 :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박계량 : 다듬이질 때 다듬이나 하지 뭐 노래하나. 손이 안 맞으면 방망이 썸(싸움) 하거든. 방망이 썸하다가 이마뺨이(이마팍) 터져요. 마주 앉아 하는 다듬이도 참 돌이 손이 맞아야. 들을 때 이래. 손이 맞으면,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다다북고' 하고 들리고, 맞다듬이 하는 건 그렇는데, 손이 맞지 않으면 한꺼번에 '뚜닥 뚜닥' 그래. 저쪽 사람이 방망이를 냅다 치면 이기 딱 맞으면 이마뺨이 불거지지 머. 썸그네 뛰는 것도 돌이 맞아야 그네가 잘 나가고 좋아요. 우리들이 처널 때 그넬 잘 뛰었어. 한 사람은 저기 나가서 앉을 때 돌이 한꺼번에 나갈 때 주춤하잖아. 하 나는 아이(아니) 앉으면 배그네 뛰는데 그네가 안 나가요. 다듬이도 맘이 맞아야 잘 되는데. 맘이 맞지 않으면 잘 안되네.

◇ 삼잡는소리

박계량 : 해돛이 책면(체면)에 피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

조사자 : 눈티 나잖아요? 그거 없애는 노래 있나요?

박계량 : 눈다래끼는 그건 노래가 어딴너. 그게 나면 안섭을 실로 동여매대. 그러면 사그러지대.

조사자 : 실로 매면 눈다래끼가 없어져요?

박계량 : 응.

조사자 : 그림 그려놓고 옷 치고 하는 것도 있나요?

박계량 : 그건 삼서는 건데, 옛날에 어른들 한 대로만 얘기해. 팔을, 새빨간 적두팔을 해가 올라오면 요만큼 뵈길 적에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가대요. 물 한 반 대접 떠갖고 팔을 한 댓 개 집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삼을 잡는 것을 내가 봤어. 삼 썸는 사람을 해오는 쪽으로 앉히더라구. 앉히구는 팔을 가지고 그 사람 삼 선 눈에다가 눈을 감으라고 하고 '해돛이 책면에 피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 고 하고 해를 보고서는 물대접에 뚝 떨어구나 아주 팔에 그저 이런 물방울이가 병그렇게 붙더라구. 암만 그래두 열 개구 다섯 개구 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떨귀서 팔에 물방울이 안 그러면 안 식는데.

조사자 : 그때 뭐라 한대구요?

박계랑 : 해돋이 책면이라고 하대. 삼잡는 이가 요렇게 문디며, '아무 살 먹은 아무개가 피삼 열삼이
섰으니 해돋이 책면에 피삼열만을 삭게 해달라' 고 하더라구. 팔에 팔만한 물방울이 탁 붙
더라구. 팔에 물방울이 하나씩이니 쌍둥이 같애. 고상(고생)시키고 안 나오려면은 팔에 물
방울이 안 붙더라구. 붙으께는 대접을 살살 가지고 (부엌에) 들어와서 솔 뒤에 놓더라구.
조왕님이 피삼열삼 선 사람을 얼른 삭게 해달라고 빌고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언제 내버리나요?

박계랑 : 하룻밤 자고 나서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피삼이란 게 뭔가요?

박계랑 : 뽕결기도 하구 하얀 게 눈에 덮지. 그래도 피삼열삼이라고 하더라구.

조사자 : 몇 살 때 생기나요?

박계랑 : 어른이나 아(아이)나 생기려면 생기지 뭐.

조사자 : 삼 잡는 이는 누군가요?

박계랑 :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해주지 뭐.

조사자 : 만약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박계랑 : 그러면 오래오래 고생한대.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닻, 2002. 6. 9

김정수 : 여 · 75

김정수 할머니 닻을 세 번째 방문하였다. 마침 혼자 계시다가 이것저것 질문에 친절히 응해주
셨다. 천자뒤틀이, 동계소리, 한글뒤틀이 등 예전에 하셨던 소리도 해주시고 새로운 것도 해주
셨다. 이하에는 새로 해주신 것만 기록한다.

조사자 : 이 집을 무슨 닻이라고 부르나요?

김정수 : 뒤틀이라고 해요. 옛날에 큰불이 났었다 하네요. 이 동네가 깡그리 타는데 뒤로 이 집만 하
나 남았다내요

조사자 : 시할아버지는 누구지요?

김정수 : 매곡선생님. 이름은 모르고 매곡처사라고 하지요.

조사자 : 오윤환이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김정수 : 시아버지도 못 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 왔어요. 5월 달에 돌아가시고 10월에 시
집왔으니까. 사변 중에 다 돌아 가셨거든요.

◇ 담바구타령

김정수 :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의 담바구야
 니의국은 어떻게구 대한의국에 나왔나
 우리국도 좋기는 좋다만은
 대한의국에 심화풀이를 왔네
 무신 심화풀이를 왔너
 천년과부 만년과부 심화풀이를 왔나
 무엇으로 그심회를 풀까
 담바구 씨를구해 이편대편 던졌더니
 오부동이 지었너 대부동이 지었너
 그담바구 점점잘자라
 곁에곁잎 적치고 속에속잎 뜯어
 응달쪽에 수깊은곳에 말려
 서울이라 치달려 굽높은 도매로
 경성이라 치달려
 은장도칼로 어씩비씩 쓸어
 총각의담배도 한쌘지 내쌘지도 한쌘지
 한대를 먹고나니 천지가아득 진동하고
 두대를 먹고나니 일월이팽팽 도네

◇ 주머니소리

김정수 : 양석단 두루미 주머니
 만수문장에 글자를새겨
 굵은솟별 수를놓고
 잔솟별 삼칠달아
 삼태성에 끈을달아
 뒷동산 시누대끝에 달아놓고
 올라가는 구관책방 내려오는 신관책방
 이주머니 구경하고 가소
 그주머니 누가진(지은) 주머닌가
 하늘이라 무자선녀 지은 주머니
 무자선녀 그주머니 지어놓고 어디를 갔소
 양대산으로 구름을타고 비주러(비를 뿌리러) 갔소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언제 부르는 소리죠?

김정수 : 몰러.

조사자 : 누구한테서 배우셨나요?

김정수 : 난 할머니한테서 배웠어. 친정할머니. 우리 부모가 아들도 없이 나만 키웠어. 그래서 할머니가 천지 없다고 날 키웠어.

◇ 풀미

김정수 : 풀미 풀미 풀미
먹으나 굶으나 풀미
입으나 벗으나 풀미 풀풀
은을준들 너를살까
금을준들 너를살까
풀미 풀미 풀미야
집안에는 효자동이 되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되고
이웃간에는 화목동이 되라
풀풀 풀미야

◇ 아리랑

김정수 :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건달 다잘사귈 터인데 ...

◇ 춘향이신내리는소리

김정수 : 춘향아 춘향아 양골춘향아
춘향아가씨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조사자 : '청사초롱 불 밝히고' 하는 춘향이 소리 있나요?

김정수 : 춘향전에 나오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첫머리가 뭐이 있어 가지고, 청사초롱 불 밝혀서 춘향의 집으로 들고 가는데 첫머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아이 나. 지금 언문뒤풀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러니, 아버지는 '날 데리고 그런 걸 가르친다고 그거는 옛날에 무신 선생님이,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도 아니고 뒷간이여, 뒷간에 가 앉아서 지은 글이래, 이 한글을, 이 몸쓸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천자 뒤풀이를 이게 진짜지'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조사자 : 춘향이 신 내리는 것 있어요?

김정수 : 그런 것도 보기만 했지. 몰라요. 이 아랫집 아재가 잘 내려서 한번은 혼이 났어. 노래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중지하니깐 어떻게 그만 까물치더라구. 봄에 화전놀이를, 저기를 망곳터라 하는데, 거기 나가 화전을 하는데, 아랫집 아재 이름이 봉화야. '춘향이 좀 해라' 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춘향아 춘향아 양골 춘향아 춘향아가씨' 뭐 문서가 있더라구 '술술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하면 손이 차츰 벌어지더라구 그러면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여. 그러면 노래를 자꾸 대주어야 돌아가는데 그렇게 못하니 후딱 까물어치대.

◇ 잠자리잡는소리

김정수 : 앉은자리 퐁퐁 붙어라
 앉은자리 퐁퐁 붙어라

◇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김정수 :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김정수 : 잠자리 붙잡아 가지고, '알나라 딸나라 알나라 딸나라' 하면 손바닥에 알을 낳아요. 노란게 좁쌀날 같은 거요.

◇ 한글뒤풀이

김정수 : 지역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쌌더니 인연조차 지중치 못하오
 가가거겨 가이없는 요내몸은 그이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굳건하기 짝이없소
 나냐너녀 나개(나귀)등에 손질하여 조선팔도 유람가자
 노노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이 늙어지면 못노나니
 다다더더 다달이 오시던손님 소식조차 돈절이오
 도도두두 도담하도다 저몹쓸잡년이 도담하도다
 라라러려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마마머머 마자마자 맞았더니 인연조차 지중치못해
 모모무무 모지도다 저몹쓸잡년 모지도다
 바바버버 밥을먹다 생각해도 임의생각
 보보부부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을 또다시 보고지고
 사샤서셔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참 늦어진다
 소소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Ⅲ. 속초민요의 실제

한양산을 니가거든 임의소식 정코가게
아야어여 아다답삭 안던손목 인정없이도 똑떨어졌소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구름 사줄줄줄 미어타니
자자저저 잣은종종 만났던님이 편지조차 돈절이오
차차저저 차차리 죽었으면 요런광경 안당할까
초초추추 출출히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요
카카키켜 은장검 드는칼로 요내뎡을 비어주쇼
코코쿠큐 꼴꼴이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
파파퍼퍼 파오파오 임의화공 그질없이 보고파오
포포푸푸 폭포수 흐르는물에 거기평텅 빠졌더라면은 요런광경 안당할까
하하허허 한양낭군 내낭군인데 편지조차 돈절이라
호호후후 호접접접 먹었던마음 탐삭 리 아니가네

◇ 우리리

김정수 : 우리리야 우리리야
아참 잘 딛는다.
아이참 힘차게 잘딛는다.
어 잘딛는다 우리리야
방구뿔다 뿔나무 들어간다 우리리야
칼로 찢렸다 피나무
들어가네 우리리야 우리리
(무신 거 하고)
양장목 끝당목 도리 지동감
다 들어간다 우리리야
고로쇠 박달 다 들어간다
우리리야 우리리야

◇ 베틀가

김정수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란간에 베틀노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안질개를 도다놓고 올라앉은 거동보소
잉엣대는 삼형제요 사치미는 형제
눌림대는 외아들이요
결신대는 강태공의 낚시줄에 목을매고
취두강의 나갈새나 새두강에 나갈새나

황소같은 도투마리에

김정수 : 도투마리는 황새같고 바디집 치는 소리는 원론 공산에 녹살알개 치는 소리요. 북 드나드는 형용은 무신 산에 무신 새 드나드는 형용이고…. 그런데 다 몰러.

◇ 추워추워춘달래

김정수 : 아고 추워 춘달래
고추먹고 맴맴

조사자 : 성주 모실 때 어떻게 비나요?

김정수 : 성주 모실 때는 집 질 때 모시지.

조사자 : 고사 지내지요?

김정수 : 가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가을에 동짓달에 지내.

조사자 : 마굿간에 무슨 신이 있죠?

김정수 : 마굿간에 군웅이 있는데, 없는 집도 있어.

조사자 : 어떻게 모시지요?

김정수 : 소 머리말에 뭐 달아 매놓고 뭐 가져와도 뭐 놓고 그러던데

조사자 : 뭐 달아매죠?

김정수 : 종이장.

조사자 : 한지?

김정수 : 응. 이 동네도 그렇게 달아맨 집이 아직도 있어.

조사자 : 군웅은 왜 있죠?

김정수 : 시집갈 때 따라간대.

조사자 : 고성에서 많이 온다죠?

김정수 : 응.

조사자 : 이 맥은 뭐 모셨어요?

김정수 : 우린 성주제사밖에 없어요.

조사자 : 언제 지내나요?

김정수 : 저녁에. 본래 어떤 집들은 비는 이들을 데려다가 소지올리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축 고하더라고. 성주에게도 지내고 터에게도 터제사라고 지내요. 뒤편에 모셔놨어요.

조사자 : 그 안에 쌀이 있나요?

김정수 : 기왓장 돌리고 요만한 단지에 쌀 한줌 넣어서.

조사자 : 터주신이라고 하나요?

김정수 : 터지신이라고 해요.

조사자 : 일년에 한번씩 제물 놓고서, 그때 쌀을 바꾸나요?

김정수 : 그렇지.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그러면 그 쌀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바꾸나마나 찹쌀 집어 세 번 멥쌀 집어 세 번 넣는데, 가을에 가면 녹어서 다 썩고 없어. 그러면 가을에 가서 다 떨어버리고 또 그렇게 집어넣어 놓지 뭐.

조사자 : 영등할머니 모셨나요?

김정수 : 영등할머니도 영 너머엔 없잖어. 여기 시집와서 시어른들도 없지. 우리 영감도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고 살았어.

◇ 각시방에 불켜라

김정수 :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김정수 : 이 거는 각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풀뿌래기가 있어요. 개비름이라고 해요. 그 뿌래기를 갖고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하고 문지르면 그게 빨개져.

조사자 : 그 거 갖고 오나요?

김정수 : 갖고 오기는 뭐,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지 뭐. 각시대가리 만드는 풀을 뜯어 다가 갖고 놀다가 말로는 그냥 버리면 뭐이 된다고 해서. 놀다 들어올 땐 다 뜯어 버리고 오잖아.

◇ 그네소리

김정수 : 우두그네야
추천이야
나간다

조사자 : 산에서 무슨 나물 주로 쫓어요?

김정수 : 취, 곰취도 산 저 높이 가야 있고, 야산 나물이라는 거는 산나물같은 거지 뭐, 나두 나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

조사자 : 다듬이질 할 때 노래 하나요?

김정수 : 다듬이나 하지 뭔 노래를 해요?

조사자 : 머리 뽀뽀 깎은 아이보고 뭐라 놀리죠?

김정수 : 까까중이라고 그러더구만

◇ 쪽박바꿔주

김정수 :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조사자 : 소쩍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 소쩍새는 '소쩍 소쩍' 그러지. 쪽박바꿔주 새가 따로 있고,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그러더라구

조사자 : 무슨 새인가요?

김정수 : 무신 새인지는 모르지. 내가 울산바위에 돈 받느라고 몇 년 가 있었거든. 거기 새가 그렇게 울더라구.

조사자 : 삐꼭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 '삐국삐국' 울지 뭐.

속초시 도문동 김남형 님, 2002. 6. 16

김남형 : 남 · 80

도문동의 소리꾼으로 소문난 김남형 할아버지를 녹음하러 몇 번을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이날은 80대인데도 불구하고 뒤란에서 집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다행히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소리를 녹음하러 왔다고 부탁을 드리자 하던 일도 중지하고 녹음에 선뜻 응해주셨다.

김남형 : 남 · 80, 도문동 5통 1반 / 양양군 강현면 출신으로 19살에 이곳으로 장가들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처음 장가들어 이모님 논 1천 평과 종가 논 1천 평 등 도합 2천 평을 부쳐 3년 후에는 5-6천 평을 만들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고, 57살까지 농사를 지었고, 그후에는 양봉을 시작하여 지금도 하고 있다. 주봉초교 육성회장.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문 미나리는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배웠다. 학교는 다녀 보지 못했으나 한문 서당엔 한 3년 다녔다. 예전에 농악대가 있었을 때에는 팽과리고 잘 쳐서 상쇠를 했었다. 지금 농악대는 없어졌고 악기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 올해 봄철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후로 살도 한 6kg 빠지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할만큼 참으로 건강하셨고, 아직도 약주를 즐긴다.

조사자 : 미나리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김남형 : 여기 와서 어른들한테 배웠지. 여기 들은 도문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화서평이라고 하지. 여기서 미나리를 하면 저쪽 들로 건너가고 저쪽 건너서 미나리 하는 소리가 이리로 건너오고 했어요.

조사자 : (소리를) 주고 받고 했나요?

김남형 :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여러이(여럿이) 하니까 소리가 커졌지. 아이집이라고 벼가 요렇게 짝함 할 적에는 미나리도 아이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어요. 약한 벼(벼) 문닥그린다고. 두벌 짐(김)부터 미나리를 하고 그랬어요.

조사자 : 보통 세벌 짐(김) 하죠?

김남형 : 그렇죠. 네벌 짐(김)하는 이도 있지만 평균 세벌 짐(김) 하죠.

조사자 : 미나리 할 때는 보통 몇 분이 같이 부르나요?

Ⅲ. 속초민요의 실제

김남형 : 다섯 아니면 여섯 되죠.

조사자 : 소리 매긴다고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죠. 받는 사람이 후렴하고

조사자 : 질 짠다고 하나요?

김남형 : 네.

조사자 : 그 사람들이 부르나요?

김남형 :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듣거나 하고...

조사자 : 잘 부르는 사람은 소리만 하죠?

김남형 : 아녀. 같이 매면서 하지. 미나리라는 것이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못 배우고 말더러구요. 妻외숙, 오세준인가 하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 도문미나리

김남형 :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동해동창 솟은해가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요논배미 매어아어주오
반공중에 높이 아어뻗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김남형 : 숨 차. 아니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서 따라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어울리지 않아요.

조사자 : 지정다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러지. 그것두 혼자서 못해요.

조사자 : 명산들 다 주어 섬기죠?

김남형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백두산이 생겨 가지고 ...' 지금 사람들은 모를 기요. 커다란 돌에다가 구멍을 뿜 뚫었어요. 거기다가 낭그(나무)를 지다란(길다란) 것을 꿰 가지고 엇거(엮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밧줄을 시겁(세겁)이고 네 겁이고 하고 저쪽에 다가도 밧줄을 시겁(세겁)이고 네겁이고 해서 소리를 주면 바싹 잡아당기면 돌이 쑥 올라 갑니다. 쑥 올라가다간 턱 놓구 썩 하면 턱 올라가다간 턱 놓구 그래서 줄을 맞춰 들죠.

조사자 : 지정 맞추면 몇 시간 하나요? 30분 하나요?

김남형 : 30분 갖고는 안 돼죠.

조사자 : 후렴을 뭐라고 하나요?

김남형 : 에헤라 달호야

조사자 : 그건 회다지가 아닌가요?

김남형 : 회다지가 아니고 집터 닦는 것도 그렇게 해요

◇ 지정다지기

김남형 : (자 집터를 닦을 겁니다. 그러니 다 일심 받아서 해주세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라 에헤라 달호야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이 생겼구나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이집터가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소리맞춰 잘도찍소	에헤라 달호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헤라 달호야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에헤라 달호야
딸을나면 열녀나고	에헤라 달호야
소를노면 우격부리	에헤라 달호야
개를노면 삼살개다	에헤라 달호야
삼살개 짓는소리에	에헤라 달호야
오복이 굴러든다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거정다 된거같소	에헤라 달호야
막걸리 한잔먹고	에헤라 달호야

◇ 모찌는소리

김남형 : 얼른 하더라니 한 춤 (한 춤 떠서 집어내 던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연달아서 옆의 사람이)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그러면 또 연달아서 저쪽에서)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조사자 : 한춤이라는 게 뭐죠?

김남형 : 모를 묶어 놓은 것이지.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모 맬 때 뭐하나요?

김남형 : 미나리하죠.

◇ 벼베는소리

김남형 : 흙칭흙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흙치흙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 벼세우는소리

김남형 : 벼(벼) 세울 때도 또 하지, 자 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그래요,

김남형 : (자 벼를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녀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아홉단에 스무단
한타래 세웠습니다
(여기서 스무단을 가지고 한 타래라고 합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려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녀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 도리깨질소리

김남형 :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흐-

어-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게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조사자 : 타작할 때도 소리가 있죠?

김남형 : 그것 참 증말(정말) 옛날인데. 태 쳐서 집어던지면 하도리깨가 넘기는 건대... 잘 안돼요.

조사자 : 상도리깨가 있고 하도리깨가 있는 건가요?

김남형 : 그렇죠

조사자 : 똑같이 생겼나요?

김남형 : 옛날에는 짝패란 기계가 없어 가지고, 넓찍한 텃돌, 널찍한 텃산이라는 게 있어서 거게다 (거기에서) 넓찍한 돌을 놓고 벧단(벧단)을 감는 줄이 있어요. 감아 가지고 이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감아 치면 한쪽으로 한 두어 번씩 치면 베(벼)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쪽 풀 민(풀면서) 던지면 저기 나가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도리깨가 딱 받아서 쳐요. 치면서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이렇게 후리면 베를 불끈뽀끈 뒤집어줍니다. 하도리깨란 가로쇠거든요. 하도리깨가 돌이고 서이고 서서 소리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흐- 어-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게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온종일 탈곡을 해나 가지고 벧가릿개가 이만큼 되면 저녁에 베를 지운다고 하는 건데, 불을 해놓고는 꺼끄랭이 꺼슬린다고 불에다가 옷을 흔들어요. 그래 가지고 입고 자고 했어요. 꺼끄랭이 타라고 하는 거지요. 벧가래를 이만큼 봐는 거를(모아 놓은 거를) 또가리를 해놓고, 짐으로 또가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떠 넘기면(넘기면)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워요. 해보라우? 아랫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난 뒤에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해주세요

◇ 벧가리지우는소리

김남형 :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니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가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돼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벧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벧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쌘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어허 어디어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아-
 어-
 어-
 이-
 미리미리타불

조사자 : 초초 아뢰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일초, 이초, 삼초 아뢰는 게 있는데….

조사자 : ‘초’가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불교계통에서 나와서 우린 몰라요. 그저 어른들이 하니 할뿐이죠. ‘미리미리타불’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불교계통인 것이 틀림없어요. 옛날에 일초, 이초, 삼초 아뢰는 때는, 밤새도록 과외라는 걸 하잖아요. 밤과외. 자지 않습니다. 일초 아뢰고, 술 갖다 먹고 또 놀고 그러다가 이초 아뢰는다고, 과외 한다는 것이 날 세운다는 거예요. 삼초 아뢰고 아침에 발인 축 읽고 그러잖아요.

조사자 : 상여 소리 후렴은요?

김남형 : 어허 난차.

망인 앞에 가서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담제 후’ 이래요. ‘담제 후’ 하는 것은 상두꾼들 모이라는 뜻이에요.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망인 앞에 들어가서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세 번을 합니다. 그리구는 ‘아- 어- 어- 이-’ 한 후 ‘미리미리타불’ 그러면 후렴으로 따라서 또 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조사자 : 드장 하고 그 다음날 일초 이초 삼초 아뢰고

김남형 : 드장날 묻어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묻었지요. 옛날에는 토롱 그 식인데 지금은 그 식으로 아니하고 가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인축 읽기 전에 삼초를 아됩니다. 삼초를 가는 날 아침에 삼초를 아뢰고 발인축 읽고 떠나갑니다.

조사자 : 선소리 하시는 분이 요령을 흔들며 하죠?

김남형 : 그렇지.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상두꾼은 몇 명이죠?

김남형 : 24명입니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에 저승이로구나' 하면서 잔소리 넣어 가지 고 하는 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요령도 흔들어 봤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상여 맬라 하니 힘들어 (상여는 매지 않고) 요령을 흔들었어요.

조사자 : 봉분 만들며 하는 소리를 뭐라 하나요?

김남형 : 회다지라고 하는데, 여긴 잘 할 줄 몰라요.

조사자 : 후렴은 어떻게 매기나요?

김남형 : 에호라 달호야

◇ 곱새치기

김남형 : 오라버니 사정에 속옷벗구 담 넘어가네

...

◇ 목도소리

김남형 : 아-으- 아-으-

어허여차 어허여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김남형 : 발 맞추는 것이니깐, 잘 하는 사람은 '저기가는 저 여자' 하면서 히야까지도 하죠.

◇ 풀미

김남형 : 풀미 풀미 풀미야

은을주면 너를사라

금을주면 너를사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속초시 도문동 노인회관, 2002. 7. 13

김남형 : 남 · 80, 오대환 : 남 · 76

김순녀 : 여 · 70, 전기춘 : 여 · 68, 박선춘 : 여 · 65

김추월 : 여 · 65, 이준애 : 여 · 66

김남형 할아버지 댁을 다시 방문해 노인회관으로 오시라 한 후 도문동 노인회관(2층)에 찾아갔더니 두 군데서 화투를 하고 있었다. 1층은 공사로 시끄러웠으나 녹음 관계로 협조를 요청하자 흔쾌히 1시간 가량 공사를 중단해주셨다. 도문동 미나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대환, 오순석 두 분을 찾았으나 오대환 할아버지만 찾을 수 있었다. 김남형과 오대환 두 분에게서 소리를 채록한 후 옆에서 조용히 놓고 계시는 할머니들한테서 또 소리를 채록했다. 할머니들은 화투를 하시면서 노래를 해주셨다.

오대환 : 남 · 76, 속초시 도문동 /

김순녀 : 여 · 70, 속초시 도문동 10통 2반 / 속초 쌍다리가 고향이다.

전기춘 : 여 · 68, 속초시 도문동 10통 5반 / 고성이 고향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박선춘 : 여 · 65,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 속초 토박이다. 가장 많은 소리를 해주셨다.

김추월 : 여 · 72,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 양양 강현면 용호리 출신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이준애 : 여 · 66, 속초시 도문동 10통 4반 /

◇ 도문미나리³⁸⁾

김남형 :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뻗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38) 김남형 선창에 오대환 합창으로 녹음을 했다. 소리가 끝난 후 오대환이 '동해동창 솟은해가 나의얼굴 비추고'가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곧 김남형의 설명을 듣고는 수긍하셨다. 지여가네는 늦어가네라는 뜻이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초초아되는소리

김남형 : 담제고 에이
대령하였느냐
오대환 : 에이, 대령하였소
김남형 : 대령하였소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초초 아됩니다
김남형 + 오대환 : 아 ~ ~ ~
어 ~ ~ ~
에 ~ ~ ~
이 ~ ~ ~
미리미리타불

◇ 넘차 소리

김남형 + 오대환 : 에에호
어이갈까 에이호
에헤 에헤호
어이갈까 에헤호

조사자 : 질레 째다고 하지요?
김남형 : 네
조사자 : 몇 명씩 짜나요?
김남형 : 열두 집 정도 해 갖고.

◇ 화투풀이³⁹⁾

전기춘 : 일월송학 속상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오월난초에 날아들다
유월목단 ...

39) 마이크를 처음 들이대자 긴장해서인지 제 곡조가 못나오고 가사는 잊어버렸다. 이하 칠월부터는 소리가 아닌 사설로 읊어주었다. '칠월 흥싸리 허숙하고, 팔월 공산에 달도 밝고, 구월 국준, 시월 단풍에 다 떨어 지고, 동지설달 긴긴밤에, 나개만 떨어져도'

◇ 나물캐는소리

김순녀 :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씨찍새가 다파먹고 좃대만 간들간들

- 너무 내용이 진한 지 좃대가 아니라 조잇대라고 부연해 주셨다.

◇ 어랑타령⁴⁰⁾

전기춘 :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애기 단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연사연이로구나

김순녀 :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을 찍구요
 니탓이나 내탓이나 중매재(중매쟁이) 탓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에야 요것이 사령이로구나

간다 000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잡이나 자고가게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사령이로구나

◇ 뱃노래⁴¹⁾

김순녀 外 4인 :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 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거잔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40) 김순녀, 박선춘 두 분이 주도하시면서 나머지 분들도 모두 합창으로 해주셨다.

41) 김순녀, 박선춘 두 분이 주도하시면서 나머지 분들도 모두 합창으로 해주셨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에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기사머리 가려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 데레(테려) 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울너머 담너머 꿀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랑은 외밭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나는야 언제나 남자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노랫가락

김남형 : 대천바다 한가운데에 뿌리없는 나무새여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그나무에 열매가열었네 일월이나 명월이나

사람마다 벼슬을주면 일할농부가 어디있나
의사마다 병고친다면은 북망산천은 왜생겼소
아서라 끄지마라 화류계여자를 괘세마라

이몸이 학이되어 나래 에다 유명실고
천만리 날어를가니 이별이없는 곳일러라
그곳도 이별보시는 또천만년

오대환 : 가랑잎이 반들반들 고초뉘(고추잎)도 반들반들
우리동네 한처녀가 언제나봐도 반들반들

임나만나 고운얼굴에 연주찍고 분바르네
한손에다 술병들고 한손에다 술잔들어
깨끗하게 곱게입고 상코가는 지총각아
여자눈에 이럴때야 남자눈에 오죽하랴

조사자 : 노래를 언제 부르셨나요?

오대환 : 열댓 살에 불렀어.

◇ 양양팔경

김순녀 외 4인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조사자 : 이 노래는 언제 배우셨나요?

김순녀 : 7~8살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돌아다닌 거 배운 거지.

◇ 앵기땡기

전기춘 :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짜 발레 회양주

◇ 세상달강(아이 어루는 소리)

박선춘 : 실경달경
할머니가 서울가서 밤한되 사온거
고무락에 치뜨린거 머리까든 새양쥐가 다까먹고
한톨을 냄긴거 가매물에 삶아서
조리로 건져서 껍데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엄마주고 너랑나랑 알맹이먹자
실경달경

◇ 두껍아

박선춘 : 두껍아 두껍아

Ⅲ. 속초민요의 실제

헌집줄게 새집다오
두껍아

조사자 : 그거 언제 불렀나요?

박선춘 : 대여섯 살 때 불렀어요.

◇ 춘향이소리(신내리는소리)

박선춘 :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이도령님 만났을때
종글종글 내리시오
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박선춘 :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은 두 손바닥을 모으게 해놓고 여럿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손바닥이 슬슬 벌어져 춤을 추고 논다고...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대 신(선) 사람은 그게 안 돼.

◇ 추워추워춘달래

박선춘 : 추워추워춘달래
더워더워 던달래

◇ 내손이약손

전기춘 : 차례배 차례배
엄마손은 약손이다
싹싹 문질러 풀어줘라

◇ 핑서방

김추월 : 꺾꺾꺾 핑서방
자네집이 어딴너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밭이 내집이지

4) 속초시 동명동(東明洞)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함에 따라 속초리 2구가 동명동이 되었고, 동해 바닷가에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작명하였다. 동명항은 비교적 큰 항포구로서 인근의 배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15년 동안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마을에는 처음에 구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그후에 이씨, 신씨, 김씨의 순으로 정착하였다.

2000년 현재 이곳의 면적은 0.78km², 인구는 2190세대 5,865명으로 남자2,921명, 여자 2,94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7개통 8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이곳의 어촌계는 속초시 수협산하의 어촌계로 영랑동과 합쳐서 영동어촌계라 부른다.

동명동에는 속초팔경의 하나인 영금정의 등대전망대와 해돋이정자를 비롯하여, 바닷가의 활어횃집, 보광사 등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속초를 수복하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함경도 피난민의 성금과 1군단의 지원으로 母子像으로 된 수복 기념탑을 1954년 5월 10일 세워졌으나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부서져 그해 11월 17일 다시 세워졌다.

동명동 등대밑의 바닷가에 42.98평의 영금정이 있다. 옛날 이곳에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 야 겨우 맞닿을 정도의 큰 노송이 두 그루 있었고, 꼭대기 바위 바닥에는 장사가 천마를 타고 달린 말 자국이 있었으며 말 죽통같은 괴석도 있었다. 이 괴석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이거나 발로 차면 똑같은 징소리가 났으므로 징바위라고 불렀다. 또 괴이한 것은 파도가 석산 절벽에 부딪혀 신묘한 음곡이 들려왔으므로 이것은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하여 영금정이라 불렀다. 또한 밤이면 선녀들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묘한 음조곡을 즐기면서 놀던 곳이라 하여 비선대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위를 볼 수 없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속초항만 축항 공사 시 석재로 쓰기 위해 영금정 바위를 깨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동명동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옷날 2박3일 동안 열다섯 마당의 풍어굿을 성대하게 치루고 10월 달에도 지낸다. 대체로 매년 풍어제를 겸한 굿마당을 열고 있는데, 어민들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지금은 4년마다 별신제 풍어굿판을 열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의 성황제는 5월과 10월 지내는데 5월은 단옷날 10월은 택일하여 영금정 근처에서 소를 잡아 용왕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성황제사를 올렸으나 15년 전부터는 성황당에서만 용떡을 만들어 바치고 제사를 올린다.

최근 속초-자루비노-훈춘 간 항로가 개설되었고, 금강산 관광선도 동명항구에서 출발하고 있어 국제항로도도 각광받고 있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속초시 동명동 최재윤 씨택, 2002. 7. 2
최재윤 : 남 · 82

동명항을 찾아가 항구 주위에서 뱃소리를 할 만하 분들을 찾아보았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영동어촌계(영랑동과 동명동의 어촌계)를 찾아갔는데, 문은 잠겨져 있고, 마침 구판장 낚시가게를 운영하던 아주머니가 자신의 시부모를 추천해줘서 찾아가 옛날 뱃소리 몇 수를 채록했다.

최재윤 : 남 · 82, 속초시 동명동 1통 2반 영금정 아파트 / 속초 토박이로 오랫동안 뱃일을 하다가 지금은 연세가 많아 뱃일을 못 하고 쉬고 계신다.

◇ 놀배기소리 ⁴²⁾

최재윤 : 어야디아
어야디여
어아라 디여

◇ 그물당기는소리

최재윤 : 에야디어 어여라
댕겨보자 에여디여
에야디여 어여라디여
에야 어여디여
우리가 이지랄 아니하면
에야디여 어야디여
무신떡(떡)으로 살아볼까나

조사자 : 함경도 소리는 어떻게 하나요?

최재윤 : '다리고 내자 / 다리고 내자 / 어여디여 / 다리고 내자' 이게 함경도 소리입니다.

조사자 : 설망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최재윤 : 배를 진수식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기를 꽃고 배를 띄우고, 끌고 다니면서 장고, 팽과리 등 농악 치고 놀면서 바다에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 집에서 한잔씩 먹고 그러지요.

조사자 : 고기 푸는 것을 뭐라 하나요?

최재윤 : 가래소리라 합니다.

42) 놀배기소리란 노젓는소리다.

◇ 가래소리

최재윤 :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허어허야 데헤야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여차 자 자

최재윤 : 산대로 고기를 푸니까, 뱃사람들이 산대 덩겨 올릴 때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하고 산대가 넘어오면 덩기면 그러면 ‘야- 자-’ 하면서 힘을 써서 덩기죠.

◇ 산대소리

최재윤 : 이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이번 산대는 선원들 산대요.

◇ 든대질소리

최재윤 : 여-차 여-차

최재윤 : ‘여-차 여-차’ 하면서 배를 올리는 거지요. 이쪽에서 배를 들어올리면 저쪽에서 도배를 들어올려야 하는데 서로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로 소리를 맞춰 누르면 배가 쑥 올라가지요. 괴목을 놔요(놓아요). 거기다가 팔뚝같은 나뭇대기를 들이대죠.

조사자 : 가장 무서운 바람은 원산내기죠?

최재윤 : 원산내기란 것은 셋바람이죠. 맞바람은 겁을 안내요. 내바람이 그 다음에 무섭죠.

조사자 : 내바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최재윤 : 내바람은 다른 말로 하늬바람이라고 하죠. 맞바람은 마파람이라고 하고 ….

5) 속초시 영랑동(永郎洞)

영랑동은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를 4개 구로 나눌 때 속초리 1구가 되었던 지역이다. 속초읍이 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난 후 동제 실시에 따라 1966년 1월 1일 영랑호에 인접하였다고 해서 영랑동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영랑동은 삼짜개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부들이 동쪽을 새짜이라고 부르면서 연유하며 성황봉의 동쪽에 있다는 뜻이다.

영랑호란 이름은 신라시대 화랑인 永郎이 이 호수에서 즐겼다가하여 명명한 것이다. 속초시 서

Ⅲ. 속초민요의 실제

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 쌓인 둘레 8km, 넓이 약 36만평의 석호이다. 신라의 화랑인 영랑이 술랑, 남랑, 안상 등과 함께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명승지 삼일포에서 3일 동안 유람한 후 각각 헤어진다. 영랑은 동해안을 따라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호수를 발견하고 범바위 등의 자연경관에 매료당하여 서라벌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며 풍류를 즐겼다 한다. 고려 충정왕 원년 1349년 이곡이 쓴 『동유기』에 영랑호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이중환(1690~1752)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구슬을 큰못에 갈무리한 것 같다고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범바위는 속초팔경의 하나로 영랑호 중간지점 서남쪽에 잠겨있는 큰 바위로서 위엄이 당당하며 마치 범 형상으로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 불린다.

영랑동은 영랑동과 장사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7.58km², 인구는 2000년 현재 2,638세대 7,683명으로 남자 3,891명, 여자 3,792명이다. 동네 19통이 있다. 약 10만kg의 쌀을 생산했으며, 한우도 89두를 사육하고 있고(속초 관내 2위), 14ha의 조림지를 갖고 있고(속초 관내 1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가 17개소나 되는(속초 관내 1위)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영랑동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지정다지기가 전해온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횃불을 켜놓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먼저 토지신에 대한 제사를 드린다. 각종 제물을 차려놓은 다음 집사가 오늘 저녁에 영랑동 000씨 집을 짓기 위해 이웃이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고 축문을 읽는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을 다지러 온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술을 권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와 메기는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지정다지기 소리를 하며 다지다가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일꾼들은 ‘어어차 어이차 어이차’ 합성을 지르며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 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가며 술과 안주로 피로를 푼다. 이때에 농악대가 나와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쉬 다음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면 날이 어두워진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잘 다져 주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준비된 음식을 제공한다. (『속초시지』)

속초시 영랑동 노인회관, 2002. 7. 4
 최월선 : 여 · 77, 김윤문 : 여 · 84,
 김옥진 : 여 · 81, 최경희 : 여 · 82

며칠 전 최재운 할아버지가 소개한 김갑용 할아버지 덕(남촌 아구짬 = 며느리가 운영)을 찾아 갔더니 안 계셔서 인근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30여 평 크기의 방에 할머니 들만 30여 명 계셨다. 그 중에서 속초 출신으로 옛날소리 잘하는 분 두 분을 위주로 하여 4명에 계서 소리를 채록했다.

최월선 : 여 · 77, 영랑동 1통 5반 / 동해시 북평면 미도리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지는 50여 년이 넘었다.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 어디 나가 놀지도 못했고 소리도 별로 배우 지 못했다. 소리는 이곳에 와 많이 배웠다고 한다. 바우엄마로 이곳에서는 불리고 있었다.

김윤문 : 여 · 84, 속초시 영랑동 / 영랑동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다. 남편은 마 산사람으로 이곳에 장가 든 이후 이곳에서 같이 살았다. 옛날 창가를 잘하였다. 부모가 학교에 못 다니게 해서 밤이면 부모 몰래 가만히 나가 예배당에 가서 글을 배웠다.

김옥진 : 여 · 81, 속초시 영랑동 / 속초에서 부모 때부터 살아왔다. 남편은 어업을 하였고, 지금은 혼자 되었다.

최경희 : 여 · 82, 속초시 영랑동 / 양양에서 태어나 20살에 이곳으로 시집왔다.

◇ 성주풀이

최월선 : 나의경서(낙양성)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무덤에
 영역호걸(영웅호걸)이 몇몇이나
 절대가인이 그누구나
 우리인상도 아차죽어 잊으면
 저기저모양 되는구나
 에라만소 에라 대신이야

◇ 정선아라리

최월선 : 정선읍내 물레물반 남천물을 안고도는데
 우리집 저명텅구리 날안고돌줄 왜몰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Ⅲ. 속초민요의 실제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뉘게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뉘게주소
한치뒗산에 곤드레딱죽이 나지미맛만 같더면
고것만 뜯어먹어도 봄살어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뉘게주소

◇ 어랑타령

최월선 :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간다 좋아요 나도나 젊어서 노지요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어랑타령 본조조은 함경도 원산이요
시사시까미 본조종은 경성 신마찌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
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니가 내사령아

◇ 등계소리

최월선 : 등기등기 등기야
두둥두둥 등기야 먹으나 굶으나 등기야
두둥둥둥 등기야 우리아기 잘도자고
잘도논다 두둥둥 두둥 두둥기 등기야

◇ 어랑타령

김윤문 :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내사령을 뚝따다가 어드메경칠년 주고
사람만 보면은 생짜장만 내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내사령아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아기 단봇짐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간다 못간다 얼마나 올랐는지
 정거장 마당이 한강소가 되었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내사령아

◇ 이똥저똥⁴³⁾

김윤문 : 이똥 저똥 행기똥
 제 할미 곱새 똥
 이고리 저고리 갖고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짝 발래 회양주

◇ 그물바리하는소리

김윤문 : 어기여차 어기여차

◇ 헌니가져가고(이빨빠진아이보고하는소리)

김윤문 : 헌니 가져가고
 새니 나라

◇ 앞니빠진수망데이(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윤문 : 앞니빠진 수망데이 뒷골로 가다가
 오줌독에 미끄러져서 ...

최월선 : 앞니빠진 갈가지 뒷니빠진 수만이
 도랑건네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렐라

조사자 : 영금정에 전설이 있지요?

김옥진 : 영금정이 옛날에 너무 좋았어요. 돌맹이를 장사가 굴러 가지고 손자국도 있고 발자국도 있고, 좋았어요. 바위 깨 가지고 망가졌죠. 영금이 영감하다고 그랬죠.

최월선 : 청태산 마고할미가 살림 살았잖아요.

김옥진 : 그전에 한번씩 단오굿을 했어요. 마고할미이 추드리고 서낭님 추드리고 했어요. 지금 서낭

43) 다리를 뺏어놓고 서로 다리를 피면서 하는 소리이다. 다리가 마지막 소리에 맞으면 맞은 다리를 구부린다. 별 다른 별칙은 없다.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고 놀이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을 저리로 옮겨갔어요. 축항 하고 옮겨갔어요. 꽤 오래되어요. 그전에 뚝배 할 때에 사람이 많았지요. 새짜, 마짜이라고 마을이름을 불렀죠. 새짜는 여기고, 마짜은 동쪽이죠. 영랑동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 이똥저똥

김옥진 : 이똥 저똥 행기똥
제 할미 곱새 똥

◇ 앞니빠진 수망데이

김옥진 : 앞니빠진 수망데이 뒷골로 가다가
오줌독에 미끄러져서 개똥에 빠졌네

◇ 비둘기소리

최월선 : 부꼭부꼭 현투데기 목에 걸고
지직지직 죽고 물가천지 숲에 하고 ...
어린자석(자식) ...

◇ 다복녀

김옥진 : 다복다복 다복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니
우리엄마 몽진골로 젓먹으러 간다
최월선 : 다복다복 다복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젓줄바라 울고간다
살경말에 삶은팔이 싹이나면 느어머니 오마더라
생팔이야 싹이나지 삶은팔이 싹이날수냐
다복다복 다복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젓줄바라 울고가네
느어머니 젓을짜서 구름질로 띄워주마 (그리고 뭐가 붙는데)
다복다복 다복네야 니어디로 울고가나
울어머니 몽진골로 신발없어 울고가네
다복다복 다복네야 느어머니 신발사서
바람질로 띄워준다

◇ 형님오네 형님오네

최월선 : 형님오네 형님오네 분고개로 형님오네
 형님마중 누가갈까 반달같은 내나가지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형님형님 그말씀마오
 행주초매 아홉쪽이 눈물콧물 다닥았네
 형님형님 그말씀마오
 삼단같은 내머리가 비사리초미 다되었네
 분질같은 요내손이 깍쟁이야 다되었네

◇ 노랫가락

최월선 : 일났네 봉산가자 일악산 까마귀골로만 든다
 그대불린 정불리나 그대불린 정불리나

◇ 장타령

최월선 : 어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어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또한대문이 들어간다
 이대문을 댕겨서면 겨우살이를 면해
 어얼씨구 잘한다. 저얼씨구씨구 잘한다.

◇ 베들가 ⁴⁴⁾

최월선 :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되누나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짜며 놓아
 낭군님 와이셔츠나 기워줄까
 에헤야 베짜는아까씨 베틀에 수심만 되누나

44) 베틀가는 삼척에 있을 때 배웠는데 이제는 다 잊어먹었다면서 ‘잉엇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독신이로다. 베를 짜세 베를 짜세’ 등 가사가 많은데 다 잊어먹었다며 아쉬워하였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평서방

김옥진 : 평아평아 평서방 자네집이 어딴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덤불밑이 내집이지

조사자 : 이곳도 영등을 하나요?

김옥진 : 그전에 했지. 쇠고기 들어오면은 달아 매놓고, 들어오는 거마다 달아매 났다가 떡해 놓고 2월 초하룻날 고기 찌놓고 찌지개 하고 한데(바깥)다 놓고 지냈죠. 영등 때 마다 했죠. 15일 올라가고 20일 마저 올라가고, 비가 오면 며느리 데리고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좋지요. 예전에는 많이 모셨지요. 지금은 아이(아니)해요. 예전에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했죠.

조사자 : 배성주 제사도 지내나요?

김옥진 : 배성주 제사는 좋은 날 날 받아 하죠. 초지조(종이)에 실 묶어 가지고 달아놓아요. 여성주도 있고 남성주도 있어요. 똑같이 모셔요.

조사자 : 단오날에도 제사를 지내나요?

김옥진 : 단오날 무당이 와서 굿을 하지요.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은 3년마다 한번씩 해요. 어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깐 1년에 한번씩 못해요.

◇ 내손이약손

김옥진 : 내손이 약손이다
 내손이 약손이다

◇ 아리랑

최월선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뱀계주소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 조리 없어요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뱀계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뱀계주소
인자당신은 어데로갈라고 신발단장 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뱀계주소

-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대목에선 갑자기 주위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셨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보복대’의 원한이 사무친 까닭이다.

◇ 아이재우는소리

김옥진 :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최월선 : 자장자장 어리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낫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깰다 자장자장

◇ 형님오네 형님오네

최경희 : 형님오네 형님오네 분고개로 형님오네
 형님마중 누가가나 반달같은 내가가지
 니가어째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 오고리도고리

최월선 : 오고리 도고리 갓고리
 중지 망근 도망근
 갓고리 회...

◇ 새야새야 파랑새야

김윤문 :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가 울고간다

◇ 니나니난실⁴⁵⁾

김옥진 : 니나니난실 날라리아 니나니 니나니난실 날라리요
 울긋불긋 하지마라 꽃이피니 니나니난실
 나비상상 너풀너서 춤을추니 니나니난실
 니나니난실 날라리요 니나니 니나니난실 날라리요
 내가가면은 아주나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소나
 얼씨구나좋다 기화자좋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45) 어렸을 때 속초지방에서 불리어지던 노래라고 설명해주셨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나가가면은 아주나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소나
나나난실 날라리요 나나니 나난실 날라리요

◇ 양양팔경⁴⁶⁾

김옥진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에 동해야 뒷뜰에 설악산
에야나 기화종다 낙산사로다
에에에 좋구종다 팔경이로구나

◇ 어랑타령

김옥진 :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이로다
올려다 보면은 안창님의 비행기 내리다보면은 김복동의 자전거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랑이로다
다듬이다듬이 연다듬이 어깨넘어서 놀고
니하고 나하고 한이불속에서 논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내사령을 똑따다 어느경칠년 주고요
말한마디만 잘하면 천상연분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아실아실 춤거든 내품에 들고요
비계(베계)가 낮거든 내팔을 비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야 내사령아

조사자 : 다듬이질 할 때 부른 소리가 없나요?

김옥진 : 다듬이 할 때 (소리 없이) 그냥 하고, 연다듬이(위의 어랑타령) 소리도 했어요.

46) 이 노래는 어려서 배웠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할머니들이 같이 합창을 해주셨다.

속초시 영랑동 개인 집, 2002. 7. 6

김영애 : 여 · 78, 김갑용 : 남 · 79

뱃소리를 채록하기 위해서 며칠 전 최재운 할아버지가 추천한 김갑용 할아버지가 노는 곳을 수소문해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실제 할아버지는 뱃소리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다른 소리를 몇 수 해주셨다. 마침 그곳에서 같이 노시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해주어 다행히 몇 수 채록할 수 있었다.

김영애(榮愛) : 여 · 78, 속초시 동명동 3통 4반 / 양양에서 출생해 19살에 이곳으로 시집왔다. 남편은 뱃일을 하였으나 젊어서 돌아가셨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주위에 누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배웠다.

김갑용 : 남 · 79, 영랑동 1통 1반 / 경주 김씨로 이곳에서 11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다. 아들이 남천 아구찜을 근처에서 하고 있다. 옛날에는 배를 많이 탔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뱃소리는 못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것 몇 곡 해주셨다.

◇ 노랫가락

김영애 : 놀아요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다시젊지는 못하리라

◇ 나물하는소리

김영애 : 산과들이 쌓였던 눈은다녹고
따뜻하고 유쾌한 봄돌아왔네
푸른풀나고 나뭇잎뜬어
중달새울고 나비는OO
솔솔부는 봄바람 춤을추는데
늘어진 버들가지 휘날린다
영간에건건 남발하였소
금수강산 보기 좋게 단장하였네
농부들은 소몰고 들에나가서
밭갈고 심하기를 분주하더라

Ⅲ. 속초민요의 실제

- 이 노래는 시집오기 전에 배운 노래로 처녀 적에 산에 나물하러 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창가조로 불렀는데 위 ○○ 부분은 자신 없는지 그냥 어물어물 부르셨다. 다시 한 번 소리를 부탁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 화푸풀이

김영애 : 일월송학에 속속한맘이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에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어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준에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고
오동지나선달에 오신다는님이	선달눈비도 아니오네

◇ 이똥저똥⁴⁷⁾

김영애 : 이똥 저똥 행기똥
지 할미 곱새 똥

◇ 돌아간다

김영애 : 돌아간다 돌아간다

김영애 : 종지를 돌리면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냥 그렇게만 했지요. 종지를 붙잡으면 그 사람이 안 하고...

◇ 두껍아 두껍아

김영애 : 두껍아 두껍아
현집 줄게 새집 다오

◇ 이빠진 갈가지

김영애 : 이빠진 갈가지 뒤축골로 가지마라
 개똥에 넘어지면 ...

47) 여럿이 다리를 서로 뺏어놓고 소리를 하다가 끝말에 맞는 다리는 구부린다. 구부린 다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리를 대상으로 또 해서 또 맞는 다리를 구부리고 한다.

조사자 : 빠진 이빨은 어떻게 하나요?

김영애 : 빠진 이빨은 지붕에 던지며 새이 나게 해달라고 하지요.

조사자 : 아랫니는 어떻게 하나요?

김영애 : 웃니나 아랫니나 똑같아요.

◇ 장타령⁴⁸⁾

김영애 :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장정 통일되기만 기다리고
 이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이수건너 백로주가 백로나펄펄 휘날린다.
 삼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삼팔선이 가로막혀 부모처자를 다 잃었소
 사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사주팔자 기박하여 장돌뱅이가 되었구려
 오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오리안팎에 계신님을 만나볼날 그지없네
 육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육관대사 성진 팔선녀테리고 춤을추네
 칠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칠보단장 누구에게 보이려 집을나가나
 팔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팔자에 만석이만 남아 고생문이활짝 열렸구려
 구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구박맞던 우리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찼네
 십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십년만에 찾아오니 고향산천도 변했구나
 지리구도 지리구도 잘해

조사자 : 만석이가 누구죠?

김영애 : 만석이라고 말만 들었지 몰라.

◇ 산비둘기우는소리

김영애 : 두둑두둑
 현투데기 목에 걸고...

◇ 권주가

김영애 : 잡으시오 자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48) 옛날 장타령은 못하고 요즘하는 장타령이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 평서방

김영애 : 꺾꺾꺾꺾 평서방 자네집이 어딴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밑이 내집이지

◇ 내손이약손

김영애 : 내손이 약손이다
 내손이 약손이다

◇ 양양팔경

김영애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에 동해안 뒷뜰에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야나 좋구좋다네 팔경이로구나

◇ 뱃노래

김영애 :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나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두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나여차 뱃놀이 가잔다

◇ 신세타령

김영애 :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들고
 찾는것은 냉수만찾고 부르는것은 어머니라
 약을쓰니 약발을받나 침을놓으니 침발받나
 침발도나 약발도 아니받고 영영히 가셨는데
 소매도 일곱매끼요 헌매끼도 일곱매끼요
 이칠십사 열네매끼를 묶어
 소방산 대들위에 덩그렇게 실어놓고
 상두꾼만 발맞춰라 초롱꾼아 불밝혀라

어허년차 하는소리는 북만(북망)의 산천이 들어오네
북만의 산천이 멀다더니 저건네 저산이 북망일세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에 저승이라
쑥대로 울을삼고 뗏장을 입을삼고
황토나흙을 밥을삼고 근심없이 누웠으니
어느네 형제가 나를찾으며
어느네 친구가 나를찾나
찾는사람 전혀없네
잠든날 병든날을 다제하고 나니
당사십도 못먹는 우리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이 인생인데
우리나 한세상 사는것이 어찌나 요리도 허무하나

조사자 : 이 소리 제목은 무엇인가요?

김영애 : 제목은 몰라요. 신세타령 한가지죠. 중년에 배웠어요. 마지막 가는 노래잖아요.

◇ 방아개비부리는소리

김영애 : 저녁거리 찌라 저녁거리 찌라
아침방아 찌라 저녁방아 찌라

◇ 든대질소리

김갑용 : 어- 하 어- 하

김갑용 : 어- 하 하면 저쪽에서 놀리고 이쪽에서 놀리고 해서 배를 조금씩 앞으로 밀죠.

조사자 : 그걸 든대질이라고 하나요?

김갑용 : 네.

◇ 그물땡기는소리

김갑용 : 어샤어샤

조사자 : 가래소리는 어떻게 하지요?

김갑용 : 그건 정치망하는 사람들이 하지, 우리들은 안 해.

Ⅲ. 속초민요의 실제

◇ 놀배기소리

김갑용 :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조사자 : 놀배기소리요?

김갑용 : 일본 아(애)들은 ‘어여차 디야 어여차 디야’ 하는데, 한국인도 그 비슷해. ‘어이야디아 어이야디아’ 했지. 사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지.

조사자 : 망쟁이 있죠?

김갑용 : 일본말로 ‘오끼야’ 라고 하지. 고기가 오면 기를 가지고 신호를 하죠.

◇ 창부타령

김갑용 : 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잊어라 꿈이로구나 모두다 잊으라 꿈이로구나
옛날옛적 과거지사는 모두다 잊으라 꿈이란다.
나를싫다고 나를놔두고 나를버리고 가는님아
잊어야만 옳을줄을 나도우연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믿음이나마 그래도 못잊어 아니로다
얼씨구절씨구 기화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어랑타령

김갑용 : 날모세 같거라 나를다려를 가거라
정달이 지도록 나를데려 가거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디어라 좋다 나사령이로다
청치마 밑에다 과수죽병 달고요
북동네 수풀로 입을차서 가란다
어야디아 어허야 어허야디어라 좋다 나 령이로구나

6) 속초시 장사동(章沙洞)

장사동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이곳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이

곳에는 동예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다.

장사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간성군 토성면 소속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에 간성군이 없어지면서 한때 양양군에 속해 있다가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속초의 팽창에 따라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리로 편입되었다. 두 마을이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장사동이라 이름하였다.

사진리는 오늘날 장사동의 중심지역이다. 조선 후기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에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렸다. 이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하고,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웃하는 용촌리도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두 마을을 구별하기 위해 사진리는 나룻모래기, 용촌리는 촌모래기라고 부른다.

장천리(獐川里)는 영랑호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는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하는 노루 장(獐)자를 썼다고 한다. 마을 앞 냇가를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일제강점기 때 노루 장(獐)을 글 장(章)으로 바뀌 불렀다.

장사동에 처음 정착한 이는 차씨와 기씨인데 당시는 15세대 정도였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과 고성군 현내면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늘어났다. 반농반어로 1997년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20여 호 남짓 된다. 7.07km² 802세대 2,653명이 살고 있으며 5통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성황제사는 매년 옷마을에서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있다. 풍어제는 5년에 한 번 정도 지낸다. 장사동에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통천군민의 순국동지충혼탑, 해양경찰 충혼탑, 이형근장군 덕정비 등 여러 탑과 비(碑)가 세워져 있다.

동해안은 항구의 유무에 따라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으로 나뉘는데, 장사동은 속초의 대표적인 날바리땅이었다. 날바리땅에서는 배를 진수시킬 때 든대질을 해야만 했다. 날씨가 꺾을 때는 아주 빠른 동작으로 해야 배의 파손을 막을 수 있었고, 반면에 날씨가 좋을 때는 허리도리(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다른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 등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사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든대질소리는 전용암, 박인성, 김형준, 김동성 등에 의해 민속놀이로 재현되었는데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든대질로 배를 처음 진수시키면 우선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그후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농악을 울리며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Ⅲ. 속초민요의 실제

속초시 장사동 축항, 2002. 5. 6

서영복 : 남 · 61

아침에 대포동 어촌계와 노인정을 잇따라 방문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점심 이후에는 장사동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다들 관광을 가시고 노인정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바닷가 축항으로 나가 그물을 손질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채록을 하였으나 헛되이 시간만 허비하다가 겨우 한 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서영복 : 남 · 61, 장사동 15통 1반. 속초시 장사동 토박이로 평생 해업에 종사하였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흔쾌히 한 곡 불러주셨다.

◇ 그물당기는소리

서영복 : 다리어 다리어 허야

다리어 다리어 허야

서영복 : 그물을 당길 때 고기가 엄청 나게 많이 올라오면 (그물을) 칼로 잘라 남겨놓고 그냥 돌아와 풀어 놓은 후 다시 나간다.

조사자 : 요즘은 어떤 것을 많이 잡나요?

서영복 : 콩치, 놀래기 등이 잡힌다. 속초는 명태가 일년 농사인데 명태가 요즘은 없다.

조사자 : 든대질이란 뭐죠? 그때도 소리를 하나요?

서영복 : 배를 올리고 내리는 거다. 그때 소리가 있는데 다 잊어 먹었다야. 배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맞추어야 하니까 ‘허이 허이’ 하면서 하지.

속초시 장사동 바닷가, 2002. 5. 6

김태흥 : 남 · 75

서영복에게서 채록을 한 후 저쪽(속초시 장사동 축항)을 손가락질하면서 그쪽에 가면 가리비 손질하시는 여자 분들이 소리를 곧잘 한다면서 추천을 해주셨다. 그곳을 찾아갔더니 소리를 해 줄듯하면서 끝내 해주지 않는다. 아마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다시 바닷가로 다시 나와 마침 양미리 그물을 손질하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소리를 부탁했다.

김태홍 : 남·75, 청호동 12통 3반 미림마을 / 이북 출신으로 24살에 월남하여 어업에 종사했다. 뱃소리는 고향에서도 배웠지만 대부분은 여기 속초에 와서 배운 것이다.

조사자 : 배그물 작업할 때는 속초에 소리가 있던가요?

김태홍 : 여기서 손질할 때는 소리 없다. 다만 고기를 가득 싣고 올 때 '여사여사 여사여사' 라고 하더라.

◇ 고기잡아오는소리

김태홍 : 여사여사 여사여사

속초시 장사동 노인회관, 2002. 6. 30

남복우 : 여·84, 김정자 : 여·68, 이옥란 : 여·78

예전에 찾아 왔을 때는 아무도 없더니 마침 오늘은 할머니 여러 분들이 화투를 하고 계시다가 선선히 채록에 응해주셨다. 장사동 노인회관은 횃집건물 3층에 있었는데 동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동쪽을 장식하여 전망이 무척 좋았다.

남복우 : 여·84, 장사동 / 거진면에서 출생하여 18살에 이곳에 시집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 농사도 짓고 뱃일도 한때 했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김정자 : 여·68, 장사동 /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이 고향이다. 강릉시 사천면으로 시집갔다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지났다.

이옥란 : 여·78, 속초시 장사동 / 고향은 고성군 봉포리(장사동 바로 위)인데 여기 온 지 10년이 된다.

◇ 한알개 두알개

남복우 : 한알개 두알개
삼사 너구리
똥개 망개
참낭그 지계통
고불통 내아들

조사자 : 이 소리는 언제 하나요?

남복우 :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로 집어넣은 후 다리를 치면서 부르는 거죠.

Ⅲ. 속초민요의 실제

조사자 : 당첨되면 어떻게 하죠?

남복우 : 그러면 밭을 이렇게 고부립니다.

◇ 각시방에 불켜라

남복우 :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 권주가

남복우 : 잡으세요 잡으세요 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이술은 받아서먹으면 천년만년을 살고지고

◇ 배슬어주는소리

남복우 : 배야배야 아프지 말아라

할머니손이 약손이다.

◇ 꿩서방

남복우 : 꿩꿩꿩 꿩서방

자네네 집이 어디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덤불밧이 내집이네

◇ 등계소리 ⁴⁹⁾

남복우 : 등기등기 내사랑

얼싸좋다 내사랑아

우리손주 어디갔나

둥둥둥둥 내사랑아

얼싸좋다 내사랑아

우리손주 풀미하면서

잘도놀구 잘크네

◇ 어랑타령

김정자 : 에헤 개울개울 빨래질소리 시내강변이 울고요

다듬다듬이 연다듬 질가는행각이 우노라

49) 아이를 앞뒤로 흔들며 하는 소리이고, 아이를 옆으로 흔들며 할 때는 ‘풀미 풀미’ 한다고 설명해주셨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시절이 좋아서 노잔다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가는 소리
 고무공장 큰아기 벤또밥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요것두 몽땅 내 사랑

맹지(명주) 스차스치(석자석치)를 잃고서 집안이 들썩하는데
 눈치없는 저총각 목도리하고 왔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 시절이 좋아서 노잔다

◇ 아리랑

김정자 : 명사십리가 아리라면은 해당화는 왜피나
 춘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우나
 술과 담배를 날권하지 말고
 후원별당 잠든큰애기 날권해주게
 달뜨는 동산에 달이떠야 좋고
 임오는 동산에는 임이와야 좋네

◇ 뽕북새소리

이옥란 : 헌투데기 목에걸고 지집죽고 자식죽고
 뽕북뽕북 뽕북새야

◇ 세상달강

김정자 : 세상달경
 서울로 가다가 밤한 톨을 주어서
 고무락에 던졌더니 새양주(새양쥐)가 다파먹고
 한톨은 남은거 껍대기는 애비주고
 보물은 애미주고 속알맹이는 니하고나하고 둘이먹자
 달경달경달경

남복우 : 달강달강 하다가 질루질루 가다가
 밤 한톨 얻어서 고무다락에 치뜨렸더니
 새양쥐가 다먹었네 껍대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어멈주고 알맹이는 니하고 나하고 둘이먹자
 달강달강달강달강

Ⅲ. 속초민요의 실제

◇ 곤지곤지 잼잼

남복우 : 잼잼 재미야	짜지짜지 짜지짜지
곤지곤지 곤지야	도리도리 도리야
아이구 우리손주는	잘도하네 잘도해

◇ 창부타령

남복우 :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나나노지는 못하리라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도 높은사랑이 사해같이도 깊으구나
칠년대한 왕가물에 빗발같이도 솟는사랑
광명하에 춘향이는 이도령하고도 춘향인데
일년열두달 삼백육십오일에
하루만이라도 못보아도 못살겠네
이리리리리리리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조사자 : 이빨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남복우 : 젓니 간다고 해요. 빠지면 지붕에 던져요. 소리는 모르겠어.

속초시 장사동 축항, 2002. 7. 2

김현배 : 남 · 49, 김성용 : 남 · 47 그 외 2인

장사동 축항으로 나가 현장에서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뱃소리를 채록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무동력선이어서 뱃소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가 동력선이어서 뱃소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40-50대 된 뱃사람들 몇 명이 옛날에 들었던 소리를 몇 곡 해주셨다. 김현배와 김성용 외에도 다른 몇 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록에 응해주셨다.

김현배 : 남 · 49, 속초시 장사동.

김성용 : 남 · 47, 속초시 장사동.

◇ 그물땡기는소리

김현배 : (푸름하다. 물밀이 푸름하다. 기분조타 오늘, 참 운이 좋다.)
어이사 어이사

조사자 : 고기 땡길 때 뭐라 하나요?

김현배 : 고기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물 땡기면서 '푸름하다 물밀이 푸름하다 기분조타 오늘 참 운이 좋다' 하죠. '어기야 영차' 하면서 땡기죠. 빨리 땡길 때는 '어이사 어이사' 하면서 땡기죠. 그러면 옆에서도 '어이사 어이사' 해야 힘이 안 들어요. 옛날 분들은 고기 걸린 걸 갖고 맞은 고기는 천천히 하라 하지만 (요즘은)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빨리 하죠. '고기야 잘 죽었다 내가 산다 / 고기야 잘 죽었다 내가 산다' 고 하지요. '또' 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다리어 다리어' 하죠. 옛날 일본말이죠. 써서는 안 되는데, 계속 다리어는 고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올라왔네' 라는 말을 안 써요. '푸름하구나. 강물은 꺼먼데 고기가 걸리니까 푸름하구나' 하지요.

◇ 든대질소리

김현배 : 자-자- 어샤
자-자- 어샤
자-자- 어샤

김현배 : 옛날에는 목선을 땡하고 갈대대면은 양쪽에 두 명씩 4명이 목도를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요. '자-자- 어샤' 하면 목도꾼들이 이거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밑에서 목도 판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치는 사람은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하면 빨리빨리 바쳐주고

자- 자 (낮은 목소리로) 하면 천천히 받쳐주고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자- 자- 어샤 (힘차게 빨리) 하면 신이 났어. 배가 번쩍 빠쩍 올라갈 때는 밑에 사람이 얼른얼른 받쳐주어야 돼.

근데, 자-자 어샤 (낮은 목소리로) 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주민A : 배를 처음 내리는 것은 진수식이고, 그물을 처음 하는 것은 설망한다고 하죠. 그날에 어촌계 회원들이 동합해서 굿판식이라고 해서 자기 항구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는 술 한 잔 먹고 식사하고 나누는 거죠.

조사자 : 멸치 털 때 어떻게 하나요?

주민A : 여긴 지금 털지는 않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후리는 해요. 후리는 트롤식이죠. 거기에 노랫가락은 없어요. 멸치배, 정치망 대로 용도가 있어요. 난 정확한 것은 몰라요.

조사자 : 지어소리라고 있죠? 산대소리라고, 고기 뜰 때.

김현배 : 가래소

김성용 : '가래소' 가 아냐. '가래라소' 야

Ⅲ. 속초민요의 실제

김현배 : ‘가래라소?’ 어, 맞아.

김성용 : 떡 줄기 당길 때

김현배 : ‘감아라 감아라’ 그러지

김성용 : 구성지게 하면서, 욱 식으로, ‘아 이놈아 감아라’ 하지요. 정기복이 형 아버지가 하는 것 보면, 콧소리를 하잖아. 앞에서 소리를 매긴단 말이야. ‘에야에야’ 땡기면 만철이 아버지는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잖아 ‘에야에야’ (흥내내면서) 하잖아.

주민A : 방씨 아저씨는 ‘물어가자’로 하는데, 남들은 몰라. ‘밀어가자’는 뜻이야. 사투리죠.

◇ 노젓는소리

김성용 : 에라소 가래라소

김현배 : 에라솔 가래라솔

김성용 : 다리어나자 하는 것은 놀매기소리, 즉 노 젓는 소리라구.

‘에라소 가래라소’라 하지

김현배 : 바쁠 땐 ‘에라솔 가래라솔’ (힘차고 빠르게)이라고 하잖아.

김성용 : (그건) 산대 푸는 소리야.

◇ 멸치터는소리

김현배 : 자-자- 자-자-

자-자- 자-자-

김현배 : ‘자-자- 자-자-’ 하다가 고기가 많다 이거야. 고기를 빨리 털어야 돼. 그러면 ‘자- 자- 자-자-’ (빨리) 하면 옆에서 또 ‘자-자- 자-자-’ (빨리) 하지. 창자고 비늘이고 막 튀어서,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하는 거지.

◇ 그물당기는소리⁵⁰⁾

김성용 ;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혜산자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이통저통	에이산자	이통산을	에이산자
	다리고보세	에이산자	에혜산자	에이산자
	에혜산자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50) 후렴 ‘에이산자’는 김현배 외 주민 2명이 해주셨다.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혜산자	에이산자
넘어지고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신고신고	에이산자	당기어보세	에이산자
에라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에이산자

◇ 고기숫자세는소리

김현배 : 하나이란다이 둘이란다이 서이란다이
 서이 다음에 너이란다이
 다섯이라 여섯 일곱이란다이
 여덟 아홉이라는데
 열이로구나 (그러면 한 두릅이야. 넘어가는 거야)
 열에 하나 열둘 열셋란다이
 열너이 열다섯이라는구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이라
 열 스물이라

김현배 : 열 다음에 스물이 넘어가고 열 다음에 서른이 넘어가고 ‘열’은 항시 서요. 열 스물, 열 서
 른, 열 마흔 이렇게 가고, 열 구십까지 나가다가 열 첫백이요 하고 나가요. 명태나 오징어
 세아릴(셀) 때, 목청이 서글프면은 안돼. ‘서이너이란다이’ 하면서 고기잡을 시간을 주어야
 돼. 참 옛날 목소리가 정다운 목소리야.

김성용 : 고기를 잡을 때 금방 집을 수도 있고 금방 못 집을 때는 말을 끈다고, 그래서 ‘-런 데’를
 몇 번이나 들어간다고. 명태를 두 마리씩 집어야 해, ‘하나인데 둘이란데 서이란데’ 하다가
 ‘너’ 자가 못 들어갔단 말이야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면 ‘서이 다음에 다시 너이란데’ 하
 고 넘어가는 거야. 미처 못 잡으면….

주민A : 고기 많이 잡은 사람은 ‘하나이구나, 둘 서이너이 다섯 여섯’(빨리) 이렇게 넘어가
 는데 못 잡은 사람은 ‘하나로구나 둘이로구나’ (천천히)

속초 도문메나리(논매는 소리)

♩ = 38 실음은 9도아래 3 노래: 김남형, 채보: 김혜정

매 여 나
주 계
매 여나 으 에 에
주 계 헤
요 논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Detailed description: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aditional Korean folk song. It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The tempo is marked as ♩ = 38.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 or D minor), indicated by the '실음은 9도아래' (one flat) note.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the notes. There are several triplet markings (the number '3') above specific groups of notes. The lyrics are: 매 여 나, 주 계, 매 여나 으 에 에, 주 계 헤, 요 논,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동 창
솟 은 으
해 가 이
반 공
중 애
늪 이 어 아어 떳 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with some syllables spanning across multiple notes.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속초 니나니난실

♩ = 50 실음은 4도아래

노래: 김옥진, 채보: 김혜정

니 나 니난 실 날 라 리 요

나 나 니나니난 실 날 라 리 요

웃 굿 불 굿 하 지 마 라

꽃 이 피 니 니 나 니난 실

나 비 상 상 너 풀 너 서

춤 을 추 니 니 나니난 실

니 나 니난 실 날 라 리 요

나 나 니나니난 실 날 라 리 요

7

속초 양양의 노래

♩ = 48 신음은 5도 아래

노래 : 김옥진, 채보 : 김혜정



산 좋고 물 좋은 양양 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팔경 이로다



앞뜰에 동해야 뒷뜰에 설악산



에야 기야 좋다 낙산사로다



에에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속초 나물캐는 소리

♩ = 42 실음은 5도아래

노래: 김영애, 채보: 김혜정

산 과 들 이 쌍 었 던 눈 은 다 녹 고
따 뜻 하 고 유쾌 한 봄 돌 아 왔 네
푸 른 풀 나 고 나 못 일 뜯 어
중 달 새 울 고 나 비
술 술 부 는 봄 바 람 춤 을 추 는 데
늘 어 진 버 들 가 지 휘 휘 날 린 다
영 간 에 건 진 남 발 하 였 소
금 수 강 산 보 기 좋 게 단 장 하 였 네

농 부 들 은 소 물 고 들 에 나 가 서
 밭 갈 고 심 하 기 를 분 주 하 더 라

속초산대소리

♩ = 100 실음은 9도아래 노래: 김성용, 채보: 김혜정

(땡) 에 이 산 자(밭)에 이 산 자 (땡) 에 헤 산 자 (밭)에 산 자
 에 라 산 자 에 이 산 자 에 이 산 자 에 산 자
 이 통 저 통 에 이 산 자 이 통 산 을 에 이 산 자
 다 리 고 보 세 에 이 산 자 에 헤 산 자 에 이 산 자
 에 헤 산 자 에 이 산 자 에 라 산 자 에 이 산 자
 에 이 산 자 에 이 산 자 에 헤 산 자 에 이 산 자

속초 화투놀이

♩ = 55 실음은 5도아래 노래 : 김영애, 채보 : 김혜정

일 월 송 학 에 속 속 한 맘 이
이 월 매 조 에 맺 어 놓 고
삼 월 사 쿠 라 산 란 한 마 음
사 월 흑 사 리 에 허 사 로 다
오 월 난 초 에 나 비 가 되 어
유 월 목 단 에 춤 을 추 고
칠 월 흥 대 지 홀 로 누 워
팔월 공 산 에 달 이 밝 아

구 월 국 준 에 굳 었 던 마 음

시 월 단 풍 에 나 떨 어 지 고

오 동 지 난 설 달 에 오 신 다 는 님 이

설 달 눈 비 에 도 아 니 오 네

속초 지경다지기(집터닦는 소리)

♩ = 55 실음은 10도아래 노래 : 김남형, 채보 : 김혜정

(백) 산 지 조 종 은 곤 룬 산이요(받) 에 헤 라 달 헤 야
주 지 조 정 은 황 해 수 라 에 헤 라 달 호 야
백 두 산 이 생 겼 구 나 에 헤 라 달 헤 야
백 두 산 산 맥 이 흘 러 내 러 에 헤 라 달 헤 야
금 강 산 이 되 었 구 나 에 헤 라 달 호 야
금 강 산 산 맥 이 흘 러 내 러 에 헤 라 달 호 야
설 악 산 이 되 었 구 나 에 헤 라 달 호 야
설 악 산 산 맥 이 흘 러 내 러 에 헤 라 달 호 야

주봉 산이 되었 구나 에 헤 라 달 호야

주봉산 산맥이 흘러 내 려 에 헤 라 달 호야

이 집 터가 되었 구나 에 헤 라 달 호야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에 헤 라 달 호야

소리 맞춰 잘도 찍소 에 헤 라 달 호야

속초 주머니소리

♩ = 62 실음은 9도아래

노래: 김정수, 채보: 김혜정

양 석 단 두 루 미 주 머 니
만 수 문 장 에 글 자 를 새 겨
굵 은 새 베 는 수 를 놓 고
잔 새 베 삼 칠 놓 고
삼 태 성 에 끈 을 달 아
뒷 동 산 시 누 대 끝에 달 아 놓 고
을 라 가 는 구 관 책 방
내 러 오 는 신 관 책 방

이 주 머 니 구 경 하 고 가 소

이 주 머 니 주 가 지 은 주 머 닌 가

하 늘 이 라 무 자 선 녀 지 은 주 머 니

무 자 선 녀 그 주 머 니 지 어 놓 고 어 디 를 갔 소

양 대 산 으 로 구 름 을 타 고 비 주 러 갔 소

속초 천자뒹pol이

♩ = 67 실음은 7도아래

노래: 김정수, 채보: 김혜정

자 시 에 생 천 하 니 유 유 지 천 에 하 날 천
축 시 에 생 지 하 여 오 향 을 맡 았 으 니
양 생 만 물 따 지 유 현 미 목 흑 정 색
북 방 현 무 검 을 현 궁 상 각 치 좌 우 동 서
남 북 중 앙 토 색 에 누 루 황
천 지 사 방 이 몇 만 리 나 하루 광 한 루 집 우

속초 한글 뒤틀이

♩ = 56 실음은 8도아래

노래 : 김정수, 채보 : 김혜정

지역 자 로 집을 짓고 지긋 지긋 이사 잤더니
 인연 조차 지중 치못 하오 가 가 거 겨
 가 이 없 는 요 내 몸 은 그 이 없 이 되었 구 나
 고 교 구 구 고 상 하 던 우 리 낭 군
 곧 전 하 기 가 짝 이 없 소 나 나 너 녀
 나 귀 등 에 손 질 하 여 조 선 팔 도 유 량 하 자

속초 담바구타령

♩ = 55 실음은 10도아래

노래 : 박계량, 채보 : 김혜정

구 야 구 야 담 바 구 야
너 네 국 이 어 땡 길 래
우 리 나 국 도 좋 지 만 은
대 한 의 국 으 로 유 람 할 제
돈 도 없 구 운 도 없 어
담 바 구 씨 들 가 저 왔 지
저 기 저 기
저 산 아 래

담 바 구 씨 를 뿌 렸 더 니
 낮 이 면 은 태 양 을 받 고
 밤 이 면 은 찬 이 슬 맞 어
 곱 게 곱 게 길 러
 천 하 비 수 드 는 칼 로
 와 썩 와 썩 비 어 서
 영 감 에 씹 지 도 한 씹 지
 할 멈 의 씹 지 도 한 씹 지
 아 들 의 씹 지 도 한 씹 지

Ⅲ. 속초민요의 실제

며 늘 의 씹 지 도 한 씹 지

손 자 의 씹 지 도 한 씹 지

부

부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경과보고

- 1991년 속초민속조사를 통해 도문메나리 가사와 전승실태 조사
- 1994년부터 제1차 속초민요조사(도문메나리 채록)
- 1998년 제2차 조사(가창자의 음 확보, 보존과 전승작업)
- 2002년 제3차 조사
- 2002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습(태풍 '루사' 로 연기)

▷ 2003년부터 활동내역

-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
-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
- 2003 제38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4 제39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4~2005 속초국악협회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갯마당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 2005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 2005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 2005 제40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6 유네스코(세계인류구전및무형유산결작),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 13호,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 2006 부평풍물대축제 지방무형문화재 행사 초청공연
- 2006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 활동사항

- 2004~2006 매주 2회(수, 금) 자체 연습 및 소리전수 (상도문 마을회관)
 분기별(4회) 종합 현장 연습 및 발표
- MBC 강원365 촬영 및 방영(2005년 1월)
- KBS 6시내고향 촬영 및 방영(2005년 6월)
- 속초도문메나리 보존회 구성(2005년 4월 : 69명 구성)
- 속초도문메나리 현판식 및 발표회(2005년 7월 5일)
 상도문마을회관 및 상도문운동장
- 2005 속초문화원 청소년 하계 체험프로그램 연수(1박2일) 진행
 *2005. 8. 12 ~ 13 상도문마을회관 및 상도문운동장
- MBC 강원365 촬영 및 방영(2006년 8월)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보존회 구성(2006년 현재)

- 보존회장 : 오순석(소리꾼)
- 부 회 장 : 오명현, 최도수, 오영자
- 지도연출 :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소리 전수자 : 오순석
- 악 전수자 : 오명현
- 소품담당 : 박원규
- 후원반장 : 이상옥
- 사무국장 : 최준집
- 총 무 : 오진석
- 지원담당 : 속초문화원, 갯마당

▷ 담당 및 역할

- 신목 : 오준석
- 서낭대 : 김정길, 오기현
- 농기, 단기 : 김훈기, 오세진
- 좌상 : 오두현
- 마름 : 박원규
- 소리꾼 : 오순석, 최도수, 오명현, 이상옥, 김환기, 장진영
- 징 : 오진석
- 북 : 김동유
- 쇠 : 김용학
- 장구 : 황순진
- 지계꾼 : 박의균, 구학림
- 농부1조 : 박용필, 오준택, 김진택, 안숙희, 이상녀, 박선춘, 박정수, 유상예
함지박 : 허영희
- 농부2조 : 진석환, 박용성, 신한용, 김순덕, 박인옥, 박리선, 김영애, 이한표
함지박 : 권금자
- 농부3조 : 윤태환, 오춘석, 김기영, 김옥수, 김순덕, 마금주, 박순이, 김옥수
함지박 : 김정희
- 농부4조 : 윤부웅, 오임석, 박상균, 오영자, 이옥순, 김향필, 장금봉, 한옥녀
함지박 : 윤복수
- 소품관리 : 오갑석

도문메나리보존회원 자체연습

2004 ~ 2006 매주2회 자체연습 및 소리전수
분기별(4회) 종합 현장 연습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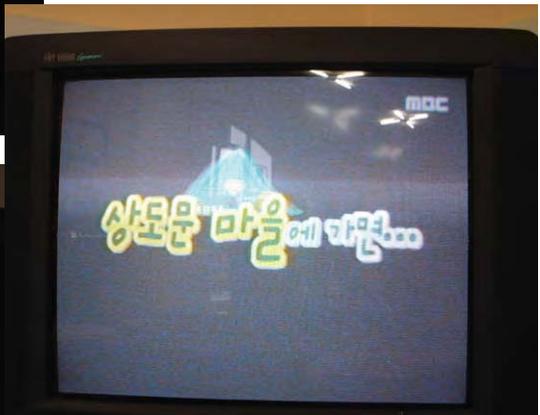
도문메나리보존회 현판식

2005년 7월 5일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마을회관



속초도문메나리농요 홍보

2005년 1월 MBC 강원365 촬영 및 방영
2005년 6월 KBS 6시내고향 촬영 및 방영
2006년 8월 MBC 강원365 촬영 및 방영



초청공연

2005년 7월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초청공연

2005년 7월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징탑 광장



초청공연

2006년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2006년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2006년 7월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징탑 광장



초청공연

2006년 7월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상징탑 광장



속초민속 박물관과 도문메나리농요 전승

2006年 9月 印刷

2006年 9月 發行

發 行 : 束草文化院

속초시 영랑동 570-5

phone.033-632-1231 / fax.033-632-1241

www.sokcho-culture.com

印刷處 : 열린마당

속초시 중앙동 468-217

phone.033-636-3636 / fax.033-636-3639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비 매 품 >

